朝鮮日報
夕刊 三日(火)
本紙夕刊二十二面
編輯人 崔利 方應謨 發行人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教育朝鮮의 展望

一

現下 朝鮮에잇서서 第一緊急한問題를 든다면 먼저 教育問題를 들지안흘수업다. 一、義務教育實施 二、中等程度學校擴充 三、專門學校及 大學增設 四、成人教育機關設置等 그모든가 緊急且重大한 問題로서 그하나도 猶豫하거나 忽視할수업는바이다. 勿論 經濟、產業、交通其他問題도 緊急치안흔바 아니로되 그先行條件이되고 또 原動力이될 教育이 充分히 實施되지못하면 到底히 그萬全을 期할수업는바로 참으로 朝鮮文化의 發展과 進步를 期待하고 朝鮮人生活의 向上과 幸福을 꾀하려면 먼저 教育부터 振興시키지안흐면 안된다 無知한大衆에게 爲政者가 아모리 協力을要求한들 그들에게 理解할힘이 업스매 어떠케 呼應하랴! 이러한意味에서 吾人은 新年을當하야 教育問題의緊急性을 强調하야 當局의 施設促進을 要望하는同時에 私學振興을爲하야 有志人士의 蹶起를 促하는바이다.

二

昨年四月改正朝鮮教育令이 實施된以來 學務當局에서는 初等教育擴充年限短縮을 計畫하야 昭和十七年까지에 即 第二次擴充計畫終了에따라 學齡兒童의 六割을收容하고 다시 十七年부터 二十五年까지 八年間 第三次擴充計畫을 續行하야 昭和二十五年에는 學齡兒童 八割五分收容을機會로 待望하는 義務教育制度를 斷行할 根本方針을세우는 同時에 昭和十二年부터 始作된 中等教育擴充十個年計畫을 五個年으로 短縮하야 昭和十七年까지에 完成키로 決定하고 그目的達成을爲하야 着着實施하고 또 實施準備를 하는中으로 當局者의勞力을 多라할것이나 如初中等擴充計畫이 모두所期대로 實現이된다하더라도 義務教育實施까지에는 아즉도 十一年을 苦待하여야하며 中等程度學校入學競爭도 到底히 緩和되기를 期할수업는形便이니 어찌 이計畫만으로써 滿足할수잇스랴! 더욱이나 只今現狀으로는 初等教育機關의 大部分이 四學年制小學校又는 簡易學校로 占領되고잇슴에랴 義務教育을 斷行할진댄 모름직이 六年制普通教育을 標準으로 할것은 勿論이고 加一層 現計畫을 短縮하기를 當局에 期望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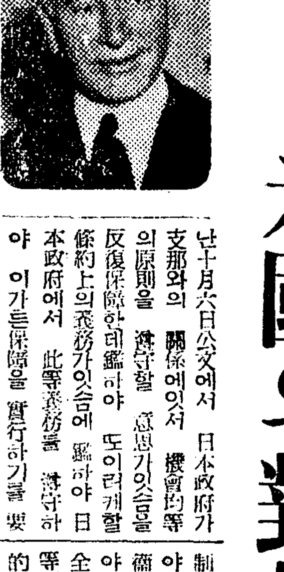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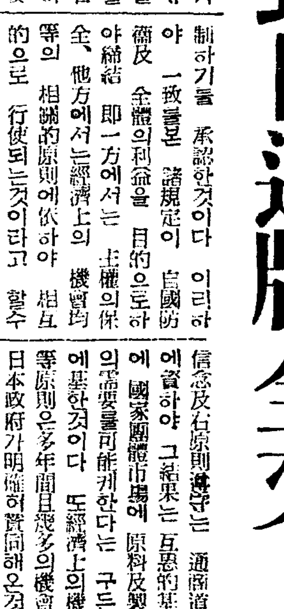
初、中等教育擴充案實施에 따라 專門學校及大學增設이 問題되는데 當局에서는 이미昨年에 京城帝大에 理工學部를、京城高工에 科를 더 늘리고 또 아프로 鑛業專門、女子專門、鑛山專門學校를 創設할計畫이라하나 二校 新設又는 一二科增設로는 年年히 增加되는 應募者를 完全히 收容키에는 너무나 不足한 感이 업지안어라 따라 現在 志願者가 가장 만흔 高工、鑛山、高商等學校를 從速增設하야 入學競爭을 緩和시키는 同時에 朝鮮을 開拓하고 朝鮮을 빗나게할 役軍을 養成하야 躍進朝鮮의 人的資源 確保를 期하기를 吾人은 主張하는 一方、成人教育機關으로 圖書館施設、研究機關設置、靑年學校、農民學校等의 增設도 考慮하여 주기를 切望하다。

四

다음에 吾人이 主張하려함은 私學의 振興問題이다 먼리 歐米諸國의例는 姑捨하고 內地의例만 보더라도 私立大學의數가 二十餘를 算하야 얼마나 私學이 教育普及、學術振興에 重大한 功勳을하여왓는가는 明確히 알수잇다。이에比하야 朝鮮私學界는 專門學校五六個가 잇슬뿐으로 大學은 한個도 업고 學術研究機關이라고는 그形態조차 차자볼수업는 現狀이니 이것은 우리民衆이 너머나 教育에 無誠意 無關心하다는 非難을바더도 一言의答할말이업다고할것이다。勿論數年前부터 教育事業을爲하야 淨財를만히 思擲하여온것만은事實이나 그래도 事實에 어려하고보매 어떠케우리가 教育에對한 誠意를 가젓다고자랑하랴! 私學振興을 爲하야有志의蹶起를 促하는同時에 當局에서도 私學振興을 積極的으로援助指導하거를 希望한다。

新事態를不認定코 權益確保를要求
米國의對日通牒全文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三十一日午前 米國國務省으로부터發한 對支那에서의 門戶開放에關한 對日通牒正文은 如左하다

米國政府는 現在米國의權益에 關한 十月六日附 米國政府의公文에對한 十一月十八日附 日本政府의 回答을接受하고 充分檢討를加한後 諸般事實及狀態에鑑하야 米國政府는 依然 議者에表明한 見解即支那에서 博愛教育及商業上의 事業에從事하고잇는 米國市民의 從來及活動에對한制限賦課는 從來又는이것에 今後에도繼續하는限 더욱日本의利益을 特惠的地位에 두려는것으로 이는 結果에잇서 合法的인 米國權益에對한 明白한 差別的이라는 見解를 再確認치안흘수업다 그리고 支那에서 一定地域에잇서서의爲替管理强制、通貨發行、關稅改正及獨占設置等에關하여는 日本官憲의計畫及 實行은 日本政府及日本에依하야 支那에樹立維持되는 政權이 或은 權力에依하야 行動하고 또그와가튼 資格에依하야 行動함으로써 米國을包含한 列國의 確定權益을 無視하거나 或은 이를消滅乃至撤廢되엿다고 宣言할 權利가잇다고 僭稱할것을意味하는바이다 米政府는 前記制限及 措置는 다만不正且不當할뿐만아니라 自發的으로協定된 日米兩國及 어떤境遇에는 다른諸國도 締約國으로된 數種의 條約規定에 違反하는 義務的 國際[illegible]것이라는 確信을 表明하는바이다 前記回答文의 終結部分에서 日本政府는 『只今東亞의 天地에서 新情勢가 展開되고잇슴에 當하야 事變前의 事態에 適應하든 觀念乃至原則으로써 現在及今後의 事態를 律하려함은 何等當面의 問題解決을 齎來하는所以가 아닐뿐아니라 又 極東恒久平和의 確立에 資하는바아니라고 確信한다』는 旨를 言及하고 『米國其他列國에서 如上한 趣旨를 諒解하야서 企業貿易의 諸分野에亘하야 東亞再建大業에 參加함에 對하여는 日本으로서는 何等이에 反對할意向이 업다』고 言明하엿다 米政府는 [illegible]

난十月六日公文에서 日本政府가 支那와의 關係에잇서 機會均等의原則을 遵守할 意思가잇슴을 反復保障한데鑑하야 또이러케할 條約上의義務가잇슴에 鑑하야 日本政府에서 此等義務를 遵守하야 이가튼保障을 實行하기를 要求하엿다 日本政府는 이에對한 回答에잇서 日本官憲의손에 依하야 現實乃至養成된 極東의 『新事態』及『新秩序』를 米國其他政府가 諒解함을 條件으로 [illegible]

制하기를 承認한것이다 이리하야 一致를본 諸規定이 自國防衛及 全體의利益을 目的으로하야締結 即一方에서는 主權의保全、他方에서는 經濟上의 機會均等의 相關的原則에 依하야 相互的으로 行使되는것이라고 할수잇다 從來의經驗에徵하면 右原則中前者의 毀損破壞는 例外업시 後者의無視를 伴하는것이다 如何한 政府라도 그管轄地區의範圍를 逸脫한地域에서 政治的權力을 行使하기 始作한때는 언제나 必然的으로 右政府의計畫은 特惠的待遇를要求하고 또그要求가 右政府에依하야 주는듯한 事態의展開를보는바로機會均等을 滅却하고 摩擦이 생기기쉬운 差別待遇를 하게되는바이다 米市民의 支那에서의 無差別待遇는 一般으로 또充分히 確定된 權利인데 如斯한待遇를 享受하느냐 못하느냐는 今後米政府側에서 東亞의『新情勢』及『新秩序』에關한 日本當局의斷言의 正當性을 承認하느냐 안하느냐에依하야 決定된다는것은 米政府로서는 矛盾도 甚하다는 見解를 取치안흘수업다 米政府가 機會均等原則을 固執하고또이를 擁護하려는 所以는 右原則에關한 諸規定으로부터 精神的으로 發生하는 商業上의 利益獲得의 希望만에 依하야 生하는것은아니다 이는 右原則을 遵守함에잇서서는 經濟的、政治的 安定을齎來하야써 國內的福祉及 國際關係의 互讓的平和關係 兩方面에 貢獻할수잇다는 구든信念及 右原則을 遵守치안흐면 國際摩擦及 非友誼的 感情을 生하야그 結果는 特히右原則을 遵守치안는國에 對하여는 勿論其他모든國에 對하여도 有害하다는 구든信念及 右原則遵守는 通商道開發에 資하야 그結果는 互惠的基礎上에 國家團體市場에 原料及製造品의 需要를可能케한다는 구든信念에基한것이다 [illegible]

首相、陸海兩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三日 宮中의元始祭에參列하고 午前十時五十分 宮中을退出後 首相官邸에入하야 板垣陸相、米內海相과會見 二相과 要談을 하엿다

藏相樞府議長을訪問

【東京電話同盟】池田藏相은 三日午前十一時二十五分 平沼樞府議長을 私邸로訪問 要談하엿다

抗戰力量充實을 孔祥熙依然豪語

【上海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行政院長 孔祥熙는 三十一日夜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長文의 談話를 發表하엿는바 그 要旨는 汪精衛의 和平聲明에는 言及치안코 다만 國民政府의抗戰力量에 關하야 如左히말하엿다 日支事變勃發以來 日本軍이占領한土地도 相當이만흐나 鐵道及 公路等交通線을 除하고는 모두 國民政府의 統治下에 잇스며 現在國際關係는國民政府에 對하야 漸次有利히 展開되고잇다 英米兩國과의借款締結은 此等兩國의 國民政府에對한 好意를 證明하는것이다 國民政府歲入은 減少되엿스나 이것만으로써 抗戰은 云다할것은 잘못이다 余는 現在 國民政府의 經濟力量은 充分히 充實되엿다고 생각한다

汪의終身除名을 國民黨側에서決定

【紐育一日發同盟】一日紐育에 達한 UP重慶電에 依하면 國民黨中央執行委員常務委員會는 一日特別會議를 開催하고 汪精衛가 自己의部署를 放棄하고 支那國策에反한 對日和平提議를한理由로서 國民黨으로부터 終身除名하고 모든官職을剝奪하는旨를 決議하엿다고한다

大野總監 四日歸京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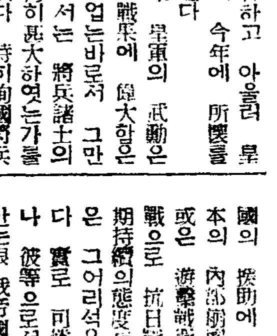
昭和十四年度 總督府豫算協議其他議會關係要務를爲하야 渡東中이던 大野政務總監은 來四日午後一時二十五分 京城着으로 歸任할豫定이다

八面鋒

◇近衛首相의 聲明을 同意하는 汪兆銘은 香港에서 反蔣派를 거느리고 獨立運動을開始。
◇長期抗戰을 豪語하는 重慶政府는 汪兆銘에게 終身除名을 하는 同時에 汪一派 二百餘名을 誅殺。
◇蔣介石派 汪兆銘派 王克敏派 可謂 鼎立現象。
◇帝國聲明에 對하야 米國政府다시 門戶開放、機會均等을 要求。
◇要領은 重言復言해도 마찬가지。結局實力이 問題를 解決할밖에。
◇明年度 朝鮮豫算 六億四千萬圓。
◇議會에서 削減될것을 假想하드라도 昨年보다 一億圓의 增加。
◇朝鮮人의 富가 그만침 늘엇다면 多幸。

今日本紙十六面

新年劈頭에際해 朝鮮民衆에告함
南總督元旦에放送



南總督은 一日午前八時부터 二十分동안 倭城台官邸에서 라디오를通하야 『年頭에際하야 半島官民에告한다』고題하고 如左히 呼訴하엿다

諸君新年을 慶賀한다 먼저 皇室의 彌榮과 國運隆昌을 祈願하고저한다 戰必勝、攻必破의 我皇軍과 이를支持하는 銃後國民의 擧國一致的 協力에依하야 勝利의 榮光에 빗나는 皇紀二千五百九十九年 年頭에 라디오를 通하야 諸君의健康을祝하고 아울러 皇國臣民으로서 今年에 所懷를 말슴하고저한다 日支事變以來 皇軍의 武勳은 赫赫하고 그戰果에 偉大함은 古今戰史에 업는바로서 그만콤 一面에잇서서는 將兵諸士의 勞苦가 如何히 甚大하엿는가를 想察할수가잇다 特히殉國將兵의英靈에對하여는 敬悼하는마음이 切切한바잇서 玆에諸君과함께 戰歿傷病將兵及 그遺家族에對하야 衷心으로의感謝를 披瀝하는바이다 皇軍의 連戰連勝은 恒常內外人의 耳目을聳動하엿는바 廣東及 武漢三鎭攻略에依하야 全世界는好不好에不拘코 日支勝敗의 大勢가決한것을 判然 認識하게되엿다 그런데 蔣介石等은 依然抗日의迷夢에서 覺醒치안코 第三國의 援助에 依支하야 또다시 國土의 內部崩壞를 夢想하면서 或은 游擊戰術 或은 焦土抗戰으로 抗日戰을 策謀하고 民心을 欺瞞하고 그戰爭을 繼續하고잇슴은 그어리석음의 極이라하겟다 實로 可憐할바이다 그러나 彼等으로서 過失을 고치지 안는限 我帝國은 어데까지膺懲을 强硬히하지안을수 업는同時에 親日防共의 新支那를 助成하야 東亞新秩序를建設하야 永遠의 安定을 確保하지안흐면안된다 今後에 對支策은 殘敵을掃蕩하는 武力戰에 併行하야 占據地域의 治安을肅正하고 善良한 支那民衆의 安寧幸福에主力을 傾注하여야한다 吾人은 東亞長期建設의新事態에對한 帝國에重大한 責務를自覺하고 日、滿、支三國民의 協力을 强化하야 東亞永遠의 安定을確保하고 延하야 世界平和에 貢獻치안흐면안되며 이大事業의 推進力이되고 指導者가될者는 日本 國民이므로 日本國民은 모든 職域을通하야 各個人의 素質資格中에서 指導者的精神을 確立치안흐면 안된다 即長期建設의 成敗는 全혀 우리國民의信念과能力의 强弱如何에 달려잇다 그러면 如斯한 國民的自覺과信念은 무어에依하야 湧出될것인가하면 그것은 支那事變이 由來한 歷史와 東亞를中心한 國際情勢의認識에 依하지안흐면안된다 東亞의各民族은 서로血液의 源을密接히하고 文化의交流를 密接히하면서 發育해온바로 中世時代까지는 政治的으로 利害關係를달리하고或은風俗習慣을달리하야 屢屢干戈之間에잇서國家의盛衰興亡을 反復해왓섯다 그런데 西洋列國이 十九世紀에 入하야 그優秀한科學兵器로써 壓力을東亞에加하야 東亞의運命이 累卵之危에 瀕하게되엿섯다 그때에 東亞는 곳內爭을버리고 서로提携團結하여야 할것임에不拘하고諸般關係上그 形勢를 調整못하엿든이 多幸히我帝國이 明治維新後 富國强兵之策을取하야 國力을充實하여엿기때문에 東亞의 安危를支持하야온바로서 어로잘미아마 數回의戰爭을하엿든것이다 萬若에 時期에잇서서 東亞에 日本帝國이업섯드면 今日의東亞形態가果然如何한悲慘한 運命에빠저잇슬가는 想像키不難한바이다 오로지帝國이東亞의安定勢力으로서支撑해왓기때문에 今日의程度에防止할수가잇섯다 滿洲事變及 支那事變은 大和大同의 我를一家로하려는 東亞 帝國의思想과 蔣政權의 第三國依存主義에基한 兄弟鬩牆의鬪爭思想과의 對立에依한것이므로 仁義의大道에서보아 그러함은 스스로明白한일이다 따라서 聖戰의進展에依하야 善良한 支那民衆은 蔣介石一派의 容共抗日政策을 排斥하고 日滿과相結하야『東洋人의東洋』을 建設하려는 動向이 顯著하게되여 東亞聯盟의 結成이 進捗하고잇다 우리는 皇國臣民의 貴重한 鮮血로써 使命을다하고저 現下에 歷史를 綴하고잇는 嚴肅한 事實을明[illegible]히 銘記하지안흐면 안된다

다음 東亞를中心한 國際情勢를 觀察하건대 第一로 콤민테른의 世界赤化策은 支那를 [illegible] 東洋赤化를 企圖하야 [illegible]

[illegible] 各人이 各其職分을 [illegible] 實力을培養[illegible] 人格을向上하고 國力을 增大하면 足한것이다 이것이 東亞를[illegible] 推進力인 日本帝國의 實質을 完全케하는所以이다 나의年頭所感은 이로써마치겟다 (寫眞은 南總督)

不治難病이라고 落膽마시요
病者患家에게 一大의光明
東京帝國大學內에서 動物臟器藥品을研究

目下一流藥物學者間에 動物臟器藥研究가 高調하야 動物의內臟器官으로부터 分泌하는 主要成分이人體內에 드러가서 모든器官의衰弱을 回復식히고 如何히 年久月深한病源일지라도 根本的으로 確實하게治療식힌다는『所謂動物臟器藥療法』이 頻繁히 新聞雜誌를通하야 世間에紹介됨을따라 斯界의 衝動은 勿論이려니와 또는 一般世人으로하야금 새로운 警世의感을가지게하는일은 在來洋藥科學者가 너무植物界에偏重하야 累千年以來로漢方에서 認定한動物臟器藥의效力을 等閑視하엿다는 大反證이라고 肯定하지아니할수업습니다 方今吾人에게重大한關心을 끄을게하는일은 今回東京帝國大學藥學部에서 新設된動物臟器藥品化學講座가 緒方、高木、兩藥學博士의主宰下에서 研究하는일입니다 이와가튼일은 古來漢方에서 實驗한動物臟器藥의眞價가 近代醫藥界에까지認定하게된巨大한收穫이라고 아니할수업스며 따라서 病者患家에게주는 治療的效果는暗中에 光明을주는것보담 더욱 偉大할줄밋습니다。

天眞 熊膽丸
『天眞熊膽丸의效力은』 五十六年間의歷史와信用이證明한다

天眞熊膽丸은 過去明治十六年八月十四日에 官許된仙人秘方의家傳藥으로써 在來半百年以上(五十六年)의 사이에여러가지의症勢로 座而待死하는病者에게 놀낼만한 效果를주어 오날까지몃萬名의患者를 起生回生케하엿는지 이것이야말로不知其數라 아니할수업습니다。이런故로 여러사람들이 異常히 녀이어 神奇한仙藥이라고하며 또는어떠한關係로 이와가티效力이神速하고 또正確한가하야 別別傳說이 世間에 만히傳播하엿지만은 科學이 發達치못한 半百年前의일인故로 到底히알어볼 道理가 업섯습니다。그러나最近에와서動物臟器藥品研究의 進步에依하야 겨우多少의眞理를 探求하게되엿습니다。말하자면天眞熊膽丸은 動物臟器藥中에도 唯一無二한 萬古의靈藥『熊膽』을主要原料로하야 製劑하엿는故로新學說上『動物臟器藥療法』의 效果에 偶然히 一致하게되엿습니다。이런故로 天眞熊膽丸의 作用에對한 成分은여러가지로 만히잇스나 大略主要한成分의 몃가지를 紹介하면다음과갓습니다。

第一의成分 服藥後一二時가지나면 그藥效는胃壁을通하야 腸壁에吸收된後胃腸의組織細胞를根本的으로 回生시키고 따라서 胃腸內에잇는 모든液體分泌機能을矯正시켜 有害性毒素를完全히體外로 排泄시켜버리는故로 胃酸過多症、胃潰瘍、腸結核、胃癌初期等에限하야는 特筆大書할만한效能이잇습니다。

第二의成分 服藥後胃壁과 腸壁에吸收되엿던 效能은絕對的의持久力이잇는故로 如何히年久月深한 酒毒일지라도 完全히 解消시키며 또는아무리難治의滯症일지라도 一個月以上만連續服用하면 神奇롭게通治되는일은 仙藥이라고傳說까지듯고잇습니다。

第三의成分 熊膽을中心으로하고 其他七大高貴藥을 細密한比量에依하야 藥理上調製가 極히精妙하므로써 新陳代謝力이 旺盛하야 急性慢性의 心臟疾患은勿論 精神昏迷等에는 近代藥으로써 到底히追從치못할 神效가잇습니다

第四의成分 熊膽의 迅速果敢한發散力에依하야 服藥後不過幾時間에藥效가 胃腸으로부터 血管中으로 貫通하는故로 血液中의毒素를 破潰分散시켜 當場尿道를通하야體外로 排送시키는故로 이러한毒素때문에 衰弱하엿던 心臟의힘이스스로强健하야지며 따라서 一瀉千里의 效果는 人體五臟六腑어느部分을莫論하고 綜合的으로 徹底히貫通합니다

熊膽丸
熊膽丸의効能概說
다음과가튼症勢가잇는분에게 特히神速한効果가잇습니다!!

一、先天或은後天的으로心臟이衰弱하야 조금만한일에겁을잘먹으며 또는놀래기를잘하는분
一、元氣가不足하야 感氣잘걸니시는분
一、腎虛腰痛과遺精多夢으로因하야 房事不充分은勿論 元氣가漸漸衰弱하는분
一、憂愁思慮가過多하야 精神이昏迷하고 머리가무거워記憶力이衰退하는분
一、早老症狀이잇고 長壽못할徵兆가잇는분
一、四肢가느른하며 身熱이개이지아니하야顏色이蒼白한분
一、飮食을조금만먹어도 가삼에 꼭매달닌것가트며 恒常배가불근포만증이 심한분
一、年久月深한滯症과 또는여러가지의病症으로 飮食消化가 잘안되는분
一、過飮後、飮食調節이不充分하며따라 무서운胃腸病에걸닌분
一、過飮後、房事過多에依하야 難治의心臟病으로苦痛하는분
一、口味가一切업고 原因모르는속병으로 厭世症이잇는분
一、가삼이답답하면서 헛구역과트림이심한분
一、急性或은慢性의吐瀉霍亂으로苦痛이甚한분
一、其外產前產後의產母에게 强健劑로使用하야도効力이迅速합니다

買藥時의注意
本舖의五十六年間 信用과聲價를利用하야 類似品을 조흔藥이라고 推奬하는藥房과行商人이잇사오니 買藥時에는 반드시藥面左右便에 赤色으로印刷한明治十六年官許라는 文字에注意하시요!

便利한注文方法
藥代金을全部 振替口座大阪七八九九九番으로보내시면 送料도안드리고 發送하야 貴宅까지 가저다드립니다
萬一危急한病者가有할時는 電報爲替又는電報爲替로 送金하시면 藥은곳貴宅까지 配達하도록緊急發送하겟나이다 振替或은爲替送金方法은 郵便局所에가서 무르면 親切히잘가르켜줍니다

藥價 [illegible]

大阪市十三東之町二ノ二〇
本舖 天眞堂藥房
電話北六〇三六番 振替大阪七八九九五九番

映画は日活 偕樂館
四日より 『新春第二週』
◇日活京都大作 赤垣源藏
◇ワーナ社超特作 マイケル、カーティス監督 山の法律 ジョセフン、ヘッチンソン ジョージ、ブレント主演
◇日活多摩川特作 愛國巡禮歌
ニュース

平壤 金千代座
六、七兩日 上演藝題
悲劇 旅人宿 全一幕
奇劇 世紀의人形 全五場
悲劇 目擊者 全一幕二場
哀話 울고웃는人人 二場
喜劇 別莊과奇緣 全一幕二場
喜劇 假社長 全一幕

平壤 大劇
四日より四日間 『新春第二週』
◇東寶超大作 月下の若武者
◇東寶特作 エノケンの びつくり人生
ニュース

東洋劇場
新春一月一日부터
大時代劇 洒泚와水
落花岩 全四幕

松竹映画 マネキ
四日より三日間 『新春第一陣封切』
◇新興京都大作 龍虎日本晴れ
◇松竹大船特作 女友愛
◇新興東京大作 最後の審判
各社ニュース

手話로通한至情 盲啞와함께一生을

濟生院의恩師 全奎東氏述懷

이름다운새벽 ③

「날이 매우춥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시며 여러선생님도 평안하신지오 소생은 어섯설날 경성역을떠나 다음날아침 그리운고향에 도라왓습니다……」

어떤지의 글짜말은 극히 천년스럽다 그러나 어것은 보통사람이 쓰는 말이라고는 할줄도모르고 듣지도못하는 총독부 제생원(濟生院)아생파(啞生科)사년생이 겨울방학에 집에도라가서 그의담임선생 전규동(全奎東)씨에게보낸 문안편지중의 한토막이다 이만하면 벙어리가 말을하엿다고 전하여도 거짓말은 안될것갓다 손흉내로 의사를주고밧는 수화(手話)와 어것보다 좀더 정도가 노파저 입술이 울즈거리는것을보고 상대편의 의사를 알어내는 독순술(讀脣術)은 벙어리로하여금 자유자재로 말할수잇게하는 어십세기 공유의 크다란 기적의하나가되엿다

◇……◇

일직 초등교육계에 종사하다가 소화원년 동관비잇서 제생원 벙어리로 전념한 전선생은 그간 십년동안 벙어리와 장님을 상대로 꾸준한 노력을하야 그들로 하여금 말하는 벙어리와 보는 장님이 되게하려고 무한한 애를썻고 아프로도 힘써야할 업무를 스스로 지고 잇는 분이다 이곳으로 전념하기전까지처서 사반세기 이십오년간을 아동교육에 비친선생은 그의업적이 표면에 잘들어나지안는 섬길의것이니만치 남모르는눈물겨운 괴로움도 만허던것이다

◇……◇

선생은 극히겸손한 태도로 말의 세계와 동떠러서 잇는 아생에게 문자를 가르키는것은 조자(助詞)를 러득시키기가 더욱어렵습니다 「오늘은」「대단히춥다」하는말을 가르키라면 손흉내로 「오늘」「대단히」「춥다」의 세동작과 동시에 문자를 가르키지만 말과말을접속시키는것은 수십번 내지수백번을 번복시켜도 참말로알아듯지 못한다고 마음을 노키가어렵습니다 도한벙어리의 특징으로는 넘가는한데다가 속히어저버리므로 짧은교재를 가지고 응용을 만히하여야 처음에는 절벽가튼 벙어리생도들을 상대로 소리도만히 질러보앗스나 한일년지나니까 나도벙어리가 되어버리며 가궁한그들의 신세와 벙어리가보통사람과 다름업시 글을쓰고 이해하는것을보면 설사내몸이 벙어리가되고 장님이 될지언정 어사업에서 손을뗄수는업고 나하는 생각이 언제나 머리속을떠나지 안햇습니다」 흔히들 「아생과맹생은 어느편이가르키기 쉬우냐」고무러 보는이가잇는데 맹생은 대화로곳의사소통이 되므로 좀쉬운편이라고 할수잇스나 실물만저보아서 그형태를 어렵고시 짐작이해시킬수가 업습니다 상념간자기들 지도하여준 선생의얼굴을 모르는것은 어찌수업는일이지만 우성은고사하고 얼굴대하는힘이 얼마나 예민한지 거리에오는 발소리만들어도 어느선생님하고 이름부르는것을 알수잇습니다

◇……◇

조선에는 현재 맹아자가 삼만이천명 가량되는데 그중에교육을받는사람은 겨우 육백여명이므로 미흡한 교육이나마 그혜택을입은 비례는 단 이「퍼ー센트」박게안됩니다 본래타고난 벙어리와 장님은 할수업는일이지만 그뒤에 그러케된것은 대개는 열병의 치료를 그릇하야 큰비극을 비저내인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맹아자의 수효가 적은것은 물론당연한일이지요

◇……◇

겨울에 추위를모르고 여름에 더위가 오지안는다는 선이궁(宣)의 「에루살렘」이 되어잇다 차라리 지귀한것이 지허잇다 무도 알아보는 장님에게는 강업는 놀건이오 무한한것을 듯하야 피아노소리가 울려오는 전와도 아생에게는 아무소용이업는것으로 되여잇는것이다 맹생이 조하서 손에 지는것을보던 아생은 의아한눈으로 수업이어지 건너다보다 이런가운데서 맹아자를 교육하는사람 그는 자신이 벙어리가되고 장님이되어 자기가 모르는사이에 차츰 생활이 변하여 간다는것이다 자기의 타고난 천직을 일어가면서도 상당한 절벽에 구멍을 뚤으며 무쇠정으로 돌진을 계속하고잇다 삭풍이 날을 여위는듯한 추위에도 아름다운 새벽을 마지하려는 한 희망속 사람들은 겨울을잇고 행신의 준비에 여념이업다 그런까닭에 지금소개하는 전선생은 언제나명랑한 웃음을띄우고 맹아의세계에 숨겨일하시는것이다

★…… ☆……

特別都制羅津廳

七月엔開廳、高女校設立問題도順調로進捗

【羅津支局】나진청(羅津廳)문제 기타중요안건 상의차 상경하엿다가 이십팔일 도라온 나진부 당국자의 말에의하면 목하쌍북 부락국에서는 대야(大野)정무총감이 도동(渡東)、나진청개설문제를 중심으로 관계각요로에절충후에 잇거니와 원래이나진청 문제는 국책적 견지에서 출발한문제이니만치 이번의회(議會)에서도 이의업시 통과될것으로 보고잇서 느저도 명년칠월께는 개청(開廳)을 보게되리라고한다 그리고 현안중에잇던 나진고등여학교신설문제도 그후순조롭게 진행되여 본내의계획대로 립될는 모양이여서 방금총독부 재무국에서 성안을 급히하고잇다고한다

漢江어름이풀렷다

스켓、通行을禁止

한강얼음타기는 당분간 금지하게되엿다 한강얼음은 요지음 영하팔구도내외의 기온으로는얼음이두께사촌밧게되지안흐므로 위험하야 용산서에서는 부터 당분간 한강얼음우에 마차의통행은 발할것도업고 스케이트까지도 금지하고 이밤에게 위험신호를 발하엿다

變態的인怪犯

백화점에 도라다니며 남의외투를 칼로오려내는 변태한놈이 횡행한다 지난밤 여덟시경 시내어성정(御成町)삼십오번지 소림조시(小林助市)의장녀 후미에(富美枝)(一六)라는처녀는 삼월과 평전등 백화점에서 물건을사가지고 집에 도라가보니 자기의입고잇든 외투가 사정업시 찢겨저잇스므로 자세히 조사해보니 물건사는사이에 어느자가 날카로운칼로 그처럼베여버린것이 판명되엿다 계출을바든 본정서에서는 연말년시의 복잡한틈을타서 도라다니는 변태한을경계중이다

小作令全面的改正

農村의明朗化企圖

調停申立의九割五分이小作人側의抑鬱한事情!

明年度부터實施코자法務局準備中

농업조선의 소작문제는 농업보국운동에 주대한관계가잇스므로 농림국(農林局)과 총독부에서는 서로협조하야 소작쟁의를 근절하는동시에 소작권을확보하고자 저간여러가지로 연구조사중이든바 대륙진출(大陸進出)의 병참기지(兵站基地)인조선의 물적자원을 확보함에는 소작조정령을 증보강화(增補强化)하는것이 선결문제라하야 마침내명년도부터 조선소작령을 전면적으로 개정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이미 그개정안이 법무국 암도사무관(岩島事務官)의손에서 안정될고되엇다

이제 소작조정령을 강화철저하도록 개정하는 그내용의일단을 울펴건대 소화십이년도 전조선각재판소에서 취급한 소작조정수건은 실로일만일천삼백칠십건에달하는데 이것을 전년에비하면 일천육백십건의격증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전부가 소작인이 억울하다하야 조정을신립한것으로 총건수의 구할오분을 점령하얏스나 지주의 신립은겨우오분에 불과하다 그리고사건종류별로보면 직접 소작권에관한것의 구할로 소작쟁의의 거의전부를 차지하고잇는현상이다 이와가티 지주가 소작권을가지고발동하는 리면에는 소작인의서룸이잇고 소작인의 서룸으로절수업시 법에 호소하게된것인데 그결과는 농촌에 일대암영을던저저 농업보국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게되는것이다 그리하야 이번에 법무국에서는 소작조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야 소작권의확보를 도모하야 농촌의명랑화를기하기로 되는것이다

元旦神宮參拜 八萬七千餘名

정월초하룻날 하로동안에 조선신궁에 참배한 인원은 한계 팔만칠천칠백팔십오명이엿는데 이날 오전아홉시에는 남총독 중추원사령 기타고관들도 참배하엿다 작년 정월초하로의 참배자는 십사만이천육백삼십사명이엿는데 금년은 작년에비하야 오만사천팔백칠십팔명이나 적어젓다 눈이나린관계로 주려진것인듯하다한다

唐津에强盜

당진군 당진면 대전리(唐津郡唐津面) 산십일일오전네시경에 주남당

漏川、積岩에 市內電話

황해도 누천(漏川) 파적암(積岩)의 두우편소에서는 오는신년일일부터 시외통화사무를 시작하엿는데 누천과통화할수잇는곳은 도내도외를통하야 십육개소 적암과는 십팔개소에달하므로 도내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으로기대된다

京釜線複線進捗

南京城大田間과三浪津釜山間 三月에完成四月開通

남경성 대전사이의 경부선(京釜線)복선부설공사는 예정대로진행되여 오는삼월까지 완성되여 사월일일부터는 완전히 개통되게될터이며 또삼랑진(三浪津)부산사이의 복선도 사월일일부터 개통되기로되엿다 이복선이 개통됨에따라 경부선 열차운전시간은 종래보다 훨신 단축하게될터이며 그밧자이간도 일부개정되게될터이다 또 영천(永川)경주(慶州)사이의 광궤(廣軌)개설공사도 삼월까지는 완성되어 사월부터는 현재의협궤(狹軌)로부터 광궤로박구어 운전하게될터이다 이리하야 대구경주사이에 광궤로완전히 통하게되엿스므로 신라의 옛도읍인 경주고적탐승에도 여러가지로 편리하게될터이라한다

休日氣配

▲期米 (天氣)買上決定直後九州方面으로부터 應募漏落의賣物이 相當히出現되여 大阪正米는 軟化되엿스나 朝鮮은 全히不變이여서 今日의氣配는 定期正米와함께 不透明商狀이고 新甫는十錢의 上鞘豫想이엇다

▲株式 事變關係、國際關係의硬軟兩材의交錯로 氣迷가深하나 金融緩漫으로 雜株中心에는 買氣가잇서 氣配는底堅이엇다

大新 六二五〇 東新 一二五五〇 鐘紡 一四四五〇 滿洲 六六七〇

天氣豫報

豫報 今夜도明日도흐리겟다가 흐리다한다 全鮮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二度九
同 最低 零下九度八
今朝最低 零下十一度六
今日正午 零下十一度四

曆

▲一月四日(水曜)陰十一月十四日 ▲干支 辛丑▲日出 午前七時四十八分▲日南中 午後零時三十八分▲日入 午後五時二十八分▲晝間 九時四十分▲月出 午後三時五十七分▲月入 午前五時三十八分 ▲滿潮(仁川)午前三時十五分 午後四時

普專러비ー軍 秋田鑛專을擊退

全日本高專러비初日

新春劈頭를 마지하야 外征中인 各地勇士들의 捷報는 쉬일사이업시 들녀온다…大阪에서待機中이던 普專럭비ー軍은 第十四回 全日本高專럭비ー大會 第一日인 昨一日 午後二時十分부터 花園競技場에서 田中氏審判아래 强敵 秋田鑛專과 對戰한바 普專軍 劈頭부터 壓倒的優勢를 보이여 前半은 八對零으로 리ー드、小雨가 나리는가운데 그라운드는 진흙마당이되여 디슌은 極히 不良한가운데 兩軍力戰、後半에드러가 普專또 六點을 어든데反하야 秋田軍은 無得點으로 結局 十四對零으로 普專이 大勝하야 第二回戰에드러갓다 秋田軍은 지난해의 優勝校早高等學院과 準決勝에 十七對十四로 肉迫한 强敵이엇다

普專 14 (8:0 / 6:0) 0 秋田鑛專

京師러비ー勝 對同志社中學戰

大每主催의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ー蹴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日午前十時半부터 甲子園球場에서 開催된바 朝鮮代表京城師範은 第一回戰에서 同志社中學과 對戰 八對三으로 勝利하야 第二回戰에드러갓다 (競技開始零時五十分 審判…川本 甲斐 尼崎三氏)

阪神驛傳에 培材軍明日出發

關西大學主催의 第十五回全日本中等學校大阪‧神戶間往復(三十八哩六)驛傳競走大會는 來八日午前九時부터 擧行될터인데 이大會의 昨年度覇者인 培材中學軍의 池永龍、吳昌澤、白昌鎬、李鍾燮、金益俊、劉寬興等六名選手는 部長崔浩氏引率下에 四日午後三時『노조미』로 壯途에 오르게되엿다

沈君對掘口十二回戰

朝鮮이나은 職業拳鬪界의猛將沈相旭君이 一月에『마니라』에遠征할려고한것은 前報한바어니와 沈君의遠征을압두고 明四日午後六時부터 東京國技館에서 피스톤堀口와 十二回戰을 行하기로되여 熱狂的人氣를이끌고잇는데 戰前豫想으로는 沈君이KO로이기지못하면 判定은엇기어려우리라한다

普專蹴球團消息

第一回全日本實業專門學校 蹴球選手權大會는 一月一日로부터 五日까지 東京本鄕中學球場(準決勝戰까지)과 東京帝大球場(決勝戰)에서 開催될터인데 普成專門蹴球部는 第二回戰에서 福島高商軍과 今二日午前十一時半에 對戰케되엿다 이大會에는 원사이드게임으로 普專이大勝할것이며 同大會終了後에는 橫濱外人蹴球團과및 神戶全關西OB軍과도 對戰하기로되엿다한다

奉天卓球來京

滿洲卓球界의雄!奉天滿鐵 卓球部에서는 年始休暇를利用하야 朝鮮과 九州地方으로 遠征케되여 一行은 三日午後二時五十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야 同日午後六時부터 京城帝大 醫學部道場에서 總督府 卓球軍과 一戰을 交하기로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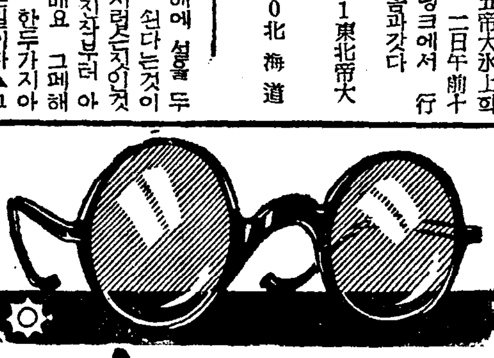
城大학키ー勝捷

【日光電話發同盟】第四回五帝大氷上학키ー리ー그第三日은 二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細尾링크에서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京城帝 4 (1:0 / 2:0 / 1:1) 1 東北帝大
東京 2 (1:0 / 0:0 / 1:0) 0 北海道

한해에 설을 두번 쉬다는것이 우ー지럽다는것은 진작부터 아는배요 그폐해가 한두가지아닌것도 깨닷고 남은일이다▲그러면서도 옛날을버서못하는것이 사람의 약속한 둘째천성이라 아직도 양력설을 설답지안케 여기는이가만타▲그래서 양력설은 양복입은이들의 행세정인모양이라 해는 분명히 바뀌엇는데 설의 감격은 두어달로 연기를하고 잇는셈이니 알다가도 맹낭한일이다▲오늘이 음력으로 멧칠이오?하고 물으면 흔히는 일력을 드려다보야 아는 처지이면서 설만은 음력설이래야 한다니▲이정도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습관을 버리기 힘들다기보다 괴벽한 고집이라고 박게할말이 업는일이다▲구러치만 도 남처럼명낭하지 못하고 남처럼 술거운입을 술기지도못하는처지에▲한해의 한번잇는설을 두동강에 내가지고 이설도、저설도 설답게 지내지못하니 고집도 이만하면 무던이 솜모업는고집이다

每月月報發行
卸 藥
藥品 新藥 賣藥
新規開業者는 特히相議에應함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電本七五‧一七一‧二九一‧四一‧〇五〇‧五〇二〇
振替口座京城一四五‧十‧私書函京城八九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江頭眼科醫院
京城醫專病院眼科 金井眼科醫院
京城赤十字病院眼科 荒川眼科醫院
龍山鐵道病院眼科 仁川岩永醫院
龍山陸軍病院
京城帝國大學御用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二二九 〈眼鏡‧雙眼鏡カタログ送呈 要三錢〉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法人登記公告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敎朝鮮合會
京城地方法院 東大門出張所

百日咳에
博士推奬 品質本位
コデス
(定價二十錢부터)
(各地藥店販賣中)

時計廉賣處
新義州驛前 合資會社 三洋行
(カタログ進呈 要三錢切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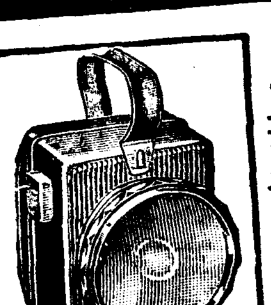
產地直接
福井市城町三ノ九 松村六太郎商店
來店歡迎

求妻

朝報案內

李駿烈
大同鑛業株式會社

劇團豪華船 地方巡演日程
正月一日부터五日間 大邱劇場
林仙圭作 流浪三千里 二幕七場
中央公演時에絕讚好評으로連日連夜超滿員을이루고延期로劒總十二日間續演의記錄的數字를남긴東劇初有의感激劇이여든!
『流浪三千里』는果然그얼마나偉大한名作일가?보시라?우시라!幻年名優、嚴美花孃의天才的妙技는果然入神之境으로躍進의進步를보여줌은우리劇界를위하야幸福된일이라하겟습니다
愛劇家諸賢!
絕好의機會를일치마시고꼭보러한번 鑑賞하소서
一月一日、二日、三日、四日、五日 大邱劇場
六日、七日 釜山大生座
八日、九日 馬山共樂館
十日、十一日、十二日 晋州劇場
十三日、十四日 統營劇場
十五日、十六日 順天倶樂部
十七日、十八日、十九日 光州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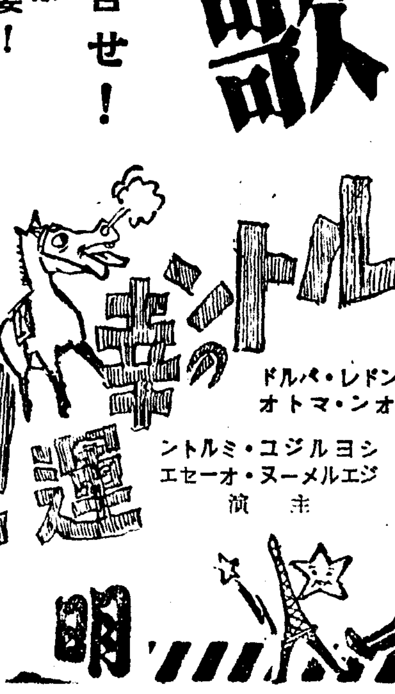

ナショナルランプ에
强하고밝은乾電池
람푸는 乾電池
ナショナル乾電池
松下乾電池株式會社

韓昌達氏以宿患今日午後二時別世玆以告訃
昭和十四年一月二日
嗣子 韓台集 台業 台準
親族代表 韓徵維 徵謙
友人代表 高志央 朴忠植 金明學 李載澤

安東縣官電町十三號
本報安東縣支局
長電話三七四四番

彌次喜多道中記

日活 京都 大作
片岡千恵蔵・美ち奴・監督
杉狂兒・楠木繁夫・マキノ正博
映畵界・レコード界・人氣スター 總動員
K
パラマウント大作
ロイドのエヂプト博士
主演 ハロルド・ロイド
助演 エリオツト・ニユージエント
四日より 黃金座

四日ヨリ八日マデ
母の歌
前篇・ちかいの巻 後篇・えにしの巻
年に一度の豪華顔合せ!
田中絹代 夏川大二郎
川崎弘子 德大寺伸
三宅邦子 三原純
高峰三枝子 大山健二
外大船スター總出演
脚本 齋藤良輔
監督 佐々木康
げに尊きは母の姿! 美しきは女の心!
死を乗り越えた强き母性愛と、肉親も及ばぬ女の友情が結びついた愛と涙のメロドラマ!
映寫時間 一時間四十分

ミルトンの幸運
原作 アンドレ・パドル 監督 レオン・マトオ
主演 シヨルジユ・ミルトン ジエルメーヌ・オーセー
明治座

新選文學全集 朝鮮文學讀本 大發賣中

謹迎戰捷之春
全店新年初賣
4日─6日
サービス品豊富提供
新年の喜びは先づ戰線へ!
まごころ籠めた 慰問袋を
一圓五十錢以上各種……一階慰問品賣場
京城 丁子屋

豫算(咸中線)은計上이나 아직도樂觀은不許

結核療養所、工校設置도緊急

咸南道篇

함중선(咸中線)철도의 중요성과 도민들의실현에대한 성의여하는전항에 소개하얏거니와 다시 이철도의 부설이 시기를 다투는것으로 논함남당국은 치명적으로 위협하고잇는 신경세를 말하지안흘수업다

함남의 벽지와 평북의 주요시장을 무대로 쟁탈전을 전개할두철도의 실현이다

하나는 단풍(端豊)선철도의혜산연장과 만포진(滿浦鎭)선의혜산연장의두개로선이 즉그것이다 단풍철도의 혜산까지의 연장은이번 함남도가 주체가되여기회하고잇는 대단천의 시설과함께필연적으로 실현될것이오 만포진선은 강안(江岸)신가파(新乫坡)후주(厚州)나난보(羅暖堡)등을 경유하야 혜산까지 이르는동안을 실직까지하고 잇스므로 벌써실현은 시일문제로되여잇다 이두철도가 실현되는날이면 함남에서 유일한상권내인 소위함중선 연선의 물화는 모두양철도를 경유하야 평남혹은함북또는 단천항을 통하야 일본내지로 직로직수하야 흡수될것이다

더욱히동해안의 요항인동시함흥의관문토항(吞吐港)인 흥남(興南)을위시해 호수회의 요정(要津)일뿐더러 서대안만주국까지이르는일만의최단직선코-스이다 이상과가튼정세인만큼함남도민은 모든기지나간수년동안의 이운동에 밧친여갑절의 정신적내지 물질적설력을다하야 기어히 이철도실현에매진할것이며 당국에서도 만난을배제하고 군사적또는 산업상의생명선인 함중선의 실현에힘쓴결과 계획은 점차실현화하게되여 금번추가예산으로 건설비구천만원을 계상하엿다고 반가운것가잇다 그러나 예산안도아프로 여러가지 난관을 기처야할것인만큼 아직낙관할수는업는형편이며 당국의 가일층의분발이잇서야 할것은사실인것이다

◇

다음으로는 공장시대로서의함남에반드시 실현하여야할 두가지문회적 시설이다 하나는 결핵요양소 다른것은 중공업노의공업학교설치다 함남도는 누구나말하기를 신흥공업 지대라고한다 이것은 말할것이 아니라 사실에잇서서 조선의 종합전덕의삼분의이 이상의전기 원동력을가지고잇스며 이것을 바더서야구계의흥남 조질등 십여개소의대공장 또새로운것지하기로된 전진(前津)의 대화학공장 또이우에이번에 함남도의 기회에속하는 단천의 만내사이르는 계획(計劃)동의 거대한공장이 속출하고잇스며 도내해안지방은 어느곳을 것이 대소공장이 엄립(林立)하게될 장관을 보이고잇다

이것은 여실히 공장지대로본 함남을 말하야주는것이며 이제부터 제로환어날 허천강수전(虛川江)장진수전(江界水電)의 완성파함께 전기공업은 더욱 증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대소공장이 더욱 증가할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급후 공장지대로서의 삼만 사천의약진을보일것을 말하는것이어니와 이에따라서 공업이라는 그것이 함남도민의생도와 얼마나 밀접한관계를 가지겟는나 하는것을 말하야준다 가령 비근한예를들면은 이러한 대공장을 도민의손으로 직접경영하지는 못한다고치더라도 (사실 이제까지는 그러한상태이지만은)이러한 대소공업기관의 기술자임원이되여 생을 영위(營爲)한다던지 또는 기술을가지고 자본가와 결탁을하야 무자의경영을하게된다던지 얼마던지 공장지대로서의 분위기속에서 살아갈수가잇다

이뿐아니라 함남의 지하자원은 누구나 실감하는 풍부하다 그러나 도민들의 생각은 당산의허대운 얼마나될가? 어런점에 잇서서는 함남도민의 공업지식에대한 무지무식이 한란스러우며 더욱 근대적으로 보아서 공업지식방면의 기술자수요가 얼마나 많을하나 어예공업학교의 설치를 하루라도속히 비라는 소치이다

◇

함남의 공업학교설치운동은 벌써 십여년전부터 내려왓스며 특히 금년가튼 때에는 평남 경남파 삼화전(三和殿)이생겨 그운동은 상당히 맹렬하바잇다 그러나 이번의 설치는 저의평남으로 내정되엿다는 비보가잇서 낙망을하고잇다 이에 대하야서는 도당국에서도 만전의 대책을세워 위선 명년도에는 광업기술원양성소(鑛業技術員養成所)를 확장하야 수업년한을 연재의이배로 그리고 따로히 전기파(電氣科)를 신설할 계획이라고한다 이것은 확실히 공업학교의 유치전제로서이며 당국의 성의에대하야 민간측 그중에서도 그혜택을 만히바들 조질(朝窒)회사 대의방가들이 다가리수머니곤을들어서 민간부담 예산상비율 하루속히 조처되율하기를바라다 이것이 조처되면 공업학교의 설치는 멀잇시간문제로 볼것이다!

다음 공장지대로서의 반드시 시설하여야할것은 결핵요양소의설치이다

공장이라면 누구나 공기의 불순을 연상시킨다 이에서남이업서 공장지대함남의 공기는 자못 다른곳에 비하야 혼탁하다 특히 흥남 본궁(本宮)또는 원산의 조선석유공장 의부근일대의유독한 연기(煙氣)는 위생의지에서 처음오는 사람들을 질식케하리만치 심합배잇다 이에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문제는 호흡기병 특히 폐(肺)의질환이 만흔것이다

함남의생과의 통계를 보면 작년중에 발생된 폐결핵환자는 일천삼백사십팔명이 기타의 결핵환자는 오백이십팔명 즉발생총계가 일천팔백칠십육명의 다수가된다 이것을 전선에비하야보면 폐결핵으로는 제삼위의 자랑할수업는수위를 차지하고잇다

……(계속)……

(咸南特派員 朱洛渥記)

元山의人口膨脹 一年間三千四百名增

【元山】원산부에서 저반조사중이던 원산부인구동계는 소화십삼년말일현재로 그세대호수 일만사천오백이십륙호에 그 인구는 유만칠천사백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호수일만삼천칠백팔십공호와 인구육만삼천구백구십륙명에 비하여보면호수로 칠백사십륙호 인구가 삼천사백사인이 증가된세음이라는바 이인구의 증가는 사실약진원산의 면모를 여실이 말하는것이라고한다

東明國民學校 盛大한卒業式

【樺甸】화전현성(樺甸縣城)에잇는 동명국민학교와 동국민우급학교(東明國民學校同國民優級學校)에서는 지난이십삼일 오전 … 호소국민의의무를 다하기우하야 지난 신학기부터 아동의 봉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되여 신경소제(神境掃除)임전헌금 은지헌납(銀紙獻納)등 여러가지 사업에 다대한 성적을 남기어 일반은 칭찬이자자하다하며 은지팔천여매는 당지협화회를통하야당국에 전달하기로되엿다

公州永明實修學校 乙種昇格을準備

二年制를三年制로

【公州】충남공주영명학교(永明學校)와 영명녀학교(永明女學校)의호신으로 실업교육으로 학제를변경하야 남자부와 여자부를 양교에두고 남자부는 농업、축산、간이목공、칠공을 교수하고 여자부는 가사、직조、재봉、간이축산등을 교육시켜 수업연한 이년의 수업을맛치게되엿다 당교수업연한 이년으로는 도저히 충분한 실업교육을 주지못함을 유감으로생각하는 동교당국자는 삼년제 을종실업학교로 승격을준비하야 오는사월신입생 모집기부터실시하기로 제반을준비한다는데전기실수학교는 전일 영명야학교의 건물건평이삼백여평이며 농업실습지가 오천여평이요 림야가 수십정보로 기타 축산의 실습에도 설비가 충분하야 현재설비된것도 을종실업학교로는 별로 손색이 업다고 한다

新倉에또大雪

【新倉】평남신창지방에는 작년십이월이십삼일 철여나나린대설로말미암아 평원선이 다이야에 변동과 북지방행 영원덕천맹산(寧遠、德川、孟山)행 여객자동차운전에 대이장이 생기여선는 눈이 다녹지도못한 지난십이월말일제야에 오후팔시부터 눈이 나리기시작한눈이 일월일일아침싯지까지 나린눈만해도 도처여나내리여 일월일일 평양발양덕행제팔백십일열차는 적설로 인하야 운전이불능하여 응원회차를다시어더 온전하는판계상 일시간여의연착을 보게되엿스며영원행여객자동차 역시 운전불능을 우려가잇는데 아직도 눈은계속하니 정월교통에대이장이생기엿디

菉山面松亭里 鹽田工事着手

【金海】경남김해군녹산면송정리(慶南金海郡菉山面松亭里)에는모래로 염산지(鹽産地)로서 저명하여오던바 진해읍(鎭海邑)에잇는 천단천대길(川端千代吉)씨는 송정리 해안파 창원군 용원리(昌原郡龍院里)양해안 십만사천유십사평을 염전으로 만들고저 소화십이년 이월경에 경남도산업과에 허가수속을 제출하엿든바 지난 팔월이십칠일부로 허가됨에따라 총공비 십오만원의

다이나마이트爆發 人夫七名重輕傷

六臺埋築工事場에서

【麗水】지난달삼십일오전여덟시에 한남북청군육대어업조합(北靑郡六臺漁業組合) 수면매축공사로 부근뒷산을허물어 바다를메이는 인부수십명이 다이나마이트를사용하여 암석파괴작업을하던중 뜻밧게 작업인부가 피신하기전에 폭발되여 인부일곱명이 일시에 중경상을당하는 참변을연출하여 부근인가는 대소동을이르켯는데 부상자를 즉시 … 명에는판계업스나 원치에는상당한시일이걸리리라고한다

重傷者 本籍 惠山鎭 金光鉉(二〇) 洪基福(二九)
輕傷者 住所未詳 韓鍾洙(二七) 姜京洞(二三) 申在厚(二〇) 金圭萬(一九) 金道根(二〇)

自稱專賣局員이 現金을強奪逃走

大晦日、載寧"비들기"고개에서

【載寧】전매국원이라 자충하고 회중담배를 조사한다하며 행인의 몸을 뒤지다가 결국 사십오원이 드러잇는 지갑을 빼서가지고 도주한사건이잇다 즉 지난 삼십일일오전열시경 재령군신원면가국리(載寧郡新院面佳菊里)에사는 박근영(朴根永)(三一)은『담배대』를 판매할양으로 재령시장을 향하야오든중 미력(末力)거리를 지나서 약일키로지점인『비들기』고개미쯤지냄때 돌연 재령방면으로 부터 자전거로 달려오든 어떤괴한이 나타나며 자기는 전매국원이니 회중에 담배가 잇슬터이다하며 뒤로 뒤지럼을 지워노코 온몸을 수사하든판에 지갑이 발견되므로 그가티 압필도주한것이라는데 이급보를받은 재령서에서는 전(田)사법주임의 총지휘미테방금 범인수사에 맹활동을 개시하고잇다

消防組의出初式

【漣川】연천군연천면소방조에서는 일월사일오전구시부터경찰서정에서 출초식을 거행하리라는데 순서는 다음과갓다

出初式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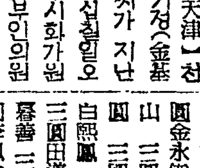
一、國旗揭揚 一、皇居遙拜 一、皇神祠參拜 一、… 一、分列及點檢 一、國民體操 一、聖壽萬歲 一、皇國臣民誓詞齊唱 一、昭和十三年度中出場成績良好에對한賞授 一、面長의訓辭 一、組頭의告辭 一、來賓祝辭 一、町總代 一、宴食 一、宴會

名刺交換會擧行

【漣川】연천면에서는 면민유지일동이 일월일일 오전십시에일제히 신사참배를마치고 각신상소학교에서 신년봉하식을 거행하고 오전열한시반부터군수 서장이하일백오십여명이 연천중앙심상소학교대강당에 집합하야처음에 연천면장의 신년축하인사가잇슨후 명함교환회를 성대히거행하고 즉시산회하엿다한다

오후일곱시까지후한영하십륙칠도나되는주위를무릅쓰고 육십여명이나되는 소방수를 소집해가지고 소학교교정에서 교련을 충분히시기고 밤에는 면사무실에서소방에대한 여러가지 주의사항과 시국인식에대하야 장시간 좌담회가잇슨후 소방수는 전부단발까지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金基貞氏別世



【天津】천진조선인사회의중진 김기정(金基貞)씨가 지난달이십칠일오전두시화가원의원부인의의원(華衛元緯路濟仁醫院)자택에서 사십구세를일기로 돌연 별세하엿다 김씨는 일직이 서울세부란스의전을마치고 중국에건너온후 마거이십여년간 그의독특한 인술로써 대중봉사가 만햇슬뿐아니라 남개대학(南開大學)강사로서 중국인사회에도 존재가크며 더욱이조선학생을위하야 성심성의로 진력하여왓스니만치 우리학생의자부라는 칭호를갓고잇섯든분이다 (사진은 김기정씨)

在留朝鮮人獻金

皇軍奮戰에感謝表示

濟南陷落一週年記念

【濟南】지난십이월이십칠일은황군이 제남에입성한지 일주년에해당한 기념일임으로 당지조선인회가주최로 재류조선인에게서 국방헌금을모집하엿는데 육백삼십원오십전이모엿슴으로 당지헌병대를거처서 헌납수속을하엿고 회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國防獻金者氏名

二十圓金大裕 二十圓金工務所 二十圓東亞興業公司 十五圓崔五德 十圓李時雄 十圓金斗濟 十圓崔基瑞 十圓吳明錫 十圓白信玉 十圓裵寬玉 十圓義興商事公司 十圓姜龍守 十圓權尙福 十圓陳介同 十圓金孝得 五圓金義善 五圓白貴世 五圓韓乃允 五圓林應浩 五圓文尙昌 五圓閔和用 五圓金亨濬 五圓鄭鳳洙 五圓金謙律 五圓李元道 五圓李成根 五圓趙漢燮 五圓張英坤 五圓鄭鏞楚 五圓郭允鳳 五圓黃基萬 五圓崔元俊 五圓李炳頭 五圓馬賢馥 五圓氷和商事公司 五圓高才弼 五圓金山商店 五圓張啟麟 五圓劉永河 五圓金炳道 五圓吳景用 五圓黃承淵 五圓金東鎬 五圓金燦淳 五圓廉炳益 五圓崔善玉 五圓高信淵 五圓韓桂鎬 五圓章重夏 五圓韓允學 四圓朴用先 三圓崔承祚 三圓李鎬禎 三圓洪道玉 三圓金亟祥 三圓金永俊 三圓金弘燁 三圓金馨山 三圓辛寶鳳 三圓李達京 三圓 三圓崔永閏 三圓金龍淵 三圓白熙鳳 三圓白根澤 三圓金正珍 三圓田道永 三圓金晋洙 三圓趙碁善 三圓金秉浩 三圓金水洋行 三圓李鳳允 二圓車俊憶 三圓高景益信 二圓裵一龍 二圓李相根 二圓李永明錫 二圓鄭根永 二圓鄭龍福 二圓林承逸 二圓鄭龍河 二圓林鏞昊 二圓吳秉烈 二圓張致朱 二圓大吉號 二圓松本公司 二圓李弼寶 二圓明濟英 二圓張水石 二圓金奎寶 一圓金德閣 一圓崔永國 一圓孫英 一圓白東憲 二圓梁世平 一圓朴允坤 一圓李根出 一圓韓鳳韓 一圓同和洋行 一圓崔德龍 十一圓朝鮮館妓一同 三圓同文居妓一同 三圓饗業館妓一同 六圓松居妓一同 一圓五十錢金井樓妓一同 一圓五十錢新大和 一圓永樂亭妓一同 四圓梅月妓一同 三圓朝日館妓一同 十一圓金海樓妓一同 三圓東洋館妓一同 四圓松月館妓一同 三圓五十錢喜樂妓一同 三圓五十錢太平館妓一同 三圓永樂食道園女給一同 一圓鮮于華榮 一圓張德潤 一圓尹元泰 一圓禹錫斗 一圓金命順 一圓吳天福 一圓金麟河 一圓白榮均 一圓金冠亨 一圓任時用 一圓金海先 一圓崔金燮 一圓金龍波 一圓鄭道官 一圓朴浩亨 一圓梁利涉 一圓金好彥 一圓李青山 一圓李淳熙 一圓李秉涉 一圓楊承周 一圓張致涉 一圓李律浩 一圓尹廷浩 一圓鄭在希 一圓辛東根 一圓金龍珍 一圓金德淳 一圓金春中 一圓金昌洙 一圓李昌業 一圓吳然況 一圓朴慶俊 一圓李鍾燁 一圓李昌俊 一圓李尙成 一圓鄭毛仁 一圓崔鳳成 一圓元致祚 一圓金用炳 一圓鄭信源 一圓金漢福 一圓李時寶 一圓崔明善 一圓金時善 一圓白根濬 一圓崔日成 一圓吳秋山 一圓李今年 一圓金基旗 一圓李奉燁 一圓崔炳龍 一圓金境業 一圓春光洋行 一圓尹基福 一圓李治浩 一圓田順祚 一圓白基洙 一圓崔谷俊 一圓金東燮 一圓鄭仁政 一圓金光錫 一圓金映完 一圓朴季南 一圓孔季德 一圓朴宙同 一圓李得淵 一圓林昌盛 五十錢金潢龍 五十錢崔錫玉 五十錢金亨值 五十錢李泰善 五十錢蘇斗永 一圓全治容 二圓金寶五

累計 六百二十圓五十錢也

合德에三人強盜

現金을強奪逃走

【合德】충남당진군합덕면대전리 조히하씨(唐津郡合德面大田里 趙義賢)의 집에 지난삼십일오후네시경에 삼인조의 강도단이 뒤담을넘어 드러와 주인에게 자기들은 강도가아니요 상해서온 사람이라하며 칼파총비슷한것을 번드기며 위협이 심하므로 주인조씨는 견디다못하야 몸에가젓던 돈일백이십원을 주어던바 아모말도 내지말라 또너의메를 시킬지 모른다하고 동다시서경에 도망하엿다는 급보를접한소판경찰은 범인수사에활동중이다

玉溪消防組再生

【玉溪】강릉군옥계소방조(江陵郡玉溪消防組)는 전장동에서도대표될만한 모범적 소방조엿섯스나근년에와서는 모든 동작이태만하여지며 책임을 이행하지안는자가 상당히만하잇섯스며 따라서 소방기구도『까솔린』『폼푸』와 수저용『쪽쿠』두개나잇서도 기관수(機關手)가 불충분한관계인지 한번도필요하게 사용을 하지못하야 화재가잇는때에는 사용을 하지못하고 대호잡을 일으키는 판계로 일반은 만일을 염려하고 우려중이며한면으로는 비난이 높든차 십이월팔일 옥계주재소 수석으로부임된 강부(江副)씨가 신임이후

滿員빠스가顚覆

新春劈頭光州地方交通事故

【全南支社發】일월오전구시광주발 강진(康津)행의 전남자동차주식회사소유 전남일백륙십구호 승합자동차에 일곱명의승객을태우고 운전수김순봉(金俊弘)(二三)이가조종하야 광주부구강정(光州府龜岡町)공원미를 통하려할지음에 어린아이가 자동차압흘 횡단함을 피하려다 때마침비가 나리여 노면이조치못하야 삼십여척되는 언덕우에서 전복하야 차체는 대파되엿스나 기적으로 인명에는 별판계가업섯다한다.

少婦悲觀自殺

【盈德】지난이십구일새벽에경북영덕군 병곡면백석동(盈德郡柄谷面白石洞) 앞바다(海岸)에어떤신체가 떠잇는것을뱃군들이배를타고 나가서 건저내고보니의외에도 그맥군중 한사람의 마누라되는 여자이다 그자살한원인을드른대 강원도 울진군평해면만산리(江原道蔚珍郡平海面萬山里)안성녀(安姓女)(二七)는 삼개월전에 전기백석동 박방우(朴邦佑)에게 출가하야불행히도 간질병을 지니게되엿스므로 남편박씨가 병을원망하고 동거를 거절함으로 하는수업시 안성녀는 자기는 자기옷보따리를가지고 자기친정으로 간다고 집을떠난 날사람이 그익일새벽에그 … 와가티 병을비관하고 자살한것 갓다한다

二日、水原邑에出火

燐寸工場을燒失

損害와原因은調査中

【水原】지난이일오후두시반수원군수원읍 매향정(梅香町)유식구번지수원전조제함공장(水原燐寸製造工場)에서 불이나 아직도 소수의 취중에 저워새롭불노래하고잇는가운데 사이렌이울리게되야 전시하에서 불놀맛든 일반으로하야금 공장판재나 아닌가 하고 놀래게하엿던바 전기공장에 정초부터 불소동을 일으켯는데 꼿소방대의 출동으로 내에 진화되엿다 손해도 상당할듯하며 발화원인은 수원서에서 조사중이라한다

라디오프로그람

三日(火曜)

◇午後六時 新春童話릴레이(二)『토끼세상』 鄭奎院
◇同六時二五分 講演『新年展望(三)』 崔麟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獨唱 朴景嬅
◇同八時 歌謠大會 實況-京城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一五分 唱劇 女子青年會館으로부터中繼-『春香傳中御使出道하는데』 ◇配役 御使 丁南希 卞學道 金世俊 雲峰營將 吳太石 谷城郡守 趙相鮮 戶長 金芳淳 唱 李正業 春香 朴綠珠 春香母 林小香 朝鮮聲樂研究會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中上靈山、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드리 三絃
◇同九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四日(水曜)

◇午前七時五〇分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떡복기』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新民謠 (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名曲鑑賞(레코-드)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新春童話릴레이(三)『토끼세상』 李順伊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新年展望(四)』 朝鮮日報社長 方應謨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銃後美談 天讀
◇同七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꼬는또피겟지』-金健作 配役 아버지 朴齊行 어머니 卜惠淑 할머니 池玉 아들 孫成 吉秀 徐大...
◇同八時 (東)室內樂 解說 金一浩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春香歌 歌手 朴綠珠 丁元燮
◇同九時 愛國歌謠 京城放送管絃團
◇同九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琵琶
◇同一時 (城) 將士慰問午後
◇同六時 (大) 音樂
◇同六時二五分 (東) 講演 趣味講座
◇同七時四〇分 室內樂
◇同八時 (東)
◇同八時三〇分 (大) 講談
◇同九時五分 (東) 歌曲

京城府竹添町二丁目二番地 漢城精米所 電話光化門一三二三・三四五五番

京城府公平町二五番地 典東旅館 主 孫義日 電話光化門六九九番

京城府鍾路壹丁目五四 洋品商 文化商會 電話光化門一八一八番

京城府貫鐵町二五九 海東ホテル (前海東旅館) 代表 鄭斗元 電話光化門(3)一六三八・二九二二・七六三二番

京電承認店 電氣設計工事 電燈器具販賣 電氣材料一切 張電氣商會 主 張聖雲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電話光化門(3)四七一七番 自宅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四七

京城府長沙町二九 工業原料商 泰昌工業所 金順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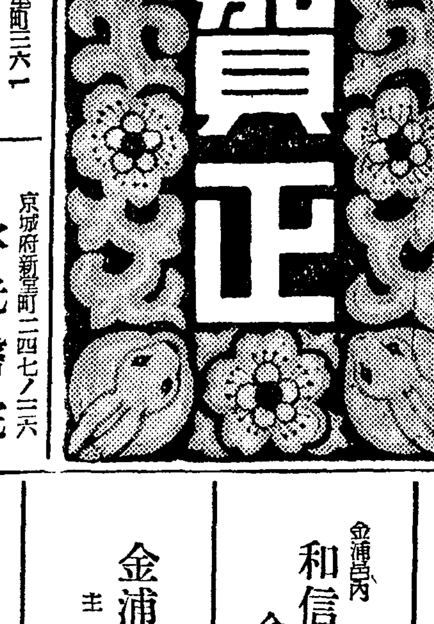
京城府回基町六六 時兆社

京城府昌信町六二五 高圭明

京城府敦慶町山六 京城療養病院

京城府敦慶町 泰昌織物株式會社

京城府崇仁町一九九 兄弟餅湯 兄弟酒店 電光(3)二一〇四番



京城府上往十里町三六一 朝鮮硝子製造所 李昌根 電本一二五四六番

京城府安岩町三九番地 金炳學 電光六六六六番

京城府下往十里町八五五 穀物貿易委託販賣 東洋精米所 主 崔圭完 電話本局三七六五番

京城府下往十里町六六四 合名會社 順興精米所 代表社員 韓順文 電話本局二七四七

京城府上往十里町三四三 往十里百貨店 金永培

金浦郡廳

京城府新堂町二四七ノ三六 永光醫院 電本七四六一番

京城府敦慶町三一九番地 回生醫院 崔日熙

京城府上往十里町七七四 天和醫院 鄭雲翊

京釜線往十里驛前 ⓢ三成運送店 代表 崔承成

高陽郡崇仁面彌阿里 崇仁面事務所 職員一同

京城府祭基町一七八 車錫永

京城府淸凉里 淸凉寺 申慈英

京城府安岩町 開運寺

金浦警察署長 吉井勳男

京畿道會議員 明珍錫

金浦邑內 朝鮮料理 花月館 主 鄭淳學

金浦面事務所 職員一同

金浦金融組合 理事 高松道太郞

金浦郵便所長 柳村文幹

金浦公醫 韓鍾燮

金浦邑內 金浦司法書士組合 金敬欽 沈一燮 鄭行冕 許寅潤

金浦郡金浦面北邊里 斗密商會 朴一陽

金浦邑內 和信連鎖店 金重獻

金浦釀造場 主 鄭行冕

金浦邑內 朝鮮料理 金浦館 主 方性逸

月串面事務所 職員一同

月串面西岩里 金在熙

金浦郡月串面郡下里 李耆鍾

金浦郡高村面事務所 職員一同

大串面長 宋道勉

黔丹面長 金鳳欽

霞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金浦郡霞城面石灘里 權爾玉

金浦郡霞城面後坪里 金奭濟

金浦郡霞城面麻谷里 金春元

霞城面陽沙里 趙載鳳

陽村面事務所 職員一同

陽谷郵便所長 井上公男

陽谷金融組合 理事 李錫範

陽谷金融組合長 趙命鎬

陽村面陽谷市場 陽谷醫院 林正圭

陽谷市場 絹織物 雜貨 廣信商會 裵世鳳

陽谷商業組合

定平郡長原面酒洙里 株式會社藤田組 定平鑛山事務所

定平面 郡校掌議 金楨習

定平郡宣德面仁上里 李會稷

定平郡定平面 光興鑛業所 盧義根

定平共勵水利組合長 崔鎭昇

興上購買組合

百原組 舊倉作業場

朱伊面事務所 職員一同

咸興タクシー 定平出張所 電話一五番

咸南興上市 韓煥用商店 振替京城八六八一番

咸南興上驛前 穀物貿易 食料問屋商 豐興商店

咸鏡線興上驛前 各種自轉車附屬品販賣 新興自轉車店 主 金龍旭 財團法人咸鏡南道山林會 木炭買入興上代行所

咸南興上郵便所長 李東壎

咸南興上驛前 信用本位 全一洋服店

咸鏡線興上驛前 興上自轉車店 主 金明烈

咸陽郡農會

咸陽砂防事務所 職員一同

咸陽醫院 醫師 吳大鉉

咸陽面下洞 原田自動車部 黃尙敬

咸陽郡咸陽面下洞 大成株式會社

咸陽面上洞 咸陽金融組合長 張相基

咸陽面下洞 盧永寅

咸陽特發著 木船義功

咸陽產業組合 孔五源

小井里郵便所 所長 崔宇植 職員一同

同組 張世煥

天安郡 豊歲面 職員一同

天安郡豊才面豊西市 片順成

京釜線小井里驛前 土木請負 金敬武

京釜線小井里驛前 運送 雜穀 食料雜貨 共益商會 李根

京釜線小井里驛前 穀物貿易 運送取扱 マルド運送店 主 崔丙甲 店員 崔泰錫 金正...

京釜線小井里驛前 李潤秀

高麗城下 崔

美豊商會 金炯奎

京釜線小井里驛前 申佐求

公州郡正安面廣亭市 布木商 孟泳鎬商店

豊歲市 布木商 李承

天安郡豊歲面豊西里 穀物商 鄭漢吉

江界

江界商事株式會社

滿浦線江界驛前 日鮮商會 李桂龍 金潤容

江界郡廳職員一同

江界邑職員一同

江界警察署員一同

江界木材株式會社

義勇鑛山 平北江界

平安北道江界邑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江界事務所 電一五七番

江界水力電氣株式會社

平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江界營業所

江界本町 洋品商 榮興商店 電話四五番

江界邑西部洞 活版印刷 東亞印刷所 弓昌紘 電話一三九番

江界郡從西面從浦洞 金浦重石鑛山 鑛主 金益洙 李用三

北鮮印刷所 朴相秀

江界 朝鮮料理 第一館 電話二〇番

江界西部洞三二五番地(柳町) 新興旅館 田興畇

江界壽町 江界建材社 金泰順 電一五四番

江界柳町 文具書籍商 李寅基商店 電話一七七番

江界邑北門三巨里 紙物陶器商 三河商會 金瀅權

江界壽町 文房書籍商 文友堂 電話一七五番

江界邑內 綿布雜貨 鄭纘僑商店

金承洙

第一生命 江界事務所
事務所長 朴鶴松
內勤 李官鳳
厚昌支所長 李贊律
熙川支所長 藤川菊丸
外務書記 金奉圭 金秉喆 金在鴻 安濟烈 金呂洙 趙鐵衡 禹禮動 趙明河 呂巨榮 鄭永俊 金禮澤 崔寶賢 張金童 鄭成玉

江界營林署 職員一同

江界郵便局員一同

江界 司法書士 李孝殷

江界酒造組合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江界支店 村田俊介

平安北道江界醫院 職員一同

江界邑北門三巨里 綢緞布木商 熙新商店 電話一七八番

手塚玄

江界邑仁風樓通 廣濟醫院 院長 李奎璿 齒科醫師 趙基鵬 產婆 金瑩鎰

江界邑西部洞 第一時計店

江界南門外 信益精米所 金永鎰 電五五番

江界金融組合

㊐鴻昌運送部 滿浦線江界驛前 電話(長)一一五番

江界北門三巨里 綢緞布木商 光新商店 申喆柱

江界本町 カフエー千鳥 電一二八番

江界北門三巨里 永和堂藥房 電一四九番

江界北門三巨里 朝日商會 裵希用

江界 洋品商 우리商店 電一六六番

江界邑東部洞 自動車修繕部分品販賣 泰平商會 嚴泰平

江界邑內 加奈多洋服店 金利三 電話一八四番

江界邑東部洞 口腔外科 齒科 江界齒科醫院

江界邑東部洞 鑛山用品商 李俊璟商店 電話一三八番 振替口座京城二八一五〇番

江界邑東部洞 海陸産物委託貿易 平安公司 康錫九 電話一五二番

江界北門三巨里 綢緞布木商 義興商店

江界北門三巨里 柳屋洋服店 柳壽長

江界北門三巨里 食料品商 富平商店 梁潤洙

江界 中央醫院 電話六七番

江界 雜貨商 三共社 電話一五一番

江界邑 桂禮智病院 電話四〇番

江界 雜貨穀商 咸士洽商店 電一八五番

江界木炭組合

滿浦線江界驛前 ㊅ 丸キ運送部 電話二二番 〃 一七番

江界壽町 至誠堂藥房 電話一二五番

江界 同仁齒科醫院 張柄乾

江界邑 吉川金物支店 主 李京濟 電話一四七 振替一六九五七

永信昌 代表者 田種禾 電話二七番

金華鉉

足立長吉

金剛□□支店 李鍾煥

平北江界邑柳町 洋品百貨 丸吉商店

江界邑東部洞 貿易商 康炳填商店 電話一一三

江界邑西部洞 亞細亞被服店 張明善

江界 大正堂時計店

江界邑東部洞 食料品雜貨商 高明善商店

清安

忠北線清安驛前 金星金鑛 金屛金鑛 崔壽永

忠北線清安驛前 海陸物産 和洋菓子 內外果物 都散賣商 馬相樂商店 電話一六番

忠北線清安驛前 穀物貿易 大正生命保險會社 日本教育保險會社 曾坪代理店 任鳳彬 電話二九番

賀正

忠北線清安驛前 海陸物産 和洋菓子 各種果物 和盛商會 主 姜壽熙 電話三四番

槐山郡道安面松亭里 老岩金鑛 鄭昌祚

忠北線清安驛前 石油鑛油卸商 朝日商事合資會社 代表社員 洪鍾一 電話一七番

忠北線清安驛前 穀物貿易商 共昌商會 主 崔鳳柱 李聖魯

忠北線清安驛前 中和料理 雲濃湯 清州食堂 主 鄭興業

清安驛前 カフエー樂園 電話二五番

清安驛前四街路 林光克洋品店 電話三一番 振替京城一二三七三番

槐山郡沙梨面梨谷里 忠北金山 李漢成 朴芝蓮 李鍾玉

忠北線清安驛前 曾坪煙草耕作組合

忠北線清安驛前 協和醫院 公醫 鄭勝和 電話二八番

忠北線清安驛前 雪濃湯 冷麵 櫻屋 主 玄濟完 電話三〇番

忠北線清安驛前 鑛業 柳疇赫

忠北線清安驛前 地金商 金顯浩

忠北線清安驛前 米穀貿易商 安錫宗 電話三八番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迎春館 電話四一番 藝妓 朴山月 姜明玉 金玉化 李楚仙 羅鳳仙 李錦紅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新成館 電話四〇番 藝妓 車桂香 李玉姬 崔玉珠 申草玉 申香伊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永樂館 主 黃龍一 藝妓 李明玉 李琴紅 姜福順 金山玉 梁山月

忠北線清安驛前 南山旅舘

忠北線清安驛前 李重淳

忠北線清安驛前 天主敎會

槐山林産物 曾坪指定販賣所 禹鍾健 禹濬

槐山郡沙梨面方丑里 曾光金山 辛炳漢

槐山郡沙梨面沙潭里 學父兄會長 禹章圭

槐山郡沙梨面梨谷里 昌金鑛山 金泰得

槐山郡沙梨面梨谷里 鑛業 李萬玉

清安金融組合 理事 增村俊治

忠北線清安驛前 學務委員 宋容燮 電話一四番

曾坪藥水場 天然藥水 金思玉 金鳳演

槐山郡清安邑內里 清安鑛友會

忠北線清安驛前 遠南醫院 醫生 李麒魯

槐山郡 曾坪面職員一同

忠北線清安驛前 穀物貿易 丸三商會

忠北線清安驛前 泰和金山 代表者 李鍾瀛

忠北線道安驛前 立長金鑛 安鳳濬

忠北線清安驛前 產婦人科 小兒科 順天醫院 女醫師 河順德

曾坪 專賣局派出所

忠北線清安驛前曾坪市 牛皮 牛油 牛骨 貿易商 京城昌永商店 清安支店 主 金水根 電話二七番

忠北線清安驛前 穀物貿易 金榮鑄商店 電話三三番

忠北線清安驛前 地金商 池台夏

槐山郡清安面孝根里 張秉斗

清安驛前通 時計修理專門 辻又一郎

忠北線清安驛前 彰新醫院 醫生 朴魯鐸

槐山郡曾坪面曾坪里第一區 區長 李根奭

忠北線清安驛前 永美寫眞舘

槐山郡道安面 職員一同

清安驛前 孫聖模 電話二七番

忠北線清安驛前 人蔘産地 各種藥材 內外名産 藥種貿易 散賣卸商 大生堂乾材藥局

忠北線清安驛前 鮮一洋服店 柳台馨

忠北線清安驛前 岡清太郎

槐山郡曾坪面龍江里 山田嘉吉

槐山郡沙梨面沙潭小學校 校長 鄭海隆

忠北線清安驛前 金南善

忠北線清安驛前 李殷壽

忠北線清安驛前 棉布雜貨商 天成永 電話一二番

忠北線清安驛前 和洋雜貨 各種帽子 紙物 都散賣商 東一商店 店主 元吉

忠北線道安驛前 道安醫院 李丙出

忠北線清安驛前 永豐商店 主 金永權

忠北線清安驛前 各種自轉車及附屬品 蓄音器 レコード 販賣修繕 世信自轉車店 主 洪哲大

忠北線清安驛前 天眞寫房 主 禹顯基

忠北線清安驛前 米穀商 張基韓

清安邑沈病院 姜大應

忠北線清安驛前 三光精米所 主 李好成

槐山郡曾坪面松山里 無名氏

槐山郡沙梨面梨谷里 蔡英基

槐山郡曾坪面獨谷里 區長 李寅鍾

忠北線清安驛前 鑛業金物 延圭軾商店

槐山郡道安面孝根里 面協議員 張鳳基

槐山郡道安面 區長 李在云

槐山郡道安面花城里 延永熙

忠北線道安驛前 衆甦醫院

忠北線清安驛前 大昌商店

殷栗

殷栗邑內 洪世雷

殷栗タクシー 電話一〇番

黃海道殷栗邑 三井燒酒特約 度量衡器販賣 朝鮮日報支局 坟平商會 電話一六番

黃海道殷栗邑 李基豊

設立者李讚永 殷栗光宣學校 職員一同

殷栗郡北部面 新興里興風會

黃海道殷栗邑內 穀物貿易商 李弼英 電話一五番

黃海道殷栗邑內 共和醫院 醫師 李膺五 電話一八番

黃海道殷栗邑 李讚永

黃海道殷栗邑內 黃慶觀

黃海道殷栗邑內 趙山玉

黃海道殷栗邑 栗川齒科院 金鳳磐 電話三九番

黃海道殷栗邑內 朝鮮料理 海東舘 電話三八番

黃海道殷栗 藥品賣藥 濟世堂藥房 電話二七番

黃海道殷栗邑 朝鮮料理 食道園

黃海道殷栗邑內 梁月波

黃海道殷栗邑內 南順實

黃海道殷栗邑 中央旅舘 主 張三世 電話二一番

北薪峴

日鐵北新峴保線區 文亨主 金京勵 金明允 李公實 李己龍

滿浦線北新峴驛前 建築請負業 李智鏞

滿浦線北新峴驛前 香山百貨支店 主 宋英薰

平北寧邊郡泰平面新下洞 指定販賣店 朴昌浩

滿浦線北新峴驛前 綿布雜貨 日用雜貨 松炭石油 金仁弘商店

寧邊郡北新峴面芦下洞 金鼎根

寧邊郡北新峴面芦下洞 精米業 李浩述

滿浦線北新峴驛前 權一富

寧邊郡北新峴面上杏洞 金諄碩

滿浦線北新峴驛前 芳美亭 妓生 邊銀玉

滿浦線北新峴驛前 芳美亭 妓生 金山玉

滿浦線北新峴驛前 東亞理髮館 主 權俊

滿浦線北新峴驛前 綢緞布木 有名賣藥 梁貞涉

滿浦線北新峴驛前 仁壽局 梁鶴祥

滿浦線北新峴驛前 新三成旅館 運送部 宋鎭文

寧邊郡北新峴面芦下洞 鍛冶業 禹鶴鳳

滿浦線北新峴驛前 中華料理 東海園 主 周光明

滿浦線妙香山驛前 普賢寺指定 寫眞舘 主 裵允鉉

寧邊郡妙香山普賢寺 李湘龍

寧邊郡北新峴面芦下洞 養蜂業 蜂蜜販賣 大和養蜂園

寧邊郡妙香山普賢寺 記念品販賣所 共榮商會 夜辰鉉

滿浦線妙香山驛前 李時濱

滿浦線北新峴驛前 尹得土

寧邊郡北新峴面芦下洞 李□九

朝鮮日報

新年號 其八

世界政局과 米國의地位 (下)

李勳求

이와가티 內的으로 軍備擴張에 專力하는 米國의 外的動向은 果然무엇인가? 이問題는米國外交政策을 全般的으로 檢討치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餘白이 充分치못하므로 그槪略만을 言及하여보겟다 元來米國은 그立國의 精神과 歷史的또는 地理的關係로 因하야 歐洲의일은 歐洲에서 米洲의일은 米洲에서 處理하여서 互相干涉을 마자는 所謂 몬로主義를 主唱하여섯다 그러나 世界大戰에의 參戰과 밋 윌슨大統領의베르사이유 講和談判에 出馬로 因하야 이米國의 傳統的主義는 完全히 破壞를 보것이다 그러나 廣大한 國土와 豊富한 物資를 所有하고 稀薄한 人口를 가진 米國은 戰爭으로 物資獲得의 必要를 느끼지아니하거때문에 世界中 第一가는 平和論支持의 國家이다 最近國際政局의 變化와 列强의 軍備擴張競爭의 雰圍氣속에서도 데모크라시와 世界平和의 擁保者로 自任하고잇는것은 昨年年初에發表한 루즈벨트大統領의 敎書를보아도 잘알수가잇는것이다.

米國의 對歐洲關係에잇서서 最近의 動向을 보면 먼저 英米의

接近

을 列하여서 一時는英米同盟說까지 傳하엿스나 結局實現을 보지못하엿다、反面에 英國側의 讓步로 英米通商協定이 去十一月十七日에 華盛頓의 白聖館에서 調印되여서 英米親善乃至合作에對한 礎石을 만드러 노앗다 또對獨關係에 잇서서는 히틀러式 나치스의 專制를 米國은 거퍼 厭忌하고 잇섯는데 最近 나치스의 反猶太人運動으로 米國內의 輿論을 深刻하게 刺戟하야 米國人은 獨逸의 野蠻化를 따여하게까지되여서 米獨의 國交가 斷絶될 危險에까지 이르게되엿고 對伊關係에잇서서도 에디오피아의 併合問題뿐만아니라 뭇솔리니의 傲慢하는 神聖大羅馬帝國建設의 野心主義를 厭忌하야 國際秩序의索亂者로 指目하는 形便이다 對佛關係에잇서서는 獨特한好意를 表示한것이업스나 그러나 不則不離의 親交를두엇다 對蘇關係에잇서서는 資本主義國家 對共産主義國家인만큼 犬猿의關係일것이 推測되나 事實은 反對로 防共協定가든것을 彼岸의 火災로 볼뿐아니라 赤蘇가 米國의 商品을만히 사가는것이 만타 比較的好意를 가지고잇는것이 現實이라고할것이다。

米國對歐洲列國關係의 動向은 上記한바와 갓거니와 米國對米洲列國의 動向은 어떠한것인가 檢討하여보기로하겟다 去三月三日可成 四月八日汎米데-에 루大統領은 라디오放送에 依하야 南北米諸國의 文化的精神的接觸의强化를 力說하엿는데 이것은 獨伊의脅威에 對한新巨主義의 確認으로 看做되엿다 그리고지난十二月八日부터 秘露의 國都 리마府에서 開催되는 第八回汎米會議에 出席한 米國 國務長官헐氏는 全體主義의

脅威

下에米洲諸國은互相協力團結할것을 力說하고米洲共同防衛案을 提出하엿다 米洲에서의 米國의헤게모니를 두려워하는 알젠틴의反對가 잇섯스나 全體主義國家의勢力牽制를 目的하는 리마共同宣言이 成立을 보게되엿다 이것은 米國이 어느程度까지 南北米洲諸國을 團束하고 리-드하는데에 成功한것이라고 볼수가 잇는것이다。

米國의對東亞細亞 特히 對東亞政策은 不可解의 點이 만타 滿洲事變以來 所謂 스팀슨原則을내세워서 滿洲國成立의 旣成事實에 對하여서도 不承認을 堅持하여와다 今番支那事變이 勃發되자 開戰中立法을 發動치안코 對中立法을 持續하야왓는데 南京 武漢이 陷落되고 蔣政權을 相對로 軍需品을 販賣할길이 끈치자 所謂 門戶開放、機會均等의 原則을 내세워 英佛과 呼應하야 揚子江航行權及其他權益에 對한 不當한要求를 日本帝國에 提出하엿다 뿐만아니라 最近에 와서는 二千五百萬弗의 對蔣借款을 容許하야 所謂新中華外交를 實行하려고한다 米國의此擧는 經濟的意味에서 그政治的乃至經濟的意味에서 蔣政權의 壽命을 延長케하는 同時에 日本帝國의 事變에對한 眞意를 認識치못하고 新東亞建設의 目的을 諒解지못하는바로서 極히 遺憾지못한것이다。要컨데 米國은 世界大戰當時에도 老獪無雙한 政策으로 講和談判때에 牛耳를 잡엇거니와 方今 各國의 軍備競爭을 利用하야 內로 武備를 整頓하고外로 必要한 程度의 발꺼리를만드러두엇다가 他日 世界的의 面에 어려나면 其間에서 漁夫의利를占하야 世界的 헤게모니를 確立할 魂膽이 아닌가 推測된다。

時局의前途遼遠
軍民一體의實을擧하라

深澤部隊長 深澤友彦氏 談

玆에 事變下第二回의 新春을 迎하게當하야 東天을 遙拜하며 삼가 聖壽의無窮을 奉祝하는 同時에 陸海軍將兵의 武運長久를 祈念한다

惟컨대 皇軍이 暴支膺懲戰에 出師한후 벌써 一年有半 攻城에 野戰에 또는 掃匪宣撫工作에 着着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고잇다 讓者 徐州會戰에 大捷하고 廣東攻略이 完成된지 須臾에 武漢三鎭의 城頭노피 日章旗를날리엿고 北中支에樹立된 臨時維新兩政府는 明朗健全한 發展을보앗는데 이미 그成立一周年을 迎하야 東亞新秩序의 建設도 將次 그緖에 就하엿다하겟다 武勳赫赫 皇威 四百餘州를 震駭風靡한 偉績은 實로 世界史上 曠古未曾有의 盛事로 이는 御稜威의 顯現이라 하겟스나 또 皇軍將兵의 勇戰奮鬪의所致로 感謝하는바이며 敵彈、病痍에 歿하며 或은 不具廢疾로된 忠烈한兵士에 對하야는 滿腔의哀悼와 同情을 表하는바이다

이제事變은 新段階에 步를進하엿다고는하나 國共合作한 蔣介石政權은 後續하는 大敗에도 不拘하고 西南及西北地方에 退避하야 부즈러시 第三國의 援助를 依賴하고 執拗한 抗戰을 絶叫하야 自國民衆으로 하여금 그焦土作戰의 犧牲이 되게하고 잇슴은 憐憫한바이며 어는 天人共히 許치못할 暴擧이나 帝國政府는 過般의聲明과가티 蔣政權의 徹底的潰滅을爲하야 更히 新東亞建設에 向하야 國家總力을 集中하라한다

吾人은 事變下第二年의 年頭에서 益益 一致協力國是貫徹의 決意를大케하야 所謂長期抗戰도 不辭하며 奮鬪로써 時難克服에 邁進하여야한다 大業所業의達成은 唯獨日本國民인 吾人에게賦課된 神의一大使命으로서 吾人의가장誇示하라하는것이다

이는 實로 予輩가 銃後國民에게 希求하는바로서 우리半島에서도 事變勃發以來 朝野銃後의 熾烈한 結束强化는 戰局의 進展과 共히 益益助成되여 皇軍將兵에게對한 후원겨운後援은 마친내 그度를 加하고잇슴은 欣快의極이며 感激하야마지안는바이다

바라건대 銃後國民은 더욱 覺悟를 一層새롭게하야 國家總力戰의 基礎確立에 努力하는同時에 今後益益戰歿傷病者 出征將兵遺家族의 感恤에 萬全을期하야 그後顧의憂慮가업게하야주기를 切望하는바이다

時局의前途는 오히려遼遠하다고하나 銃後國民의結束이 鞏固하고 軍民一體의實도 擧揚하면 東洋永遠의平和를 確立하고 皇道를大陸에宣布하야 今次聖戰의 目的을達成하므로서

上으로는 聖明의宸託에 奉答하는同時에 護多英靈의偉勳에도 應報하게되는날도 不遠한일인것을 確信하며 玆에蕪辭를敍하야써 年頭辭로한다

年頭所感

朝鮮軍報道部長陸軍少將 勝尾信彦氏 談

聖戰第二年의 新春을 迎함에 當하야 멀리東天을 拜하고 聖壽萬歲와 皇室의彌榮을祈願한다 이미征旅를 進하야 二十餘月 北支에 中支에將又南支에서 赫赫한 戰果는 드디어 國威를中外에 宣揚하야 新東洋平和建設의 礎石이着着建築되고 잇슴은 진실로 慶賀하는바이며 同時에 聖戰의 礎石이된 護多護國의英靈及白衣의 勇士로남어잇는 家族의 心情을생각할때에 追悼感謝의 念을禁치못한다

생각하면 事變이 勃發하야出征軍隊의 輸送이開始되자 沿線住民들은 勿論全國民은 老幼男女를 不問하고 이를 歡送하는 萬歲聲은 天地를흔들엇다 往者의 眉宇에는 一死報國의 구든 決意가 두렷하며 送者에는 後顧의憂慮가업도록하겟다는 全誠이 順이나타나보인다 爾來今日에 至하기까지 銃後國民은 未曾有의 堅固한 團結로前線將士에게 不絶한 精神的支援을하야 戰線에잇는 將士는그背後의 支援에應하야 어대까지武士道精神을 堅持하야 克忍克耐로써 起할때에는 敢然蹶起하야 神速果敢敵兵을殲散하며 勝하고도驕지아니하야써 皇道의 世界的宣揚에 不朽의偉勳을 세워와다 진실로戰線과銃後와의 固契가今次聖戰大捷의素因이되는 同時에明治維新以來여러가지國難을打開克服하야써光輝잇는新日本을築成한所以로도된다

일즉이日露戰役後露將크로파트킨은『全露國民은 戰爭의 目的을 解지못하야 至極히 冷淡한態度를 가지고 何等의 後援도하지안코 그뿐아니라 革命黨은 軍隊의威信을 損傷하라하야 盛히 宣傳暗躍을試하엿다 그래서 戰場에 向하는 兵士等은 滿洲平野에到着하더라도 自己는 如何한目的을爲하야 何國과 戰爭하는것인지 그것조차알지못하는 兵士가 만하다 國民은 九千露里의異境에서 奮戰하고잇는 同胞를버리고 一顧의誠意조차업섯다 國民의誠意가 이러코서야 日本에戰勝할 道理는업지아니한가』고回想하엿다

實로 日露戰役에서 日本의大戰捷은 御稜威의 所然이나 統帥의 卓越、將兵의奮鬪에 依한것도 또한勿論이다 그러나그보담도 戰線에잇는 將士와 銃後國民과의 鐵石가튼 團結과猛烈한 祖國愛가 絶大한勝因으로된것임은다시말할것도업는일이다

이제 第一線과 銃後를不問하고 國民의團結은 益益鞏固하며 國力戰態勢는 드디어完成에 갓가운것이라고하겟스나 아직도그것으로써 完全하다고는말할수업다 더욱 自肅自戒하야 一層完璧을期치아니하면안된다

玆에 初日出에빗나는 皇國毅然의 雄姿를仰하며 衷心慶賀하야마지안는바이나 聖戰의 前途의新東亞建設을 妨害하는蔣政權背後의 諸勢力을물때에 將來必然的으로 生起게되는 各種의 障害를 排除하야써 皇國의 重大使命을 遂行하기爲하야 一層의 努力과 一段의 覺悟를必要로하는것이잇슴을痛感하는바이다

新年의辭

深澤部隊報道部長陸軍少將 岡本鎭臣氏 談

支那事變이 勃發하야 玆에一年有半 皇軍은 御稜威下에 北支、中支、南支에 戰果를 擴大하야 그威武는宇宙히 四百餘州를 席捲하고잇다 이는實로 聖代曠古未曾有의 盛事로서 이제國民의感激裡에 戰時態制下 第二回의新春을 맞이하엿다 遙히東天을拜하며 삼가聖壽의萬歲를 高唱하는同時에 海에 陸에 空에서 여러가지 艱苦와 缺乏에 견듸면서 事變所期의目的을 達成하고잇는 皇軍將兵에게 深甚한感謝를 드리며 또한 그武運長久를 祈念하고잇다

이번事變은 아는바와가티 再昨年七月七日 蘆溝橋事件에 發端하엿스나 그根底를 뭇하면 實로現狀維持에 汲汲한列强과 世界赤化를企圖하는 코민테른이 永遠的發展性을가진 帝國의 國運을 阻害하라하야 支那의 蒙昧暴虐을利用하야 마친내 抗日戰爭에誘導한것인데 蔣介石은 帝國內에 相當한資源이 잇다고 豪言하고 또帝國이 經濟的資源이 缺乏하야 外國에서仰하는 狀態를 過大評價하여 事變의 重大原因으로 삼엇든것이다 그러나帝國은 蔣의 豫想과는 判異하야 한번暴支膺懲의 師를 이르키자 忽然 敵의都南京을 陷落시키고 이제는 支那의主要都市를 모두 皇軍의 手中에歸하엿다 그러나 蔣은 連戰連敗의 敗戰에도 아직 迷夢을깨지못하고 共産黨과의 合作으로써 抗日戰線의 統一이라고 豪語하고 臨時、維新兩政府의 成立과 그明朗健全한 發展과 現實의 事態에도 이부로 掩眼하고 부지런히 第三國의援助를 依賴하고 執拗한 抗戰을 繼續하고잇다 그리하야 聖戰은 이제新段階에入하야 帝國政府는 어대까지 長期應戰의 決意를 굿게하고 東亞의禍根을 除去하야 東洋永遠의 平和를 確立시키려함은 어번機會에 노치면 다시업다는 確固한 信念으로써 時局에 對處하고잇다 卽政府는 昨年十一月三日 明治佳節에當하야 聲明을 發表하야 抗日容共政策을 固執하는限 國民政府의 徹底的潰滅을 期하는同時에 物心兩面에 亘한 國家總力을擧하야 東亞新秩序의 長期建設에 進出한바이다

惟컨대、東亞新秩序의 建設은 八紘一宇의 大理想에 基하야 皇化를 世界에 미치게하야 人類의福祉를 增進시키라는 我國家의 精神에 淵源하고잇다 이建設은 皇軍占領地域의 肅淸、治安確保를 비롯하야 親日新政權을 保育하고 日滿支三國提携에依한 經濟블럭을 結成하며 或은 産業의振興、敎育의普及、文化의復興等에도 注力한다 要컨대 日本을盟主로한 東亞聯盟을 樹立하야 國際正義의 確立과 共同防共의 達成을期하야 東亞民族의 永遠한平和와 福祉를 將來세키라하는것인데 이에따라서 相當한 長期間을要하는것은 建設事業이다 그러데 多幸히 武力戰遂行에는 아직도 充分한 餘力이 蓄積되여잇스나 長期建設의 廣汎한 事業에 잇서서는 一般國民 今後의 奮鬪에 期待하는 바가크다 我國民의 大精神은 참으로 一視同仁、人類協和의至上觀念에 基한것으로 新東亞建設의、大業은 大理想의 東亞에 잇서서 實現됨에 不外하다 實로 日本民族에게 課賦된 天與의使命과 崇高한 道義的義務가 아니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면 史上燦然한 皇軍의戰果는 진실로 世界驚異이다 이는 御稜威의나라 남이나 酷寒이 骨을刺하는嚴冬에 炎熱이 肉을녹이는盛夏에도 困難勞苦에 忍耐하고 國家聖戰을 爲하야는 正月도 이저버리고 一身을鴻毛와가티 생각하야 從容히 死地에나가는 우리將兵의神가튼 無大한精神力과 東洋永遠의平和를 實求하며 日支兩國民의 共存共榮을 念願하는우리銃後國民이며 男子로하야금後顧의憂慮업이 安心하고 奉忠報國一致의誠意를 다할수잇도록하는協同一致의 團結力을 더한層 培養하야 어대까지 確信하는바이다 그러함으로 皇紀二千六百年을 앞둔 非常時局에處한 國民의 傳統精神이 國家非常時에 蓮發하야 그獨特한光輝를 빗내는것으로 今次事變에際하야 軍民一體가되여 國民精神을 發揚하야 萬邦無比인우리國體의精華와 日本精神의眞髓를 遊揚히 全世界에 誇示하며 隆隆한國運을 海內에 光被하게되는것은 진실로 慶祝하는바이다

그러데 我等은 먼저 數萬戰歿者와 負傷疾病者에게 萬腔의感謝와 深甚한 悼意를 表하는同時에 이처럼偉大한 犧牲者의雄志를繼承하야 어데까지나 所期의目的貫徹에 邁進하는一面으로 그遺家族에게 對하야는 充分히 應報하기를 이저서는안된다

今次의事變은 우리國史上經驗한 最大戰役이다 그리고 그만큼 또 擧國一致銃後活動의 熾烈한것도 前古未曾有한일이다 朝鮮에서도 官民의 熾烈한 後援은 진실로 感激하는바로서 特히內鮮人이 一體로되여 皇國臣民의 至情에넘치는 銃後赤誠은 實로 아름다운것이다 그러나 今後一層戰後의 强化를 切望하야마지안는바이다 또 陸軍志願兵은 皇軍의 一員으로 至誠、君國에 犧牲하겟다는 구든 決意와 自信을 堅持하고매우 緊張되엿다

事變은 過般聲明에依하야 蔣政權을潰滅지안는限 또 抗日政策을 放棄치안는限 이에對한膺懲의師는 長期에걸처서 繼續될것이明白하다 또 占據地域內의 肅淸工作을 爲하야도 相當한 兵力이 必要할것은 明確하고 更히 長期建設을 爲하야는 多額의資本과人力을必要로한다 이에따라 物資統制나精神動員도 武力戰終熄後까지도 持續하리라는것을 覺悟치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도 大日本의 興隆 東洋의福祉增進을 爲한것임으로 當然한일이다 物資統制로써經濟力의 低下로보는것은 錯誤이다 차라리 이는 次期飛躍에의 準備로보는것이 正當한觀察이다 大凡正義와實力이 아메 抗戰者는업다 我等國民은 益益盡國精神을 發揚하야 一致協力으로써 生産力의 擴充과 國防力의 强化를 企圖하는것이 가장 重要事이다 그러케되면 第三國依存의 蔣의 迷夢도第三國의策動도 何時에나 消滅되지 아니할수 업슬것이다

玆에昭和十四年의 年頭에際하야 我等은 更히事變의眞意義를 再認識하야 如何한狀況의 變化에도 動함이업시 不退轉의 勇猛心으로써 軍民一體、堅忍持久하야 時艱을克服하야 聖戰의目的達成에向하야 一意邁進하기를 祈念하는바이다 最後로 各位의 健康을 祝福하며 年頭辭를마치려한다

香塘 白潤文氏 筆

產金政策의檢討

中小鑛業家座談會 ③

▲金潤秀氏＝總督府當局은現在의 急한생각만하고 이미探鑛된것을 成績을올리는것만을 促進하는 것인데 우리 業者들의 생각에는 獎勵補助는 貧弱한 鑛業者에게 주어야올타고생각합니다 外國의例를보면 鑛石一噸에二三瓦의含有量밧게업는것도 採掘을 獎勵하는데도不拘하고 朝鮮에서는 送電線이잇고 鑛石이 機械設備에 노흔 鑛山이래야만 補助하는것은 矛盾이아니겟습니까

▲李容雋氏＝採鑛途中에라도 鑛量이만흔것을 分明히알면서 技術과機械設備의不足으로 採鑛을 繼續하야 進行치못하는境遇도 적지안습니다

平面에서立體 大成功의要訣

▲李經濟部長＝無盡藏한金鑛을가지고서도 겨우平面的으로始作하다가 鑛脈이좀못지면資金이업서 더파보지못하고만것을大資本을擁한 大會社가立體的으로探鑛을 進行하야 結局大成功을收得하는것이現狀이아닙니까

▲金潤秀氏＝우리가 産金振興會社에要望할것은 噸當二、三瓦의含有量만잇는것이면 現在의標準을緩和해서 金融의方途를 열어주도록해달라는것입니다

▲李經濟部長＝이가튼要望도個人的으로하는것보다는 團體的으로하는것이 有力하니만큼 業者의 무슨團體機關이必要하지 안습니까 當局이許諾할지안할지는알수업스나 中小業者를中心으로한 團體를 組織하야이를通해 決議件을 要望하는것이조치안흘까요

中小業者中心의 團體組織絶對要必

▲金潤秀氏＝그럿습니다 우리當業者들도그것을切實히 느끼는바로 俱樂部形式을 取하여서라도 離散된 朝鮮鑛業者들의 總意를 지금까지實現하지못하고잇는것은遺憾스러운일입니다 中小業者의指針이될만한 機關을會社가 中心이되여 組織해주시기를바랍니다

▲李經濟部長 現在의産金增産計畫은 應急策이므로 中小業者가困難하나 早晩間將次根本策이樹立될것은 事實이오 또最近同産金計劃의 全體에對한再檢討說도 잇는터이므로 其根本策이나오기前에 中小業者의 意見을 代辯할機關이 더욱必要하게되엿습니다

▲崔學成氏＝總督府의産金計劃이 아직도 地方에는 徹底하지못한感이업지안습니다 其一例로는 試掘하는境遇에 山林課에서干涉한다던가 火藥取扱許可가나와도 時日이 長久히걸리는等事는 其精神이아직 徹底하지못한데 基因하는것이므로 좀더徹底케할必要도 잇습니다

▲方金鳳氏＝鑛業家 全部가 다 有力한것은 아니므로 겨우 十餘名의鑛夫와함께 試掘을하면 鄕警察도하지안코 試掘을하는나는等警察의 干涉가든것도 어떤程度로는緩和하야 自由롭게 먼저 試掘케하는것이 補助보다 必要한現狀에잇습니다

▲崔學成氏＝朝鮮鑛業界에 잇서서 가장功勞가만흔者는 德大입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은中小鑛業者의功이크고 最後에大資本으로 收益하는者는 大會社입니다

▲方金鳳氏＝그러데 最近또하나 注目되는것은 産金令으로말미아마 群小産金業 鑛山勞働者들의손을빌은 砂金採堀量이減少된것입니다 그것은許可制實施以來로 極少量의金을 파기爲하야 보다만흔費用과 勞力이드는境遇가 許多하니까요 그리고또이것은 實務에從事하는 우리는 切實히느끼는바이지만 勞働者의待遇가 조화야 能率을내게되므로 勞働者의待遇改善도 增産計畫에 考慮치안허서는아니될問題입니다

鑛業會에警省

▲金潤秀氏＝아까도말이낫든말입니다만은 朝鮮鑛業會에도警省을促할必要가잇습니다 內鮮一體를부르짓는이때에 役員選擧라든가 意見採擇가든것도 朝鮮人을 排擠햇스면어떠겟습니까

▲崔學成氏＝그것이아니래도組合形式가튼것을비러 地方別로組合을組織하고中央에機關을두게되면조켓습니다 利害關係를떠난 이러한機關設置가必要한데 그러함에는 犧牲的努力을하는 人物이必要하고 또有力한援助機關가튼것도必要합니다

▲咸編輯局長＝바쁘신가운데오서 이가티여러가지로 조흔 말슴해주서서 感謝합니다 (完)

鐵嶺市北五條通 合資會社 共益精米所

鐵嶺市敷島町 合資會社 朝鮮精米所 電話六一五番 分工場廣裕街 電話五八一番

鐵嶺市敷島町四番地 崔君揖 電話七四五番

鐵嶺金融會 會長 李用錫 理事 山中鯉一

004356

鐵嶺市東關 合資會社 東昌洋行 電話長四六二番

鐵嶺市廣裕街 百貨店 革新商會 電話七三〇番

綢緞布木 名産雜貨 福興商店 滿洲鐵嶺大平町 電話長六二〇番

廣裕街 百貨店 東洋商會 電六四七番

鐵嶺市廣裕街 ラヂオ レコード 電氣用品 時計修繕 京城堂時計店

鐵嶺市柳町一番地 平壤冷麵店 主 黃柄贊

鐵嶺市廣裕街 白米商 鐵嶺商會 盧時昌 電話五一五番

鐵嶺市廣裕大街 回春醫院 市公署囑託醫 朴圭玉 電話四一四番

麟蹄郡農會

麟蹄郡 麒麟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郡南面於論里 礦畝鑛業所

麟蹄郡麒麟面芳東里 崔三峯

江原道麟蹄郡麒麟面縣里 麒麟釀酒組合

麟蹄郡麒麟面芳東里八九八番地 金禹成

麟蹄金融組合 縣里支所

麟蹄南小學校

麟蹄郡麒麟面上南里 德興商店

麒麟國有林保護組合聯合會 麒麟森林保護區 職員一同

麒麟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冠岱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麟蹄郡南面於論里 金洙龍

麟蹄郡瑞和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郡北面元通里 釀造業 李鍾泰

麟蹄郡內上東里 中華料理 德興館

麟蹄郡麒麟面上南市 上南釀造場

麟蹄郡南面兩冠岱里 沈在益

麟蹄郡南面 新豊釀造場 主 金燮洙

麟蹄郡瑞和面天桃里 徐溶澤

麟蹄郡麒麟面下南里 元興商店

麟蹄郡北面韓溪里 材木商 朴泰洪

麟蹄金融組合 瑞和支所

麟蹄郡麒麟面上東里 申憓休

麟蹄郡麒麟面下南里 裵元赫

江原道麟蹄郡麒麟面縣里 公醫 李基甫 麒麟醫院

麟蹄郡麒麟面上南市 新興商店

麟蹄郡麒麟面上南里 雜貨商 金昌任

麟蹄郡麒麟面上南里 昌信商店

麟蹄郡南面於論里 金益道

麟蹄郡瑞和面瑞和里 禹成鎭

麟蹄專賣局販賣所 金範仙

麟蹄郡麟蹄面上東里 韓國林

麟蹄郡麟蹄面上東里 國寶武士

下東面協議會員 尹璿求 姜太蓮 朴性萬 崔正煥 金容守 金榮澤 金命得 金水長

駕洛面長 金鍾澤 長有面長 河奉化 菉山面長 李雨英 外職員一同

金海郡廳

金海郡農會

下東面 職員一同

下東水利組合 職員一同

下東面草亭里 金在郁

下東面水安里 林炳澤

下東面柳井里 金華圭

花園農場 張守甲 朴文守

下東面草亭里河川締切工事 金鶴 美髮館 洋藥賣藥部

大渚面金融組合 職員一同

大渚水利組合 組合長 金鳳洙 大渚面 職員一同

金海中央産業組合 金海運輸株式會社

穀物檢査所 金海出張所

大渚面協議會員 高德鳳 金震旭 成周弘 安孝德

金海警察署

金海邑職員一同

慶南道會議員 植田義夫

慶南金海朝鮮酒造組合 組合長 裵上甲 理事 李泰正

慶尙合同銀行金海支店 金海金融組合 長有金融組合

泊南金海農場 金慶鎭

淸水泰山農場 甲斐寅熊

慶南自動車株式會社 金海營業所

慶南金海郡金海邑佛岩里 孔在澄商會 主 金南守 金仙旅館

金海郡泰山面 美音酒造場 安承太

金海郡下東面大甘里 醫生 鄭秉謨

金海郡下東面鳥納里 簡易學校 吳孟仁

下東面酒中里 車亭奎

下東面草亭里 安相承

金海郡大渚面平江里 米穀商 尹成萬

大渚面出斗里 大渚金組評議員 金琪源

沙上面事務所 職員一同

龜浦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龜浦驛前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龜浦支店

龜浦金融組合

龜浦産業組合

慶南龜浦面所側 內外科 小兒科 專門 近山醫院 院長 金炯珠 電話四八番

龜浦布木商組合 伏金朝鮮酒造場

綢緞布木商 兪小道

濟生堂藥房 文炳祚

慶南龜浦 綢緞布木商 薛慶海本支店 電話一一番

慶南龜浦驛前 和洋雜貨 第一商店 權銀

和信連鎖店 趙利燮 電話三三番

慶南龜浦驛前 大泉酒造合資會社 食糧品商 金永泉 朴斗仁

慶南龜浦驛前 金晋坤精米所 許元道精米所 禾山精米所

慶南 龜浦 御料理屋 平壤館 實成館 大成館 常春館 永豊樓

金海酒造株式會社 社長 裵上甲

角一山林土地株式會社 市原助治

長有面茂溪酒造場 李承秀

鳴旨面中里酒造場 崔奭海

金海郡泰山面 美音精米所

駕洛面竹林里 駕洛酒造場 宮本崇一

穀物商 裵次守

金海郡泰山面美音里 魚允靜

金海郡長有面內方里 長有金組評議員 嚴光燮

滿洲國四平街市 精粟業 特產物 輸出商 合資會社 廣信號 發電略號(ニコ)又ハ(ニ) 受電略シヘイガイコウシンゴウ 電話長六三一番 工場(精穀部) 慶安街 電話四四九番

滿洲四平街驛前 精撰米、精白米、高粱 製造元 穀物貿易並ニ委託業 泰昌商會 慶安街 大正街 慶安工場 第一工場 第二工場 電話六五五番 電話二九五番

滿洲國四平街市 私書函四平街局第三號 穀物貿易 合資會社 滿鮮公司 代表者 宗洪植 受電 シヘイガイマンセンコンス

滿洲國四平街市北一條通 穀物貿易 合資會社 信益商會 代表者 金四亨 電話一五五五 發電略 (シ)又ハ(シン)

昭和十三年十二月二十六日出發 約一週間豫定으로 靑島、上海、南京、蘇州、杭州等地의第一線 皇軍慰問次 旅行中임으로 年末年始의禮를 缺하옵니다 四平街 高文龍

四平街市北三條通 東亞旅館

滿洲國四平街市 滿洲特產商 輸出貿易商 天一商會 發信略號(テン)又ハ(テン) 受信略號 シヘイガイテンイチ 電話長三二八番

特產物 輸出商 高鹿商會 電話四〇五番

우리商圈을長城너머로 ②

輸入品杜塞對策

—代用品研究와栽培—

戰時體制의 强行에伴한 貿易의統制로서 昭和十二年九月에公布된「輸出入品等에 關한臨時措置에關한 法律」은 朝鮮에도施行되어 그命令에 定한바에依하야各種物品이 朝鮮總督의 許可가업시는 輸出及輸入을 禁止되어잇다. 이때문에 從來支那各方面으로부터 輸入하고잇던朝鮮人特有의 日用品即唐材 苦草 胡麻 葉 麻布等도 一切輸入이禁止되엇다. 爲替의維持가 戰時經濟의 重要한 横柏인이때 참을수잇는 不急品때문에 國이流出됨은憂戒되는일이다 多幸히滿洲國內는 爲替管理法에 依하야日滿一如로 統制됨으로官公署 商公會等의 原産地證明이 잇는것에限해서 此等物品도 滿洲로부터는輸入할수가잇다. 그러나고從來의需要를 全部滿足 시킬수업기때문에 그輸入許可를 求하고여러가지 陳情이잇는 모양이나軍需又는 建設資材가 아닌此等의것에 對하야서는 日滿支經濟블럭의 新編成이 完成되기를기대리는수밧게업다.

但此等에對한 代用品의 研究或은朝鮮內에서 栽培할수잇는것은그것을 極力으로 奬勵하는것도有力한 對策이오 漢藥의研究 胡麻等의 栽培奬勵가 目下進行되는中이다

世界經濟의一環

從屬經濟도아니오 地方經濟도아니다

모든것이貿易品?

個人의利益이되는것이다. 이觀點에서본다면 다만圓블럭內의 大陸貿易에만注目할바아니다 第三國貿易에 重大關心을 가지는것이要請된다. 重要品에對한 圓블럭內의 輸出制限의强行은 자조論議되는바인데 第三國으로부터의供給을밧는것을 限界로하는것에 對한制限緩和는 當分間可望이업다. 따러서百%로 朝鮮産業의國內産의 大陸貿易品이가장 有望한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問題를 東亞에限해보자! 朝鮮이 日滿支經濟블럭의 偏要한 大陸「루-트」로서 또는經濟的據點으로서 地의利를 得햇고 또그經濟的發展에 잇서서도 이미單純한 內地經濟의 從屬經濟 或은 地方經濟로서가아니오世界經濟의一環으로서 地位를 占하고 外國貿易에 굿센거름을 踏出하는中인 이때에잇서 朝鮮人의活動은 크게 期待할바이다. 農工併進의 經濟段階에 잇서 原始産業의 食糧及 工業原料로부터 鑛産物、工産品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貿易品으로서의 素質을 가지고잇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鮮産海産物—海苔、鮮魚、鰹節、鰯罐詰、乾鮑、明太、鱈等方面에 朝鮮人漁業家의 投資하고잇는 存在도이저서는안된다.

그리고直接貿易業에關하야 朝鮮人의 進出로서注目되는것은朴興植氏의和信貿易會社(資本金 二百七十五萬圓)의 設立計畫이다. 支那滿洲는勿論南洋、濠洲、印度等世界各國에 工藝品、農産物、水産物及雜貨를輸出하며 輸入도圖한다하니 期待할만하다.

圓블러輸出制限

國策에順應한貿易으로 —第三國貿易에關心要請—

먼저도말한것과가티 戰時貿易에잇서서는 軍需及建設資材의輸入과 外貨獲得이되는輸出이 무엇보다도先行된다. 그때문에統制가 輸出入品等에關한 臨時措置에關한法律과 外國爲替管理法等에依하야 規定되어잇슴으로 戰時貿易에關하야서는 此等의事情을 充分히念頭에두어야한다. 其他戰時貿易은 時局關係의 諸法令에拘束되는것이만흠으로 이런것도注意가必要하지만 무엇보다도 重要한것은 國策에順應한貿易으로進轉하는것이다. 이것이 結局

財閥進出

地主階級으로자지된 朝鮮人財閥도近代産業에 投資하는사람이漸漸느러가서 近代産業이 貿易과의接觸面을 가지게될것은 明白하다. 某朝鮮人經營의 紡織會社製品이 滿洲方面에 輸出되기도하고 鑛業界로말할지라도許多한 鑛産物이 現下時局下에서는主로國內用에當코잇지만將來에는輸出品으로서期待된다. 金은貿易品은아니나 朝鮮의産金이我國의國際貸借改善에資코잇는것은 朝鮮人鑛業家의 자랑인것이다. 特히支那方面에對하야 가장有

金融機關의特惠的便宜

滿洲에잇서서 鮮滿兩地의 貿易金融의 圓滑化를 圖하던 朝鮮銀行의 滿洲內各支店은 그業務를 滿洲興業銀行에 讓渡하는同時에 撤退하얏스나 北支方面에는 北支、天津、靑島에 支店이잇고 濟南에出張所、石家莊、太原城、彰德에 派出所를 設置하고 또中支에는 上海에支店、蕪湖에 派出所를두고서 各所在地에잇는 邦人貿易商을 援助하야 鮮支間의 輸出入貿易發展에貢獻코잇다 北支의 邦系金融機關으로서는 正金銀行、朝鮮銀行의兩行이 잇슬뿐이오 北支向本邦關係爲替는 朝鮮銀行에依存코잇다 朝鮮內各地에 本支店을가진 朝鮮銀行의 現地營業所가海外에서의 貿易金融의 圓滑化를圖하고 朝鮮에本據를둔 貿易關係者에게 利便을 齎來코잇다.

朝鮮物産輸出 當局特殊保護

朝鮮物産의 大陸進出을 圖키爲하야 當局이 施設하고 或은 企圖中인것은 一二가아니나 輸出促進諸法令의 具體化外에 滿洲國 或은 新支那政權에 對한 關稅引下合理化의 要望運動의 簡易化、保稅制度擴張、日滿支船車連絡의圓滑化、對支航路의 擴張 對支海港設備의改善、船舶의增配運賃의 引下合理化等 아직 그實現過程中의것도잇고 商工課 外務部에 貿易係、通商係의 增員現地派遣員의增員、滿洲、北支、中支에서의 見本市、即賣市開催等着着그實績을 거두고 잇는것도잇다. 貿易振興機關으로서 朝鮮貿易協會에 對한 補助를 增額하고 同協會는 大陸進出을 促進키爲하야 努力中이다.

輸出狀況

昭和十三年一月—十一月間의對滿輸出額은 一億八百九十萬圓、對支輸出額一千九百四十萬圓인데 關東州에의 輸出一千七百二十萬圓도 一部州內消費를 除하고는 滿洲國或은 支那로再輸出코잇다 輸出品中重要한것으로서 同期間에輸出額十萬圓以上에達한것에對하야 그所向地와輸出額을 보면 다음과가다. (勿論이中에는 內地品等의仲繼貿易도包含한것은 考慮에너흘必要가잇다.)

大陸輸出重要品(單位千圓)

自昭和十三年一月至同年十一月

	對滿	對支	對關東州
米及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乾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鹽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乾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水産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林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魚介罐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煙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紅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打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肌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護謨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세멘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陶磁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藥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州鐘紡綿布 第三國輸出好況

光州鐘紡全南工場의綿布의 第三國向輸出은 從來 釜山經由로 輸出되엇스나 十二月二十一日及同二十三日木浦에서 輸出手續을 맛치고 下關向 一千六百反、九千三百八十圓의 新規輸出을보앗다 右는 釜山經由에 比하야 一梱에對하야 二圓이有利한터이므로 今後同品의 木浦經由輸出은 相當히 活況을 呈하리라고 豫想된다

新興朝鮮의建設 諸般施政을充實

內務局長 大竹十郎氏談

戰時體制下 擧國一體的緊張裡에 希望과 光明에充滿한 昭和第十四年의 新春을마지한것은 우리國民의 欣快하는바로서 삼가 皇室의 彌榮과 聖壽의 無窮을奉祝하는바이다

回顧하면 事變下의 昭和十三年은 진실로 我國에 多難한때이엇스나 新東亞建設의 理想達成을爲하야 참으로多事하고 光榮잇는 多難이엇다 더구나 上은 陛下의御稜威와 皇軍의 威武에依하야 抗敵의 要衝廣東、漢口의 攻略도 이미마치고 이제事變은 新段階에 到達하엿다 이와가티 意義기픈 新春의年頭에當하야 우리國民으로서는 決意를새롭게하야 內로는 擧國一致의體制를 益益鞏固히하고 外로는 皇道의 宣揚에邁進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

皇道는 生成發展하야 끗칠이업는 神國日本의大道이요 그根幹이되는것은 敬神、尊皇、愛國의至念이다 이를 本質的으로보면 神意의示現『神ながらの道』의顯現이다 多幸히 朝鮮에서도 漸次敬神、尊皇、愛國의美風이 大興하야 皇民意識의 興隆은 진실로感激하야 말지안는것이잇스나 이제

事變下第二次

의 年頭에際하야 吾人은 기괴國體의 淵源을 살피어서 皇國의大理想과 皇國의使命을생각하야 益益敬神、尊皇의大義를 數厲히하야써 皇運을扶翼하는바가 업서서는 안되겟다고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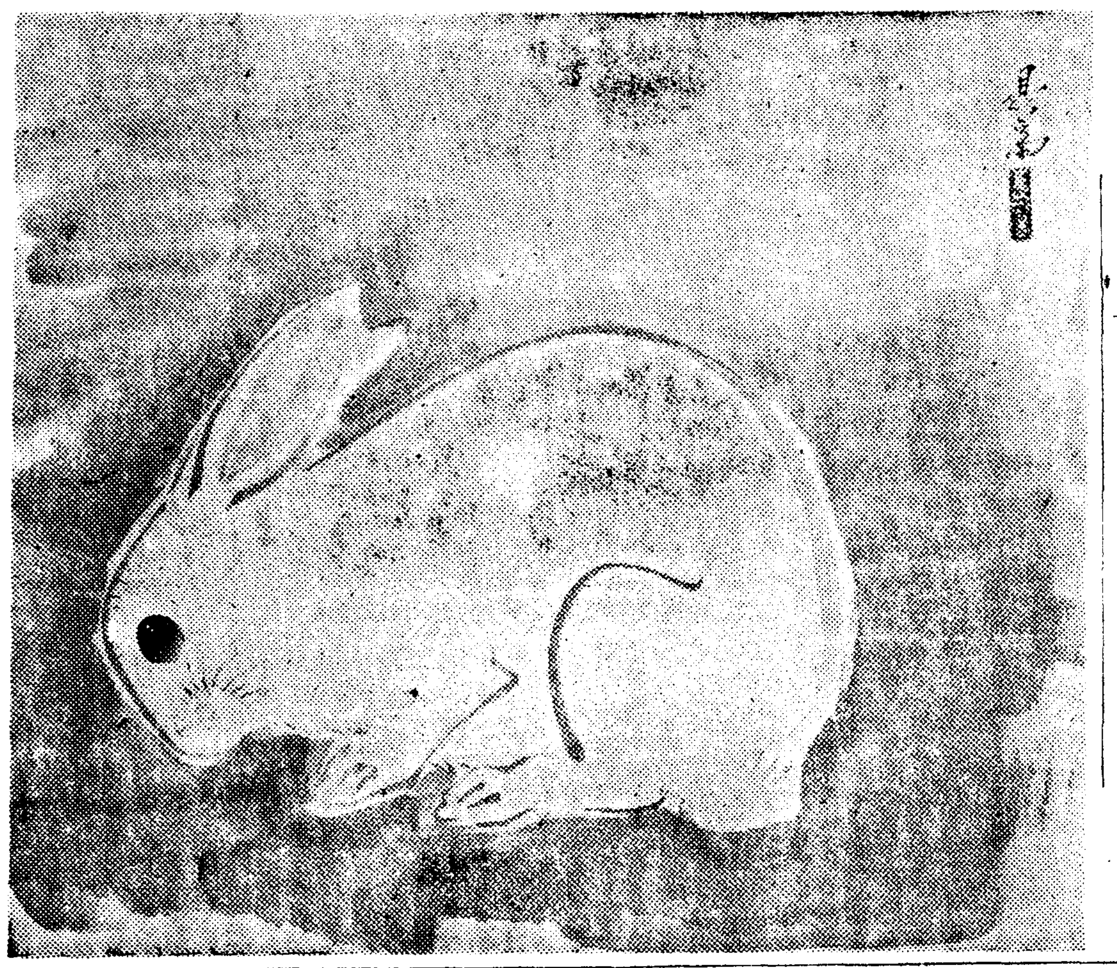
事變下 朝鮮에서는 官民一致協力하야 銃後報國의 至誠을다하야 聖戰의目的達成上 何等의不安도 업게하고잇는것은 참으로同慶으로 녀이는바이다 特히地方公共團體에서는 地方行政의第一線으로 事變後激增된 事務도 遺漏업시 處理하는同時에 國策에順應하야 戰時體制財政의 調節에注力하야써 資金調整及 鐵類其他軍需資材의 使用制限의趣旨의徹底를期하고자 努力하고잇는것이나 時局이 마치내 長期建設段階에들어간 今日에잇서서는 益益 그强化를圖하야 大業의遂行을 期치아니하면안되겟다 그러나 近年特히 顯著한 發展途上에잇는 朝鮮에서는 新興朝鮮建設에 必要한施設의 充實을圖하는것이 緊要한일이다 卽時局下에잇서서 各種工業에 必要한敷地、工業 用水의 供給並 斡旋 이에伴하는 市街地計畫 及 一般都市의發展에依한 市街地計畫의計畫施行、東北滿洲와內地와의連絡及 北鮮地方의開發을 促進하기爲하야 必要한各種施設、또朝鮮의將來性에對應하기爲하야 敎育機構의擴充計畫의 短縮施行가튼 國策에基하는資金及 物資의統制上 可能한範圍에서 着着進捗을보이고잇다

本年五月廿一日은 全鮮大多數의府邑面에서

地方制度改正

後第二回의議員及 協議會員의總改選을行한다 이와가티 重大時局에際會하야 地方行政運用에當하는 現在議員及 協議會員諸君에對하야 深厚한謝意를表하는同時에 將來할 總選擧에잇서서는 選擧民은 가장 知識經驗에富하고 地方公共을爲하야 公正한態度로써 獻身의努力을애끼지안는 人格者를選出하야 從前에못지안는 成績을擧揚하기를 切望하야마지안는바이다

우으로 皇室에서는 기괴銃後에도 軫念하옵시사 가지가지의仁慈를 垂하옵신은 진실로 恐懼感激하는 바이다 特히 昨年十月二日에 內閣總理大臣에게 優渥하옵신 勅語를 賜하옵시고 또軍人援護의資로 巨額의 御內帑金下賜의 御沙汰가 게시옵서서 皇恩은 洪大하옵시고 聖旨의深遠하옵심에 다만感激하는바이다 聖旨를 奉戴하야 政府에서는 十一月五日 右恩賜金으로써 恩賜財團軍人援護會를 設立하고旣存軍人援護團體로서 統合할것은 이에 統合시키고 또 有志의義金도加하야 널리 各種軍人援護事業을 經營하기로 되엿스므로 朝鮮에서도 內地에 順應하야十二月一日에 中央에 同會의 朝鮮本部를 設立하고 各道에 그支部를 設置하엿는데 今後 一般民間의 協力을어더 益大 그



鼎齋 崔禹錫氏筆

基礎의强化를 圖하야써 朝鮮에잇서서의 軍人援護의 中樞機關이되기를 期하고잇다

軍事後援聯盟

其他 各種援護團體의 活動과 一般官民의 協力에依하야 極히圓滑하고 有効適切히 實行하고 잇는것은 진실로 慶賀하는바이다 特히 一般民衆의 熱烈한愛國的赤誠은 名實共히 內鮮一體의 赤心을 發揮하야 皇軍援護에 注力하야 그美談篤行이 隨所에具現되고잇슴은 참으로 皇國臣民인 至情至誠의 象徵으로 衷心으로 感銘하는바이다

戰局의 進展과 時日의 經過에伴하야 戰死者、傷病軍人의 激增은 不得已한일인데 此等에 對한 援護保護는緊要한것이다 總督府에서도 昭和十三年度豫算에 所要의經費를 計上하고 軍事後援聯盟과 協力하야 具體的計畫을進行하고잇는데 그主要한것으로는 傷痍軍人이 除隊後更히療養이 必要한때에는 所要의經費를支給하야自宅 入院又는 轉地療養을시키고 傷痍로因하야 職業의再敎育 轉換等이 必要한때에는各其學校 工場 商店又는內地의適當한 施設等에 委託하야 此를行하기로되엿고 軍人遺族의 子弟로서學資가업서서 中等敎育을 밧지못하는者에게 對하야는 育英助成金을支給하야 工夫하게하고 或은 必要한 道府郡에 軍事援護相談所를設置하야 傷病軍人並出征應召軍人遺家族의 家業의經營維持、紛議의調停其他 一身上及家事全般에關한 相談指導에 當하게하는等各方面에서 그扶助援護에努力하고잇는데 事變의 長期化에伴하야 今後益益 此等軍人援護事業의完璧을 期하야써 出征應召軍人으로하야금 後顧의 憂慮가업게하기를 切望하야마지안는바이다.

今次事變을 契機로 半島의地理的 經濟的諸條件이 大陸前進兵站基地로서 顯著히 그重要性을加重한結果 幾多國策的事業의勃興을보게되어 昭和十三年度中에施行된 土木建築工事量은 一億二千萬圓에 達하엿는데工事의激增을따라 勞働者의需要는갑자기 增加하야 그所要數는 一日平均四十萬을 算하야 到處에서勞力의不足을 告하는 狀況이다 그러므로 總督府에서는 昭和十三年度豫算에 所要經費를 計上하야 實施한 南鮮過剩農民의 移動就勞斡旋의 事業을 更히擴大하고 昨年中에 先年來 各道와協力하야 西北鮮地方의 勞力不足한 工事場에 斡旋하엿는데 各道에서도 地元民의出役을 極力勸奬한結果 大體 所要의勞力을 充當하야 工事도 大槪 豫定대로進捗된것은 또한 同慶으로 생각한다.

更히 最近에는 地下資源의增産計畫이 그緖에就하야 갑작이 鑛山勞働者의需要增加를 보게되엿다 再言할것도업시 國際收支의 均衡에資하는 金의增産과 戰略資源인

重要鑛物開發

은 現下의緊要事로서 이에對한 勞力의供給은 緊急한 問題이다 由來鑛山勞働者의 供給에는 諸種困難이 잇는것인데 總督府에서는 資源增産計劃의 重要性에 鑑하야 萬難을排하고 舊臘以來 各道와 協力하야 그供給斡旋에 努力하고잇는것이다 其他 軍需勞務의充足은勿論事變의 影響에因한失業者 又는休業者의 職業轉換 歸還軍人의職業斡旋等 勞務調整問題는 現下 緊張한要務로서 今後도 一般官民各位의協力、援護를 切望하는바이다

昨年八月 北鮮地方을 襲來한 水害는 相當히 激甚하야 人畜、家財、農作物、道路、橋梁、堤防其他交通通信機關等에 多大한損害를입엇다 惶恐하옵게도 皇室에서는 此等罹災民의窮狀을 軫念하옵시고 救恤의資로 多額의御內帑金을 下賜하옵신것은 罹災民은勿論 一般官民의恐懼感激하는바이다 또南鮮地方에서는 昨年水稻의成育、出穗時期인 七、八月頃에 降雨量이 적어서 灌漑가 充分치못한 畓은用水가 枯渴하야水稻의成育 分蘖가 極度로 阻害되엿을뿐아니라 枯死한것도 만하서그被害는 廣範圍에 걸처서罹災民의 窮狀은 深刻한것이 잇섯다.

罹災民의救濟

此等水害、旱害에因한 罹災民에對하야는 總督府에서도 直時地元道와 協力하야 그對策을講究하엿는데 그應急과 事後救濟에對하야는 國庫에서 相當한補助金을 交付하엿고 그外에水害罹災民에 對하야는 義捐金을募集시켜서 救助의 萬全을 期하엿섯다. 多幸히 一般民衆各位의同情과 罹災民의 奮鬪한 更生意氣에 依하야 그窮狀을 漸次打開하야 安定에向하야 突進하고잇는것은 同慶에견디지못한다.

이제 半島社會經濟界의 推移는益益 各種社會事業의 活動에기대리는 바가만흔데 이제榮光스러운 新春을마지함에 當하야 吾等當局者로서는一層奮勵하야써 社會事業의進展을圖하야 銃後國民의 待望에應酬하는바가 잇기를 祈念하야마지안는바이다.

昨年土木事業은 時節의 進展에伴하야 膨脹되여 그總豫算額은約四千萬圓에 達하게되엿다 右事業가운데 主要한것은 港灣修築改良費의 一千十六萬餘圓이다 이는 鮮內資源 開發及貿易增進에 順應할 港灣設備를하기爲하야 釜山 麗水 馬山 仁川 多獅島 城津 淸津西湖及雄基等 八港의修築擴張을 爲하야 實施하엿는데 時局의必要에 應하야 極力그進捗을 圖急하므로 工程은豫定以上으로進捗되엿다 그다음

中小河川改修

費八百七十五萬圓이 잇는데 이는農村疲弊의 源인 水害를根絶시키라는 水害對策의 一로써 그六個年繼續總額七千五百萬圓의 第二年度額이다 그리고 改修할바 一百五十五河川가운데 初年度以來 着手한 河川數는 百六十七로 工事는 順調로 進行하고잇다

以下三面繼續

純結晶 品質

正賀

紀元二五九九年

여러분의健康과幸福을아울러비오며올해에도變함없이愛用해주시기바랍니다!

味の素 (あぢのもと)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木

劃期的新學制로 朝鮮敎育의向上

學務局長 鹽原時三郎氏 談

暴戾無雙하든 大陸을席捲하는皇師百萬의 鐵蹄는益益그勇猛을더하며 銃後同胞의 結束과 支援도또한 强固張敵의 緊張을示하는속에 聖戰第二年의 新春을迎한다 此時에當하야 既往을回顧하고 將來에向하야 更히一段의 決意를 述함은 予의가장 欣幸히여기는바이다。

伏惟컨데、皇國은 한번正義의 劍을拔하면 그勇姿는 忽然世界의雲表에屹立하야 萬國은瞠目한中에 一面으로는 不逞暴戾의將軍을 完膚가업슬만큼 强打窮追하고 他面으로는 皇國獨特의 宣撫建設로써 東亞更生의 大偉業을遂行하는光景은、有史以來未曾有의 壯觀이라하겟스며 同慶에 견듸지못하는바이다。

그成果는 말슴하기는惶恐하나 天祐를 保全하옵고 允文允武하옵신 天皇陛下의 大稜威의빗나는바임은 이제새삼스럽게 말슴할必要도업고 다만 感激하야참을수업는바이다。보라

中原徐州의大包圍戰、疾風迅雷敵의意表에서나온 南支廣東의 快攻略 그後숨쉴새도업시敢行한 要衝武漢三鎭의 大殲滅戰 將又우리의虛에乘하야 挑戰한 蘇聯의野望을 一擧에挫折시킨 張鼓峰의痛快한一擊도 天皇陛下의御稜威에感激하야 歡喜가운대에 生命을바치는 皇軍將兵과 一切를天皇陛下께捧呈하야 陛下께忠誠을다하기를 期하는銃後同胞가 合처서 巨大한一丸이된 偉力때문이아니면무엇이가。吾等、皇國臣民된者는 光榮이無上한것을 感知치아니할수잇는가。行往坐臥、造次顚沛에도、國體讚仰、皇室尊崇의念에서 須臾라도떠날수가잇는[illegible]

審議三月 [illegible] 朝鮮敎育令의公布된 [illegible] 歡呼中에 마지하게된 所以도全혀 皇國皇室에 對한 感激임에 틀님이 업는것이다 即前者에依하야 內鮮共學의 一元的 統制가 實現되엿고 後者에 依하야 朝鮮同胞도 直接 天皇陛下께 忠誠을 다할수잇는 光榮을 어덧고 또 一視同仁의 恩澤에 浴할수잇게되엿기때문에 그처럼歡喜가 絶頂에까지 高潮된것이다

이제 半島同胞는 누구나 모두 自進하야 國家非常時局에對하야 皇國을 萬代의 安全에두기爲하야 忠誠愛國의 赤誠을國所에서 披瀝하야 幾多의 눈물겨운 情景을 展開시키고잇는바이다 그中에서 가장重要한一、二의 事歷에 關하야보면 客年七月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이結成되자 全半島는 이에 呼應하야 그形勢는 燎原의 火와가티

勤勞報國

[illegible] 民衆의 組織的統制잇는 勤勞報國、生業報國及 生活改善運動、그리고 從來에는 결핍하든 反國家的破壞의 態度에 出하라하든 思想家의 轉向運動、그全朝鮮思想聯盟의 結成、基督教團體의 國本的 覺醒轉向等도 모두皇道國家의 優越性을 確認하고 皇國臣民의 光榮에 感激하야 滅私奉公의 先鋒이 되기를 期하는 精神과 信念의 鞏固表現아닌것이업스다 以上의것을 回顧하건데 生을 皇國에 享하야 더구나 [illegible]

朝鮮敎育

[illegible]

新東亞建設對應 朝鮮遞信事業躍進

遞信局長 山田忠次氏 談

玆에 聖戰第二年의 淸朗한新春을마지하고 멀리東天을拜하야 聖壽의萬歲를奉祝하고 同時에國運의隆昌과 北中南支에 奮戰하고잇는 我忠勇한皇軍將士의 武運長久를 祈願하며 衷心으로부터 感謝의念을 새로히하려한다。

事變以來 我朝鮮은兵站基地로서 또大陸政策의 據點으로서자못其重要性을 增加하엿는데 이에따라 其神經系統이고 資源開發、產業振興의 原動力인 我遞信事業은 다시其重要性이 加重되어 其整備擴充이 要望되게되엿다 따러서 이에從事하는 我等一萬二千餘의 全職員은 一意遞信報國의念에불타면서 一致團結各自의分擔을通하야 職分에奮勵하야 銃後奉公의至誠을 다하고잇는터이다 此機에 昨年中에잇서서의 所管의施設事項、計畫事項等에 對하야 略述하겟다。

(◎) 郵便事業과가티 地味한것은적을것이다 그러나이것은 마치水와空氣와가튼것으로 人類에주는 恩惠는 算測할수업는것이다 이러케 我郵便事業은 默默히 其健實한進展을 繼續하여가는것이다 于先 昨年度에잇서서는 時運에 따르고자 郵便規則의 全面的整理統一을하엿는데 其外에 南支方面과張鼓峰事件에對한 軍事郵便의 取扱을開始한것 對支의航空便及 水路遞送便의 强化를圖謀한것等이 主要한것으로서 들수잇겟다 [illegible] 同方面直通列車를 利用하야 直接北京行의 締切便을 開設하야 [illegible] 全朝鮮에 新設한郵便所等의數는六十數個所인데 通信機關의 稀薄한 朝鮮도이와가티하야 漸次擴充되여가는것이다 다음에 事業의機械化에 努力하야 京城郵便局에는 새로운試驗으로써移動郵便局을 備附하고 또主要都市에는 集配用小型 自動車의增備를하엿다。

郵便貯金은 元來朝鮮에서는金融組合等의 發達에依하야 從來成績이不良하든바 支那事變勃發以來 其使命이 益益加重되엇스므로 郵便貯金獎勵強調期間等을 設定하야 一般의貯蓄思想을 鼓吹한結果 近年來稀有의 好成績을거두어 昨年一月부터 十一月까지의 純增加額은 千二百十八萬圓에達하엿다。

事變公債及 貯蓄債券의 賣出을 各郵便局所에서도 數回에亘하야行하엿는데昨年中에 잇서서의 賣上實績은 六萬四千四百六十枚、四百八十萬圓으로 配定額을 超過하엿다。

電信電話關係로는 昨年은 五個年繼續擴張改良計畫(豫算總額二千三十萬圓)의 第二年度에 相當하엿는데 今次事變의 進展과 國際情勢의 緊迫等에依한 經濟事情의 激變에 遭遇하엿스므로軍事、國防、物資關係等을 勘考하야 豫定의計畫에對하야 相當한修正을加하야 實行하엿다 이에依한 電話加入者의 新增設은四千百八十四名、電話交換業務의開始는 十九個所에達하고 또電信、電話回線의新增設、通話區域의 擴張等도相當히하엿다。

朝鮮의地下를縱貫하야北方奉天에達하는 日滿케－블의 施設은遞信省과 總督府의共營인데 昨年中에完成의域에達하야本年부터는 드디어運營될豫定이다 이것은東亞에잇서서의 通信設備의一大革命이라고稱할만한것이다。

다음에 防空通信規則을制定한것、氣象通信施設의整備擴充을圖謀한것、張鼓峰事件等의 事變關係의施設을한것、大阪、淸津間의 [illegible] 眞空管送受信施設한것及 電話通話制度의改善을圖한것等도 特記할事項이다 또北支蒙疆地方과의 電報의交流는 [illegible] 四分之一乃至 三分之一의低廉한特殊料金으로써 電報의取扱을開始하야 其通信量은 漸次增加의趨勢에잇다 朝滿間은 電信은 그다지變動이업스나 電話는 相當히增加되엇다 이것은 五地間의 通話區域의擴張에依한結果로본다。

無線電信電話에 對하야는 昨年度以降三個年繼續事業으로서 航空通信網의整備擴充을 圖謀하기로하고 昨年中에잇서서는 京城無線局京城飛行場內分室을 設置하엿스며 또京城及 淸津에 航空無線標識를新設하엿다 其他江陵外二個所에는 航空無線局을新設하기로하야 京城裡里間航空無線을設定하고航空關係通信을取扱하기로되엿고 江陵은 이미一部業務를開始하고 他는目下施工中이다。

다음에 京城無線局의 設備의强化를圖謀하야 富平送信所二個所의新設을하엿다。

無線通信의利用은 將來益益增加될것이니 其研究와 施設의整備는 極히緊要한것이다。

「라디오」는 昨年에가장 活躍하엿다 即一月十六日의「蔣政權을相對로하지안는다」는 政府의聲明、十一月三日 明治節에 當하야 廣東、武漢三鎭陷落後에 잇서서의 帝國政府의 決意를中外에闡明한 近衛首相의 歷史的放送은 一瞬에全國坊坊谷谷에까지 그소리를傳하야 一億의同胞에게眞實로 歷史的國民으로서의覺悟를更新시킨것은 至今도 吾人의耳朶에남어잇는것이데 이것은實로 라디오의威力을 充分히發揮한것이다 또報道陣의 一大飛躍이라고할만한것은 徐州의大會戰或은 武漢三鎭의 攻略戰에際하야 마이크를 第一線에進出시켜 戰局의展開하는狀況을 實戰대로의 實感放送에 或은實戰그대로의放送에依하야 逐一全國에報道하야 戰局의推移와 皇軍勇士의奮戰또는 勞苦의一端을생각케하고 銃後國民으로하여금 大感激을하게한것으로 이것은北京、上海、南京等占領地域으로부터의 內外地向放送과아울러 實로感慨가기픈바이다 또三國防共協定一周年記念交換放送에서 히틀러總統、무솔리니首相의 正義日本禮讚의힘잇는목소리를 들은것 또東京伯林、羅馬防共樞軸强化를 盟[illegible]하는 子들擔手가電波를 通하야交換된것等도 記憶에기피남을바이다。

其他時局에關하야 官民知名之士에依하야 幾多의講演等이잇섯다 또朝鮮獨自로 實施한 [illegible]語放送等도特筆할만한것이다。

其他의 施設로서는 라디오의普及을圖謀하기 爲하야 聽取料를 月額七十五錢에 低減한것과 咸興의 兩放送局을 開局한것等이其主要한것인데 라디오의加入者도 最近十三萬에 達하려하는狀況이므로 本年에는 다시南鮮方面에도 放送施設의 擴大强化를 圖謀할方針이다 또二重放送設備의 擴充、有線中繼設備의完備、放送局의 增置等라디오方面에는 幾多整備를 要하는 重大問題가將來에남어잇다。

昨年은 其關連이顯著한것이잇서 一月以來十月末까지의 新契約高는 五十八萬八千餘件、保險金額一億七百六十餘萬圓이라는 驚期的增加를보이엇다。

[illegible] 로되엿스므로簡易保險에 對한社會의 認識이飛然高揚되엿다。

朝鮮簡易生命保險에 잇서서는 保險金의 最高制限額은 創業以來四百五十圓으로 定하여잇든바 現在의 社會經濟事情下에잇서서는 右金額으로서는 不充分하게되여 本事業의使命을 達成하는데 [illegible] 昨年十月一日부터이것을 七百圓으로 引上하야 益益本事業의 使命遂行에 邁進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本事業은 逐年順調한發達을하야 昨年十月末現在의 契約件數及狀況은 加入件數百七十萬件餘契約保險金額二億一千六百五十萬圓餘의 多額에 達하고 [illegible]

朝鮮簡易生命保險의積立金總額은現在二千七百四十萬圓에 達하고잇는데 現在의情勢로보면 一億圓에 達하는것도 二、三年中에實現될모양이다 그때에는 簡易保險의朝鮮經濟界에잇서서의 地位도一段飛躍할것으로보인다 昨年에잇서서의 運用으로서는 政府의公債政策에 順應하야 一百萬圓으로써 國債를購入하엿다 昭和十四年度에잇서서 새로히 運用할金額은 千四百七十萬圓의 豫定인데 其中 約二百萬圓을 國債購入에豫定하고 他는 社會公共事業其他에 融通하기로하엿다。

事變의 擴大와同時에 生產力擴充問題가 最緊要하게되어 따러서 그基礎條件인 電氣事業은 國民注視의 中心으로되엇다 內地에서는 昨年春 議會에 잇서國策인 發送電會社案이 成立되어 本年부터는 着着其實現에向하야 進行하려 하고잇다 朝鮮에 잇서서는 이미 統制方針이確立되어 目下 第一期計畫을實行中인데 時局에鑑하야 다시根本方策의 檢討에도 努力中이다 昨年度에잇서서는 配電의 統制에對하야는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가 成立한것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가 城南電氣株式會社를買收한것 發送電事業에 잇서서는 漢江水力電氣株式會社에 漢江水系北漢江中流部四個地點 二十萬二千八百키로와트의 發電水力二個地點 十一萬七千키로와트의 開發을 許可한것等이 主要한것이고 다시 特筆大書할것은 國有產金送電線路의 建設이다。

產金增產은 刻下의 重大國策의하나인데 昨年부터 內鮮을一體한 產金增產五個年計畫의確立을보아 其手段으로서 昭和十三年度以降二個年의 繼續費인產金送電線建設豫算二千六百萬圓이成立되어 이미 着着建設工事를 進行하고잇다 本送電設備는 國家에서 建設하는點에잇서서 我國으로서 劃期的인것뿐아니라 其總亘長도 約五千三百粁에 達하야 現在 朝鮮에建設되여잇는 送電線路의 總亘長을凌駕하야 그完成은 產金增產計畫의 成否를 左右할만큼 偉大한 貢獻을할것으로 믿는다 또鴨綠江水電及江界水電도 着着其工事가 進行되고잇다。

○

航空事業의 重要性을 事變으로 痛感되게되엿다 東京北京間이 京城을經由하야 一日間에 連絡할수잇게된 것 福岡에서 靑島及上海에 定期便이 開始된것 또 日本航空輸送會社와 國際航空會社가 合倂되어 大日本航空會社가 새로히 國策會社로서 誕生된것은昨年中에잇서서의 顯著한 現象이엇다。

朝鮮에잇서서는 去十月부터京城、咸興、淸津間에 定期航空路를開設하야 每日運行시키어 北鮮과의 交通에 一大轉機를 劃하엿다 또 五月부터는 光州飛行場의開設과同時에 京城、裡里間의 定期航空을 이에延長하야南鮮地方航空의刷新을 圖謀하엿다。

航空機製造事業法은 內地에서는 昨年八月부터 施行되엿스므로 朝鮮에서도 이國策에 順應하야 該法律의 一部를 勅令으로써 朝鮮에 施行하야 該事業에適切한保護、統制를 加하기로 하엿다。

航空은 時代의 寵兒라고稱할만한것으로 그發達을 促進하기爲하야는 飛行場의整備擴充、航空無線電信及 氣象觀測設備의完[illegible]

[illegible]

○

海運事業도 亦是 事變以來 [illegible]

朝鮮의主要한施設로서는 于先 北中支와의 連絡航路로서 新設하고 靑島線、西鮮天津線을 [illegible]

以堂 金殷鎬氏筆

二面에서繼續

그다음 繼續事業에 關한 直轄河川改修費의 贈當額이 五百五十八萬圓으로 漢江 萬頃江 大同江 龍興江 三稀川 東津江 榮山江의改修及 南江放水工事를施行하엿는데 이것도 中小河川改修와 相俟하야 水害對策의 重要部面을 分擔하는것인데 工事는 順調로 進捗되고잇다 그리고前記河川가운데 大正十四年以來總額八百七十萬圓을 投하야 繼續實施한 萬頃江의改修는 昨年에竣功되엿다

그리고 昨年夏期 咸南北兩道에서의 未曾有의 水害對策으로는 豫算百二十餘萬圓으로써 道路河川 其他水害應急과 復舊工事를實施하고잇다

右外에 第二期治道、國防道路、北鮮拓殖道路、風水害復舊工事及道府邑面에對한 國庫補助事業等各種土木事業이 實施되엇는데就中總督의 言明한 五大政綱의一인 鮮滿一如의 表現으로 鮮滿國境橋梁의 架設、鮮滿鴨綠江共同技術委員會의 協定에 基한諸般企畫等 鴨綠江

水力電氣事業

의 企畫實施를보앗는데 土木職員一同의 熱誠잇는 努力及關係官民의 和協에依하야 重大時局에 直面한 多端한 土木事業을 中止함이 업시 [illegible] 遲滯업시 進捗시켜서 無事히新春을 마지하게된것은 진실로同慶히 녀이는바이다。

이제支那事變은 忠勇無比한皇軍의 威力을 徹底的으로 發揮하야 北支에中支에 連戰連勝하야 [illegible]

貯蓄獎勵 自律化必要

勿論 貯蓄을 獎勵한다는것은 將來生活의 豫備를 가르키는것으로 그들을 爲하야 [illegible]

潤製
라이온치마

謹賀新年

意義깁흔新年을 마지하야 全朝鮮라이온치마愛用者諸賢의 健康과 萬福을 비나이다
今年에도 또 라이온치마를使用하야 虫歯와歯槽膿漏를 豫防하시기를바라나이다

라이온치마本鋪
株式會社 小林商店

沙里院

土地鑛山經營 (電一五八) 崔健鎬
興國唐楣社 (電四四二) 崔桓鎬
三榮商會 (電一〇七) 崔瑛鎬
鐵山養鷄場 崔秉鎬
朝鮮日報支局 (電三二一) 崔世環

沙里院 ブラザミシン黃海道分店 西鮮裁縫機商會
和洋裁縫材料 手藝品毛絲類 누비니불 卸製造 文化技藝社 主 朴泰漸
電話三一三番 振替京城一五九〇六番 私書函沙里院一號 電略(ブン)又(八〇)

黃海道鳳山郡文井面龍潭里
朝鮮淺野セメント株式會社

沙里院金曜會

沙里院醫師會(無順)
康昌梧 井上盛隆 李喜在 李定權
李熙鼎 朴先伊 權致順 林昌善
朴春萬 金永祥 李載貞 印廷洙

兄弟ミシン代理店
누비原料 內外毛物類 製造卸商 德昌商會
누비組合長 朴聖默

沙里院 穀物貿易 蕎麥精米
東和商會 主 金泰舘

沙里院邑西里 漢藥乾材 製造貿易
西鮮乾材局 黃圭復

營林署材特約店 小野田セメント一手販賣店
平院商會 代表者 蔡洙巖

沙里院邑
鳳山郷土藝術保存會

京義線沙里院邑本町通
蛇の目帝國ミシン株式會社 沙里院直營分店 主任 安泰福

沙里院本町
手藝材料 直輸出入 製造卸商 天光堂手藝社
電話四〇三番 振替京城七六七番

黃海道沙里院邑西里
누비이불 蚊帳、紬亢 羊皮、毛衣 卸商 韓昌鎬商店

黃海道沙里院邑西里
各種 明紬 毛織 衣裁 각양명주 누비니불 저고리바지
東林商會 趙東燁

누비이불 製造元 沙里院產業社 朝鮮沙里院局私書函二六號

누비니불 製造元 家庭商會 朝鮮沙里院局私書函第十號

天德寫眞舘 主 崔德亨 電二一五番

チエリーミシン朝鮮總代理店
日米ミシン貿易社 電話長四四三番

沙里院邑北里二三五 各種古物貿易商
金成商會 主 金黃鳳

東洋製絲株式會社 沙里院工場

於之屯洑管理組合 組合長 崔健鎬

黃海無盡株式會社 沙里院支店

朝鮮運送株式會社沙里院出張所 所長 松本末吉

黃海道鳳山郡沙里院邑東里
大成實業株式會社 締役社長 康弼祥 支配人 林鳳煥

沙里院消防組

沙里院穀物協會

沙里院驛前 內田組沙里院出張所

邑協議員 朴元綱

邑協議員 楊在夏

沙里院 東邦特產貿易社 電話三一七番

沙里院煉瓦工場 代表 韋章植

沙里院本町 現代家具社

沙里院 蕎麥精米 天一商會 電話一四四番

絹織布木 누비이불商 吳得龍商店 電話二〇八番

沙里院邑西里 穀物貿易 大榮商會 鄭履植 電話一三六番

沙里院 米穀貿易商 三光商會 金永博 電話三一九番

朝鮮京義線沙里院 雜貨貿易委託販賣 普成商會 電話一七六番 電略ブン(フ)

朝鮮沙里院 沙里院材木商會 李胥永 電話二一一番

沙里院 雜貨 石油 鄭在琮商店 電話六六番 振替五三三番

沙里院邑西里 各種帽子 メリヤス 既成服 洋品百貨 億俊商店 主 尹億俊

沙里院 鳳山釀酎商會 電話二二六番 振替京城一九三六八番

朝鮮沙里院 各種洋靴製造 公德洋靴店 皮革部

京義線沙里院本町 三堂省

時計眼鏡 寶石貴金屬 附屬品 阪口時計店 主 朴貞福

沙里院商會 電話四四〇番

穀類肥料 永興商會 金德俊 電四六番

沙里院 ヤキニク スキヤキ 御飯 三喜莊 電三五九

朝鮮黃海道沙里院 貴藥製造 洋藥新藥 漢藥乾材 合資會社 東濟藥房 電話一五六番 振替京城一四九六五番

沙里院東町 白馬カフエー 花月會館

沙里院公立農業學校 職員一同

日滿興業株式會社 沙里院支店

黃海道立沙里院醫院

邑協議員 安君一

京義線沙里院邑 絹織物 毛織物 綿布 海豐商會 主 諸鎭鎬

沙里院邑 鳳山精米所 電三二四

卸賣商 三井物產會社一手特約販賣 京義線沙里院邑西里 共成商會 電話三〇番

沙里院本町 萬興商店

沙里院本町 食料雜貨 卸商 黃海堂

沙里院本町 スミス帽子店

沙里院 日成自轉車店 主 姜日成

製油原料 各種肥料 沙里院製油所 電話一五八番

沙里院市場通 ゴム運動靴 一式卸 大成고무商店 主 朴成均

沙里院飲食店營業組合

沙里院 鮮人料理屋組合 電話三九番

沙里院驛前 中華料理 東華樓 電話二四番

沙里院 漢藥 新藥 廣信乾材局 金仁昊

沙里院 洋藥漢藥 天一乾材藥局 金定淳

沙里院 兄弟商店支店 主任 金彥興

絹織 布木商 金麒鳳商店

京義線沙里院本町通 各種紙物 星商店 電話四四二番

沙里院本町 平和洋服店 主 李順一

沙里院本町 新興洋靴店

沙里院本町 光星堂時計店

沙里院藝妓組合 組合長 李東碧 電話四〇六番

名妓一同(無順)
金錦波 尹春子 徐一仙 朴錦珠 金福姬 金菊香 李半島花 金柳色 宋蓮花 丁壽福 金錦桃 玉翡翠 李錦波 安壽福 全彩鳳 金密花珠 洪順愛 金彩蘭 洪蘭珠 安錦玉 白莊丹 鄭月仙 金弄玉 李景波 李明花

青陽

青陽郡學校職員一同

青陽金融組合長 田在禧
理事 權寧熙
定山金融組合長 鄭寅晃
理事 權寧熙
青陽金融組合 化城支所
副理事 金晃默

定山郷校直員 任哲淳
定山郷校掌議 禹濟九

青陽邑內 司法書士 韓冕洙
青陽邑內 司法書士 朴鍾憲
青陽邑內 司法書士 李榮九
青陽定山市 司法書士 金瓚洙
青陽化城市 司法書士 李種根

青陽郷校掌議 卜錫圭
青陽郷校掌議 崔柄宙
青陽郷校掌議 金元泰
青陽郷校掌議 韓舜敎
青陽郷校掌議 兪在鏞

謹賀新年

青陽飛鳳面 龍鶴釀造場 李儀俊 李載源 趙賢喆

忠南青陽郡化城市場 廣生醫院 醫師 金容俊

青陽邑內 青陽印刷所 柴虎先

忠南青陽邑內 各種肥料 穀類其他商 青武商會 貨物自動車部

忠南青陽邑內 醫師 金基成

青陽邑內 金成醫院 李鍾弼

青陽郡長谷寺 主持 張師一

青陽郡定慧寺 主持 張達洙

青陽郡飛鳳面 李象儀 同郡同面 鄭夏永

青陽郡飛鳳面 兪鳳植

青陽郡化城市 趙源蝦

青陽郡赤谷面 金遠信 任東先

青陽郡大峙面 崔相煥

青陽郡大峙面 黃相浩

青陽郡大峙面長 具泳祖
書記 崔鍾聲
會計 閔晶鉉
書記 兪丁鉉
書記 尹好言

青陽郡青陽面 職員一同

青陽郡美堂市 尹甲善

青陽郡美堂市 三共商會 禹箕命

青陽郡美堂市 美堂鑛山 車龍石 尹明遠

青陽邑內 朝鮮日報青陽支局 朴永文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青陽營業所 電話八番

青陽面職員一同

青陽邑內 李蓮壽

青陽軍粮 李琦憲 青陽邑內 李容應

青陽邑內 精米業 鐵物商 雜貨 三共商會 主 南相玉

青陽邑內 青陽商會

青陽郡定山面長 李正世 外 職員一同

青陽郡 木面職員一同

青陽郡木面 姜永植

青陽郡木面 趙鍾韶

青陽郡化城面 白南俊

青陽郡青陽面 尹台遠 同郡同面 金相俊

青陽郡赤谷面 金鍾奭 同郡同面 辛啓鉉

青陽郡赤谷面 兪鴻濬 同郡同面 兪榮植

青陽郡雲谷市 三山竹物自動車部 池聖璧

青陽郡雲谷市 東春醫院 金商德

青陽郡 雲谷面職員一同

青陽郡斜陽面 徐元善

青陽郡斜陽面 方漢容

青陽郡斜陽面 韓相五 同 韓相烈

青陽郡斜陽面 韓鎣洙

青陽郡斜陽面 崔忠植

青陽郡飛鳳面事務所 職員一同

青陽郡飛鳳面 李來鶴 同郡同面 李殷昌

青陽郡飛鳳面 兪鎭昊

青陽郡化城面 職員一同

青陽郡化城面 安驥老

青陽郡邑內里 月井酒店 宋箕善

青陽郡邑內里 共信商店 鄭庭煥

青陽郡邑內里 金璣衡商店

青陽釀造場

青陽邑內 泰陽醫院 公醫 權泰翊

青陽産業組合 理事 朴昇來

青陽邑內 金健植

青陽校月里 任義範

青陽郡定山面 高明鎭

青陽郡定山市 公醫 李正寬

青陽郡飛鳳面 蔡俊錫

青陽郡化城面 林豐鎬

博川

博川郡邑 外科專門 麗東醫院 院長 醫學士 李永根 電話四七番

豐國製藥株式會社特約店 金千代釀造會社代理店
綿絲綿布 絹織毛織 麻布礦油 卸商 博川邑內 同元興本店 電話四二番

博川驛前 交計 計算加盟店 鐵道局宅扱店
共成運輸組 代表者 李興實 電話三四番 振替京城一八七五二番

博川邑博川面南部洞一七二番地
朝鮮運送株式會社博川代行營業所 代表者 李炳彩 電話三一番 振替京城一四一五二番

博川邑本町 合資會社 金山商會 代表者 金乃源 電話四八番

博川邑內 劇場 博川會舘 主 李龍洙

博川驛前 坑木、松丸太 薪炭 貿易商 兪炅材木店

博川邑內 朝鮮料理 和洋料理 又春舘 主 朴明燦

博川邑 朝鮮料理 青春舘 主 金寧基

博川郡 電話五番

博川面職員一同 電話二〇番

博川金融組合長 博川郡社會主事 吳允贊

博川邑內 平安北道官選道會議員 安井玄兵衛 電話三三番

博川水利組合 職員一同 電話一七番

朝鮮平北博川驛前 各種印刷 高級文具 官廳用達 和洋紙商 大光堂印刷社 社主 宋大光 電話三五番

博川邑 博川醫院 公醫 金禮容 電話一八番

博川郡博川面西部洞 交計 計算加盟店 大昌運輸部 電話一五番

博川驛前 孟北貨物自動車 合資會社 電話一六番

博川 孟中自動車株式會社 博川停留所 電話一二番

博川驛前 絹織生絲紡績絲生產直輸卸 大光機業社 電話三五番

博川邑 藤山釀造所 藤山明治 電話二五番

博川驛前 三光商會 主 徐炳稷 洪淳珠 朴利善 康 電話四九番

博川邑 古鐵貿易商 李相龍

平北博川驛前 材木商 金鳳源

博川邑內 精米 發動機油 モビル油 マシン油 直輸卸 大光礦油店 電話三五番

博川邑內 朝鮮日報博川支局 支局長 吳允贊 總務 金在源 電話四八番

博川警察署 電話六番

博川産業組合 電話二〇番

平安北道博川驛前 東亞蠶絲株式會社 博川出張所 電話二八番

博川郵便所長 大德助次郎

博川 權石臣

博川本町 藥種貿易 濟生堂藥房 主 金

博川邑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博川出張所 李炳模

博川邑 李景學

博川驛前 博陵商會 主 宋公燁

博川邑 柳容鐸

坑木松丸太 薪炭貿易商 金基萬

博川本町 和洋料理 アケボノカフエー 主 權玉順

博川 瀧信正 電話一二番

統營

統營邑貞梁里 金炫國

統營邑曙町 宋秉文

統營朝鮮酒製造同業者組合 理事 卓應朝

長承浦邑鵝洲里 漁業家 陳正律

統營邑吉野町 鎭海灣漁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坂倉浩
取締役 星野政太郎
同 船越惣太郎
同 林轍圭
監査役 姜俊馨
同 高塲豐太郎
同 金思壎

慶尙南道道議員 卓同朝

統營邑新町 方德杓精米所 電話四四番

統營邑道泉里 朴性午

統營邑明井里 朴喜鎣

統營郡廳

統營金曜會

統營業酒製造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卓應朝

統營朝鮮酒造組合

統營稅務署

統營郡棉作改良協會聯合會

統營醫師會

統營張柱漢回漕店 朝鮮商船株式會社 統營取扱店 電話一五二番

統營邑貞梁里 三成精米所 電話二〇一番

統營邑道泉里 學農精米所 主 卓錫朝

統營邑吉野町 新炭米穀 泰信商會 主 諸泰彥

統營邑吉野町 河尙文

統營山陽面 職員一同

山陽面 面長 孔權洙

山陽面 漁業組合 組合長 李鍾熙 理事 金駿榮

統營 光道面職員一同 面長 金宗植

統營郡長承浦邑 邑長 有馬乾 副邑長 河先模

長承浦邑愛浦里 漁業家 趙福錄

統營長承浦邑 長承醫院 院長 李燦雨

統營郡東部面楮坑里 梁泳福

統營郡東部面 朴水永

統營郡東部面多浦里 漁業家 朱聖瓚

統營郡東部面楮坑里 梁永赫

統營郡東部面 陳連安

統營郡東部面山陽里 梁泳僖

巨濟島 全道敏

統營郡一運面知世浦 慈鮮醫院 徐琪石

朝鮮日報

新年號 其九

軍事上使命遂行

이제는産業開發先鋒隊로飛躍

燕京萬里馳驅의寵兒

조선 철도망의 연장발달은 다만 조선의교통에 혁명을 어른것만아니라 아로 딸메아마조선의운명을 한거름 빨리촉진시킨것도 속일수업는 사실이다 평소에는 교통과산업발달에 그중요한동작을 하고잇섯다고 할수잇섯 지내는재작년칠월 지나사변이 여러난뒤로는 조선의철도는 군사상으로 그최대한도의동작을 하고잇다 일본의 병참근거지(兵站基地)로서조고만한 조선의 땅덩이가선폭적으로 중요한 어직을맛개되는 동시에조선의 철도는 그대동맥(大動脈)으로서 어디보다 가장중요성을 가지고 동작을 계속 하고엇는것이다 종래에 경부선(京釜線)경의선(京義線)의두철도는 만주철도와 서비리아철도와 연결하야 서양주라파여러나라로통하는세계의 가장 적경으로써 그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왓스다오놀의 전시에는그보다도 만주와 지나대륙을 건설하기 위한 교통운수에 더욱중대한 선봉의 임무를 하고잇는것이다

조선의 어두갈래의 간선철도야말로 근래에 보기드믄만흔귀염을받고잇는터이다 북지나의점령지역이 점점광정되여감에따라 지난시월일일부터는 부산북경사이에 직통급행렬차가 래왕하게되엿스며 부산신경사이에도 종래에 일왕복이든 급행렬차를 이왕복으로 늘이고 그운전시간도 종래보다 훨신단축시켜서 최대의 속력을 내여달리고잇다 이것은 물론 조선을표준한것보다 내지 조선 만주지나의교통을 한가지 계획미테서 연결되도록 한것이다 려객렬차에서뿐만아니라 만주로 보내는

(하물) 을가장 빨리실어보내기 위하야 급행화물렬차도 한개를 새로 운전하고잇는터이며 하물수송임금도 내지 조선 만주사이에 균일제도로하야 역시 지난시월부터 실시되고잇는터이다 부산북경사이의 직통급행렬차는 번잡히운전시간의 설명을할것도업시 오늘아침에 부산서 아침밥을 먹고떠나면 래일밤에는 북경에 도착하야 편안히 쉴수잇게되엿다는것이다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주와북지나의 심장부로직통하야 대륙건설에 중요한 사명을달성하야 그중의발길을 재촉시키는 공적도크다할수잇거니와 일방으로 근년에 급격히개발되야 조선의자원(資源)에중요한지위를 차지하고잇는 북조선을돌리통하는 경원함경선(京元咸鏡線)철도도 일본미 로서아의 국제정세가 점점긴박하여감에따라 산업으로나 군사로나 더욱이 그사명이중대하여젓다 이것은현재 남만주철도회사에 위탁경영중인 북선철도선과아울러서 만주국 경도선(京圖線)으로 연락하야 만주국서울신경으로 통하고잇다 근래에여경원함경선 철도에언제든지 승객이 만원인것을보아서도 이철도가 점점만히리용되여가를 알수잇다 또

(만주) 만주국방제일선지대인 가목사(佳木斯)로통하는도가선(圖佳線)도조선어북선철도와관계가 밀접하게되여 지난해오월부터는 청진(淸津)으로부터 자목사사이에 직통열차가 래왕하고잇다 또 그리고 지난시월일일부터 경성 청진사이에는종래의 남진방면으로가는 급행렬차와경부이외에 도급행렬차왕복을 증설하야 북조선지방과통북만주방면과의 교통연락을 더욱 편의하게하엿다

이와가티 동북으로는 동북만주와 연결하는 경원함경선철도가 그중요한동작을하고잇고 또남으로부터 서북으로는 남북만주와북지나를 연결하는경부 경의양선의 철도가 뻗나스로 숨을 헐떡이면서 쉬임업는 수송전쟁을펴고잇서서 대륙의 건설사업은 착착진행되고잇는터인데또 금년사월부터는 조선안 만포선(滿浦線)철도도 건설중인대안의 만주국매즙(梅輯)철도와압록강국제철교를 경계선으로하야서로

(개통) 연결되기로되엿다이철도는면선에 잇는개천(价川)순천(順川)지방의 무연탄과 평북벽지의 대삼림을개발하는데에중요한사명을 가젓스며대안의만주국 매즙선은 매하구(梅河口)로부터 즙안(輯安)에이르게되는것으로 이것이 전부개통되는날에는 사평가(四平街)와 길림(吉林)으로통하는 중요한길이될터이며 통화현(通化縣)일대의경비와 국방에도 만흔도움이될터이다

[illegible] 안동(安東)으로부터 장연안으로 따라서 중안이나 또는 통화로연결시키게될 예정선도 건설되는날에는 관전(寬甸)환인(桓仁)지방의 처안도 훨씬확보되려니와땅미테 감초여잇는 금은동속의중요광물도 착착 개발되게될터이다 그리고

(경부) 선、경의선의 복선공사는 삼월까지 에는경부선 남경성 대전(大田)사이와 부산진(釜山鎭)삼랑진(三浪津)사이에는 완전히 개통되게될터이여서 이구간사이에는 열차운전을 훨신빨리할수잇게될터이다 또 경성평양사이의 경의선에도 명년도까지에 수공을 예정으로 방금공사를 진행하고잇는중간이엇다

이밧게 경경선(京慶線)으로통소화십오년도까지에 전통할예정으로 공사중에잇는 경경선(京慶線)은 경북영천(永川)으로부터경성(동경성역)에 이르게되는것으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경기도의 산도를 뚤코 통하게되여 여태까지 처녀가티 따속에 숨어잇는 광물과 농림업(林業)의 개발에 만흔사명을 달성하게될터이다 도중에선철도는현재 북부는 안변(安邊)으로부터 양양(襄陽)까지개통되여잇는데 공사를착착진행중이므로 열방으로 삼척(三陟)지방의 탄광

(개발) 사업과 아울러 점점그기리가 뻐더나갈터이며 소화십칠년도까지에는 경북포항(浦項)부근[illegible]까지 연결되야 완전히 개통되는날에는 동해안일대의어획물(漁獲物)과 광물과 임산물(林產物)운반을 훨신 용이하게될터이며 옛날부터 유명한 관동(關東)팔경과 천하절경 금강산의 관광에도 만흔편의이 잇게될터이다

삼십년전 명치삼십이년구월에 경인간사이에서 처음개통된 조선의철도가 오늘에는 전조선 삼천리에 종으로횡으로 거미줄가티 페여섯다。당시새문화를실고온 이세기(世紀)의 첨병(尖兵)과함께 바다우에는 기선의 진수(進水)가 날로늘고 하늘에는 비행기의 폭음이 요란하기시작하야 그발전은비약의 비약이엿다、이제만주사변、지나사변을 거처 다시금 『병참기지』로등장한조선의 교통망은 한번더 그중요한사명을완성하엿거니와 이제동아의 신질서건설의 역사적사명을향하야 하늘로、땅으로、바다로대륙과의 교통은 드디어일원화(一元化)하게된것이다。

◇……大陸에！大陸에！朝鮮의飛躍……◇

鵬程快翔의"尖兵"

大陸提携의空路全貌

만주국이 생긴것과 지나사변으로인하야 북지정세가 일변함을따라 대륙진출의 국제항공로로서 조선의 항공로는 급속히발달하고잇다 즉소화십삼년 시월정부보조로 설립된 일본항공수송회사는 그이듬해 사월일일부터 내지、조선、만주사이에 매주일 삼회왕복으로 우편물과화물의 정기항공수송을 시작한것이 조선항공로의 시초로서 그해구월십일부터는 손님까지태우기 시작하엿고 소화이년사월일일부터는 매주육회왕복、유[illegible] 십이월이십일부터는 신의주에도 기항하야 그곳에서 만주항공회사의 정기여객기로 만주각지와 대련파도 공중으로 연락하게되엿다 그러나 〃라인〃은 동경에서대판、복강을 거처울산에 들렷다가 경성으로달리와 평양、신의주를지나 만주각지와 연락하는것으로 날마다부러가는 수송량을 소화할수업는것과 내선만의 거리를 최대한도로 단축할필요가잇서서 소화십여년유월부터는 복강─경성선、경성─신경선과 경성─대련선의급행편을 증설하야 매일 일회왕복씩하고잇다 급행편을 이용하면 바다를건너 경성에서 일천사백팔십구키로 동경은 단다섯시간이면 갈수잇고 팔백사십오키로 이천백리되는 신경은 세시간십분、오백오십키로 (일천삼백칠십리)되는 대련은 단두시간이면 갈수잇게되엿다

경성─대련선은 지나사변이후다시 북경까지 연장되며 그곳에서 중화항공회사(中華航空會社)기로 지나각중요도시와 다시금 공중으로 연락하게되엿다

어바께 선항공사업사(鮮航空事業社)에서는 총독부 장려금을어더 소화십일년 시월부터경성─이리선을 개척하야 삼십일편오월일일부터는 다시광주까지연장하야 남조선 개발에 만흔 편[illegible]하고잇고 다시[illegible] 북조선개발에 겨여하고저 작년시월일일부터 경성─함흥─청진선을 신설하야 오백륙십키로를 단두시간오십분에연결하야버렷다 이선은 청진에서만주항공회사와 악수하야 훈춘(琿春)、목단강(牧丹江)등 동만[illegible] 날리신경까지 연락하고잇다

또금년사월부터는 선항공사업사의손에 의하야 경성─해주선이신설되여 (장차는평양까지연장할계획) 일백삼십키로를 단삼십오분에 연락하게되엿고 경성─춘천─강릉선도 한시간에 연락할계획이다 이밧게 경성─광주선의제주도까지 연장 대구─광주선신설(三〇〇키로)、신의주─중강진─청진의 국경선 (五〇〇키로) 등이계획선으로서 체신당국의〃로-칼·라인〃 확충계획에등장하고잇스니 이것이모두실현되면 조선의 상공은 경성을중심으로 사통팔달의 항공망으로더피여버릴날도 그리먼장래는아니다

航空燈臺等

積極擴充中의施設

安全就航의萬全對策

현재비행장으로는 경성、울산신의주、청진、대구、함흥가잇고오산(烏山)、이리、해주가 불시착륙장으로 대기하고잇스며 (작년시월부터는 울산도불시착륙장이되엿다)항공표지는 울산、황간(黃澗)、대전、천안、경성、사리원、평양、정주(定州)、신의주、김천(金泉)、상주(尙州)、강경(江景)、조치원(鳥致院)、음성(陰城)、충주(忠州)、안성(安城)、장호원(長湖院)、수원(水原)、이천(利川)의십구개소에 설치되여잇다

항공용무선설비로는 울산、경성、신의주、청진、대구 강릉을등도에설치되여잇고 항공기상관측도 각지측후소에서 하고잇스며 야간항공등대도 울산、대구추풍령(秋風嶺)、대전、천안、경성(도군데)개성、사리원、평양、정주、신의주에 대형항공등대 [illegible]주、금오산(金烏山)심천(深川)、조치원、오산、일산(一山)、남천점(南川店)、중화 (中和)、영유(永柔)차련관(車輦館)의 각처에 항공보조등대를 설치하야 안전항공에 만전을기하고잇다 이와가튼시설은 금후 적극적으로하야국제항공로로서의 조선항공로의안전성을 확보하기로 되엿스므로 〃항공조선〃의장래는 참으로 주목할만하다

海運朝鮮再出發

交易路四海에擴充

일만지상국의 중계요충(中繼要衝)에 위치하야 연장 구천산백이십오해리에달하는 긴해안선을가지고잇는 조선은 만주국출연을계기로 대륙진출의 병참기지로서 비약적발전을하고잇다 방대한 전력자원개발에의한 내지방적공업과 중공업의진출 산금을 중심으로하는 광업의활황을비롯하야 농수산물의 증산능은조선경제의 설렴을 획기적으로증대하고잇는데다가 어번지나사변의 결과는 대지무역을 중심으로 원양무역에까지 진출케하야 무역액은 실로억원대라는 조선개벽이래의 최고기록을 보히고잇는데 장기건설의장배는 조선의무역을 일층활발하게 할것임으로 소화십사년이야말로〃해운조선〃의 건설사상에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새해로 각방면의기대가 자못 크다。

◇……◇

해운의 대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조선의 항로는 지금어데서 어데로 뻐처잇는가 선진해운국과 달러서 조선항로의대종(大宗)은 총독부의 명령항로(命令航路)로서 근해항로십삼선연안항로이선、하천항로이선、기항항로유선 한계이십삼선이다。

◇……◇

이총독부 명령항로 이십삼선에 올득이고잇는 배는한개구십구척 총톤수 십사만유천톤、수명회사십연사에달하야 조선파내지의 일본해와 태평양연안각항과 지나각항을 연락하는 중요무역로가 되여잇다 이밧게 조선과내지를 매일 연락하고잇는체신성경영의 관부연락선과 지방청 기타의 명령항로어십사선자영항로(自營航路) 일백사십사선을합하면 조선각항구에 드나드는 항로선수는 십삼년시월현재 이백사선 취항선수 삼백오십척에 총톤수 삼십여만톤에달하는성황이다。

조선의 해운이 작금양년에이와가튼 활항을 보히게된것은총독부당국이 작년도에엇서서는주로 신항로계획을개척하야 판개지방민의 다년의요망이든 북조선북해도선을신설한것과 종내에는주로 내지중게바께는 길이업는 조선산 대외수출품에 대하야 조선항구에서 직접실는 직적수출(直積輸出)의 편리를도모하고저 남양인도로 가는 대외항로를 부산에 기항케한것 북조선의 신정세에대응하야 조선상해선을 청진까지 연장하야북조선과 상해방면의 교역을조장한것、다시십삼년도에는 지나사변에의한 북지정권수립을 계기로 조선북지간의 화객의격증함을따라 대련、치푸(芝罘)선을 연천에대련천진선을 인천 진남포에휘비천진선을 부산에기항케한외에수출무역을 촉진하고저 일본한보(漢堡)선을 부산에기항케하얏다 어때문에 총독부의 항로보조총액은 구십팔만원에 달하야전년도에비하야서는 약십산만원의 증액을보고잇다。

총독부당국에서는 장기건설의대지항로를 확충강화하고저 십사년도에는 다시 서선청도 천진 상해의 각선을배가할 계획을세우고 거액의 보조금증액을예산에 게상하엿슴으로 조선의교역로(交易路)는 점차충실하야가고잇는것은 기쁜일이다

◇……◇

그러나 우리는 약진도상에잇는 조선해운에 가로노힌는중대한 고통과 지장이잇는것을 어질수는업다 그하나는 조선자체가 가지고잇는 선박과 해원의부족이요 또하나는 항로표지(航路標識)의 불비다。

십삼년삼월말 현재 등부선박(登簿船舶)수 이천이백이상되는배는 기선이오백륙십팔척에 구만일천배톤 범선이 일천륙십오척사만사백팔톤으로 창업당시에엇처사선삼년에 비하야 선수는 백팔십오활 톤수로는 백삼십구활의 비약적증가가어기는하나 십륙억원대를 바라보는 현재의 무역액으로는너무나빈약한상태이다

언적자원으로서의 해원은 십삼년삼월말현재 조선인륙천륙백오십륙명 내지인사천사백십사명외국인 육십오명 합계일만일천백삼십오명이나 사변이래 유상업무에 경기가조흔 관계로 전직자가 만허가는것은 해운의장래를위하야경시하지못할일이다。

체신국에서는 조선자체의 조선능력을 확충하고저 십삼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부산에잇는조선중공업회사에 대하야 칠천톤급〃도크〃(船渠)과 부속설비의정비 우수직공양성비의 일부로오십만원의 보조를주고 잇는외에 조선사업법(造船事業法)소형선건조조성법(小型船建造助成法)을 발포하고저 연구중 이며언적자원확보를 위하야서는 오는이월일일부터 선원능력신고령(船員能力申告令)을 실시하며선원보험법(船員保險法)을 제정하야 비상경우에처한 선원생활을보장하고저 조사연구중이다

◇……◇

이밧게 조선해운의장내에 중대한영향을미치는 문제로는 체신성과관동군사이에대만(對滿)이민기타 수송관계를일만직선항로강화차로 지금계획중인 일본해해운통제회사 (日本海運統制會社)에 소위북선 〃로-칼·라인〃인 북선신선(北鮮新線)과북선도하선(北鮮敦賀線)을 통합시킬라는 일본해해운일원화문이잇업에 조치못한영향을 준다고하야 반대하기때문에 년내에실현될예정이든 동회사는 의견대립된채로 파쇄를하게되엿스나 이문제가 새해를마지하야 어떠케낙착되는가는 조선해운의 독자적 발전을위하야 큰관심사이다。

洪原

洪原邑 日本生命洪原代理店 鄭良模

貿易商 東鮮商會

月刊雜誌 各種書籍 運動用品 文房諸具 紫文閣書店

朝鮮料理 遊仙閣

洪原邑 沃昌商店 電話三二番

004358

白雲寫眞舘 池文河

咸鏡線前津驛前 洪原釀酒場 電話一四番

洪原邑 洪原撞球俱樂部

三和商會

高級百貨 洪原和信 電話二五番

貿易委託 船具油類 東海物產株式會社 電話一六番

前津發動機帆船 刺網業者組合

赤煉瓦製造 セメント工作 東亞商會

內科小兒科 東西醫院 電話五八番 入院隨意

咸南洪原邑前津驛前 陽春堂藥房

宅扱荷物取扱店 北鮮唯一運輸組

和洋菓子 各種食料 曙屋

咸鏡線前津驛前 丸吉運送株式會社

眼鏡萬年筆專門 金成玉商店

朝鮮咸鏡線前津驛前 東盛木材商會 洪原支店 本店 京城府弟南町二〇

寫眞撮影 三星寫眞舘 李基連

シンガーミシン會社 李瑞洙

洪原醫院 李鍾述 電話十三番

中央理髮舘 鶴林理髮舘 兄弟理髮舘 洪原理髮舘 高等理髮舘 サクラ理髮舘

朝鮮料理 京城舘

洪原邑內 金基炫

唐草材直輸入 都賣散賣 津龍乾材藥房

食料卸屋 芝山商會

洪原前津港 有名賣藥 前津藥房 朴金龍

日光洋靴店

鬼號洪原特約店 東洋自轉車店

咸南洪原邑內 唐草乾材 都賣散賣 洪一藥房

德昌洋服店 金德鎬

咸鏡線前津驛前 北鮮商工運送本店

綿絲布雜貨卸商 鎌田商會

明時堂時計店 金鳳鎭

高級洋服 カナタヤ洋服店

李景在商店

唐草乾材都賣散賣 濟東藥房

洋品百貨 キリン屋 主 申基律

咸興刑務所製品販賣所 廣德商店

農業用具農工具品板硝子 北一商店

丸一運送店

綿布商 盧昇鉉商店 電話五六番

藥種商 洪原藥房 朴燦熙

朝鮮咸鏡線前津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前津代行營業所

咸南洪原邑內 各種金物 セメント石灰 富元金物店

綿布ゴム靴 朴昇龍商店

文化家具 洪原木工所 金贊柱

サッポロビール株式會社洪原賣入所 誠、鶴、白鶴特約店 鄭鍾性商店 電話六番

食料品雜貨 新珍屋

沃昌船具店 主 都晦洙

澱粉麥粉雜穀商 朴在珪商店

漁網船具 崔哲鏞商店

合資會社 咸鏡線前津驛前 間島運輸公司 前津支店

司法書士 朴來弘

司法書士 金福鎭

司法書士 劉鳳南

鑛材金物建築材料 松山商店

司法書士 劉泰吉

洪原飮食店營業組合配給店

洪原金貨組合 電話八番

永和醬酒場 本店 興南邑

製材業 白木商會 電話七番

食料品 興盛屋

洋品百貨陶器 日光百貨店

洋品雜貨 日榮商店

合同貿易

司法書士 朴在明

洪原婦女手藝講習所 手藝品 各種洋品 ミドリ屋

陶磁器 金物一切 都散賣 泰盛商店

前津港 海產物商 新川綾太郎 電話二一番

和洋家具 前津木工所 具乙龍

木炭天然氷 富吉商店 電話六九番

船具商 都範洙商店 電話三八番

咸南洪原南門通 綿布商 金在漸商店

咸興タクシー 洪原出張所 電話四五・六六番

高級洋服 京屋洋服店 朴京鎭

洪原獸肉販賣營業組合

洪原邑 林炳琭

印刷文具 共新商會 電話二五番

手藝雜貨 陳鳳根商店

ラヂオ及工事專門 營電社

合資會社 德興商店 電話特一二番

朝日洋服店 金照準

前津港 海陸物產 委託貿易 李昌鉉 電話二〇番

古物賣買 咸信古物商

洪原邑內 劉鳳翔

呉服專門 東光商店

產婆 崔順馨

朝鮮料理 洪原亭 電話五七番

ガラス一切 左官材料 浩興商店

貿易商 金永台商店

鄭忠鉉自轉車店

襄陽

降峴面長 秋洪燁

縣北面職員一同

襄陽面月里 朴大根

西面西林市 藥材乾物及山上副產物貿易商 東源商店 主 金東源

江原道襄陽郡西面西林市 綿絲布木 各種雜貨 米穀 金物 砂糖 海產物 廣昌商店 主 李昌鎬

東海北部線襄陽驛前 三成商會 李鴻陸

東海北部線襄陽驛前 海陸運送 三和運送店 吳世杰

朝鮮東海北部線襄陽驛前 謙和福 振替京城一〇〇一四番 電話三五番 電信略號(ケン)又ハ(ケ)

襄陽邑 朝陽醫院 醫師 金萬基 電話二十一番

襄陽面職員一同

東海北部線仁邱驛前 一信組合酒造場

西面面長 孫秉煥

東海北部線襄陽驛前 綿絲布木 日用雜貨 都散賣商 金陵商會 主 金周億

襄陽面職員一同

襄陽金融組合職員一同

縣北漁港 海陸物產 新炭都散賣商 崔弘俊

槐山

槐山酒造株式會社 振替京城二〇、七〇〇番 電話一四番

コーセイ石鹼槐山郡特約店 齊藤酒造合名會社槐山郡特約店 第一館 第一館食料品部 電話一八番

槐山トラック株式會社 電話一三番

縣北下光丁里 縣光商店 主 吳世璟

襄陽邑 木材商 李元在

襄陽邑南門里 木材商 金興洙

襄陽邑 襄陽釀酒所 主 金振鎬

襄陽面牛岩里 尹萬重

西面西林市 西林釀酒所 主 金英濟

江原道襄陽邑 綱緞布木 各種雜貨 米穀食鹽 肥料 ゴム靴 新興商店 主 李光默 電略(コウ)又ハ(광) 電話一一三番

襄陽邑 各種木材 運送漁業 興襄商會 主 崔寅植

江原道襄陽郡邑內 ㊀丸一百貨店 電話二六番

襄陽邑 布木雜貨 東信商店 主 李東均 電話一九番

襄陽邑 酒類 新炭 問屋 東洋商會 主 孔錫煥

襄陽驛前 木材商 朴元秉

襄陽邑 仁化堂藥房 主 金泰鎬

降峴酒廳里 酒廳釀酒所 代表 張鳳煥

襄陽面造山里 三星製瓦工場 代表 崔容琪

襄陽金融組合 元下丁支所 副理事 洪性龍

襄陽邑 和洋料理 支那料理 中華屋食堂

東海北部線襄陽驛前 木材商 朴永植

巽陽 柯坪市 咸鉉式

西面西林市 西林理髮舘 主 金德鎬

治書面 面長 金泰河

裵中欠禮 文光公立尋常小學校 校長 黃世淵

長篇小說

薄命 (175)

韓龍雲 作
鄭玄雄 畵

이혼 (二〇)

「지금 자정이 지낫는데 주무시는것을 요란스럽게 깨워서 미안합니다」

순영이는 문을여러던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서눈을 비비고 나오는 의사에게 인사말을하얏다

「관게 업습니다 병원에는 그런때가 흔이 잇습니다」

의사는 말하고 진찰실을 둘러본다

「이애를 좀 보아주세요」

순영이는 업은 수복이를 조심스럽게 나려노으랴 할때에간호부가 드러와서 바다준다 자는드시 업드려잇든 수복이는

「오아!」

하고 울엇스나 우름소리가 힘이 업섯다

「이애가 어데서 그럽니까?」

의사는 수복이 얼골을 보면서 얼골을 찡그리고 뭇는다

「이애가 놀래서 경풍이 돼서요」

「어제요?」

「바루 아까 그래서요」

「웨 무엇에 놀래서요?」

「이애 아버지가 술을 자시는데 아까도 술이 취해서 드러와서 말소리가 조금 노팟는데 자다가 별안간에 놀래어서 눈을 뒤집어쓰고 게거품을 흘리고 하더니 이모양이 되얏서요」

하고 기운이 업시 우는 수복이를 달랜다

「청진기를 가저와요」

하는 의사의 말에 간호부는 자기가 진작 할것을 이저서미안하다는드시 고개를 숙이고빠른 거름으로 갓다 놋는다。

「오냐 관계찬타 가만히 잇거라」

의사는 순영이와 간호부가부뜰고 달래어도 울고 날뛰는수복이를 얼려가면서 여러곳을진찰 하고서 청진기를 노터니

「놀래어서 동풍이 되얏군이요 혈압(血壓)이 놉픈데요」

하고 체온기를 수복이 저드랑미테 넛코 조금 잇다가 내어 보더니

「열은 그다지 파하지 안군요」

하고 진찰을 마친다

「그러면 어떠컷서요?」

순영이는 걱정스럽게 뭇는다

「놀래기는 대단히 놀래군이요 그래서 동풍이 되고 혈압이 노프나 열은 그다지 파하지 안습니다」

의사는 아까 하든말을 되푸리할뿐이오 결과는 말하지안는다

「그러면 쉽게 나을까요?」

「약을 먹고 치료를하면 차차 낫겟지요」

「그리케하면 낫기는 낫겟서요 별일은 업슬까요?」

순영이는 칠분의 절망과 삼분의희망을 가지고 뭇는다

「병이라는것은 고치면 낫는것이니까요 별일은 업겟지요」

의사는 열이업는 우숨을 웃고서 회제를 써서 간호부를주니 간호부는 그것을 들고서제약실로 사라진다

「그런데 병이라는것은 약도약이지만 집안에서 치료를 잘해야 하는것 이니까요 약도 먹이려니와 아모쪼록 안정하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가만히 잇는것이 제일입니다 너무 충이지도 말고 말가튼것도 시키지 말고 거저 몸어나 마음을 움직이지말고 안정하게 하십시오 무슨말을 무러쌋는다던지、가령 아푸냐? 안아푸냐? 배가 고푸냐?무엇이 먹고시푸냐? 기외에도 무슨말이던지 자꾸 무러서 말을 시킨다던지 제동무들이 와서 여러히 와서 떠들고 작란을 한다던지 그러면 안될겝니다 그리고 조금 이라도 흥분되게 하면 더욱 못씁니다 나무랜다던지 제비위를 거슬려서 골이나게 한다던지 그러것이 다 못쓰는것 업니다 또 너무 질거웁게 하는것도 자미 업습니다 하니까 어쨋던지 안정하게 하십시오」

의사는 의사답게 자세히 설명하고 안으로 드러간다

간호부는 물약과 가루약을 가지고 오더니

「진찰료한지 모두 삼원오십전 업니다」

하고 순영이아페 놋는다

「에그 돈을 안가지고 왓는데 어떠케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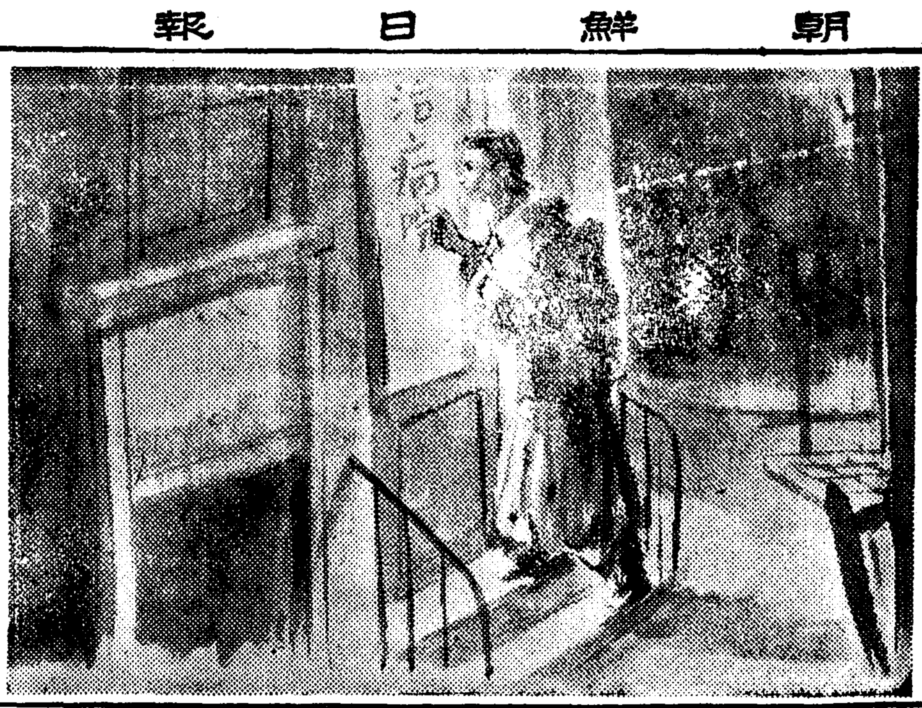
순영이는 미안에 차서 말한다

「안가지고 오섯서요 그럼 조금만 기서요」

하고 안으로 드러가더니 곳 나와서

「그러면 후일에 가저오시오」

하고 수복이를 업혀준다



榮山浦

羅州郡公山面新谷里 壽鶴山金鑛事務所

靈岩郡新北面月坪里 蔡基錫金山事務所

三名金山事務所

羅州郡旺谷面 世鳳金鑛事務所

鳳旺金山事務所

京城府昌信町六六八ノ一三 金世鉉

木浦府南橋洞七六 務安郡海際支所 羅州郡洞江支所 金阿鑛業事務所 鑛主 金鳳奎 外職員一同

木浦府南橋洞八八 木澤力藏

公山面南昌里 南城鑛務所 代表 金亨燮

榮山浦邑 朴東憲

旺谷面 道會議員 崔榮哲

榮山浦邑長 李圭逢

榮山浦邑 會議員 尹成潤

榮山浦邑 會議員 金明奎

榮山浦醫院 公醫 崔翼鴻

榮山浦邑 片倉生命代理店 金炳彩

榮山浦邑 李東起精米所

全南榮山浦邑 海陸物產貿易委託業 李處洪 李圭鶴 電話五十番

朝鮮料理 榮樂館 主 金炳五

榮山浦邑 米穀商 金奉祺

羅州郡旺谷面松竹里 金洛昇

面長 吳大善 洞江面職員一同

羅州郡洞江面月良里 潘南金組 洞江支所

公山面東村里 公山酒造場 主 羅道彩

世鳳金山 平田組作業所

細枝面 協議員 李仁釆

細枝面 學校組合評議員 李敎洌

日鑛李起玉作業所 金鳩洙

公山面新谷里 金陽洙

洞江面仁洞里 吳辰善

羅州洞江面月良里 曺判鉉

洞江面仁洞 崔萬化

洞江面良池 朴福煥

洞江面仁洞 鄭雲會

羅州公山面令谷里 李載煥

公山面令谷里 金明洙

朝鮮料理 萬德館 主 金有澔

榮山浦邑 李容佑 電話五八番

榮山浦邑 昌慶醫院 院長 李相烈

全南自動車株式會社 常務取締役社長 板本由藏 電話三〇〇番

旺谷面長 辛奉奎

旺谷面本良里 細川卯之助

任實郡靑雄面南山里 韓康洙

公山面職員一同

潘南面職員一同

潘南金鑛事務所

潘南市場 權醫院

榮山浦邑 會議員 金秉柱 電話二二番

榮山浦邑 會議員 金東赫

羅州旺谷面松竹里 羅州鑛山事務所

洞江面月松里 梁鳳述

洞江面良池里 閔丙福

公山面令谷里 國防義會支部長 金君玉

光州府大正町一三三 梁奇枰

榮山浦邑 電話四八番

全南榮山浦邑 朴炳鎭 電話一八番

榮山浦邑 劉箕鍾精米所

旺谷面松竹里 吳進 金思錫

世鳳金山 崔榮載作業所

細枝面 職員一同

公山面 協議員 金炘洙

羅州公山面 協議員 金俊培 金鍾仗

潘南小學校職員一同

公山面 協議員 金奉洙

榮山浦邑 普興運輸組

コロンビア蓄音器會社特約店 玉泉堂蓄音器店 朝鮮全南榮山浦郵便所前

榮山浦邑 羅洪均

榮山浦邑 崔金童

榮山浦邑 曺仁鉉

榮山浦邑 洪祐宗

榮山浦邑 金錫岩

榮山浦邑 綢緞布木 金三文商店

榮山浦邑 陳泰希

榮山浦邑 酒類販賣業 車萬燮

榮山浦邑 徐元喆

榮山浦 綢緞布木商 朴珍相

榮山浦邑 張學彩

旺谷面 黃龍基

榮山浦 阿部萬吉

榮山浦農業倉庫 岩瀨紀一郎

榮山浦 永信木工場 元順榮

榮山浦邑 李寬雨

榮山浦邑 李昌午

榮山浦邑 曺四才自轉車店

榮山浦邑 李明奎商店

榮山浦邑 綢緞布木 徐圭善

榮山浦邑 金城商會主 李東雨

榮山浦邑 骨董書畵 朴龍太

榮山浦邑 榮興運送店 電話一二一番

榮山浦邑 尹香根

榮山浦倉庫運輸株式會社 內山政雄

榮山浦邑 榮美洋服店 金在三

榮山浦邑 永興木工場 李鍾煥

榮山浦邑 表具師洗心堂 朴載繼

榮山浦邑 菓子製造業 蔡台默

榮山浦邑 大興紙物商 崔相燮

榮山浦邑 榮山木工商會 李大興

榮山浦邑 骨董書畵 李文三

榮山浦邑 徐致壽

榮山浦邑 崔宗實

榮山浦邑 李桂鎬

榮山浦邑 榮山洋服店 姜大俠

榮山浦邑 電氣器具商 金順玉

榮山浦 金在完

榮山浦 綢緞布木商 朴洙一

洞江面曲川里 學校評議員 朴佳相

洞江面月良里 李宰魯

洞江面玉亭里 鄭奉達

洞江面月松里 梁源彩

洞江面良池里 鄭遇丙

洞江面曲川里 朴圭相

洞江面月良里 金承斗

羅州郡公山面 公山醫院 金東默

羅州郡多侍面竹山里 李正範

榮山浦邑二倉里 李起春

羅州郡金川面烏江里 果樹園主 金炳語

羅州郡旺谷面玉谷里 面協議員 李承珍

榮山浦 精米業 金鶴年

旺谷面月川里 柳永斗

旺谷面德山里 黃福元

旺谷德山里 梁在仁 黃福元

細枝面長 李大奎

細枝面五峰里 金光俊

公山面 協議員 金其洙

公山面 協議員 金泰洙

潘南市場 羅夏集

羅州公山面新谷 鑛業 金重鉉

新谷

新谷里 李善夏 洪在福

新谷里 有志 金容圭

新谷里 黃義南

光山郡松汀驛前 具漢英

新谷里 吳英

新谷里 朴勝彩

新谷里 金相洙

新谷里 李鍾仁 金貞澤

新谷里 金日錫

新谷里 金官洙

新谷里 權成鎬

新谷里 崔壽鉉

新谷里 李德陳

新谷里 金龍範

新谷里 任仲在

朴鳳圭

改良書堂

李相善 姜米峰

梁昌和

金珍洙

田晋龍

金鳳瑞

柳寅贊

金永來

新北

羅州郡公山面上方里 鄭文甲

羅州郡潘南面新村里 金千謙

靈岩郡新北面西谷里 金在燮

靈岩郡新北面西谷里 李啓洙

靈岩郡新北面酒造場內 白準基

靈岩新北 司法代書士 申序坤

靈岩邑內靈岩醫院 公醫 孫在欅

靈岩郡 新北金融組合 職員一同

靈岩郡 德津面長 崔基燮 外職員一同

靈岩郡 新北面長 柳寅龜 外職員一同

靈岩郡廳 職員一同

靈岩郡新北面葛谷里 閔丙淑 閔丙鉉

南平

羅州郡南平 南平酒造場 朴

南平 朴興植

羅州郡南平面 職員一同

羅州郡南平面南平里 朴貴敦

羅州郡山浦面內基里 崔鎭泰

羅州郡茶道面德林里 尹榮善

南平面東倉里 姜奉化

南平 藥種商 金炳釆

南平面公立尋常小學校 李東華

南平代書聯合會

羅州郡南平邑本町一五七 酒類 雜貨 金城商會

羅州郡南平面東倉里 權仁洙

南平里 各種紙物商 金錫奉

南平面南平里 綢緞布木商 朴貴敦

羅州郡南平面驛前 申載煥

羅州郡山浦面等樹里 金成伍

羅州郡山浦面新道里 金英唆

羅州郡山浦面德禮里 韓百彦

羅州郡山浦面德禮里 黃炫性

羅州郡山浦面德禮里 文麟釆

茶道面 職員一同

茶道面松鶴里 洪明憙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丙憙

茶道面大草里 韓斗敬

羅州郡茶道面 崔盤石

羅州郡茶道面楓山里 洪起昌 喪中欠禮

明川

吉州郡東海面東湖洞 李錫在

明川花台市 花台酒造合名會社

明川郡 下古面漁業組合

明川郡下加面東洞 劉秉文

明川郡下古面東湖洞 下古面漁業組合長 金泰瑤

千代田火災保險代理店 昌煥

明川花台市 許勳哲

明川商坪市 崔碩鍾

明川郡下古面東湖洞 黃泰烈

明川郡下古面士兵洞 金鳳俊

明川西浦港 劉舜七

阿間

阿間金融組合 組合長 太明輔 理事 陳泰琬 理事 尹在鎬 書記 金永燦 書記 太鎔活 書記 金澤龍 書記 張斗彰 書記 李明宰 書記 太昌成

明川郡阿間面事務所 面長 太明鵬 書記 玄炳哲 書記 崔泳俊 書記 太鎔澤 書記 金松岳 書記 崔星奎 書記 金君福 書記 宋鋼彦 技手 李泓龍

咸北明川郡阿間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東興商店 主 太鎔俊

咸北明川郡阿間市 黃谷郵便所長 清水與市

咸鏡線古站驛前 綢緞布 雙成興

明川郡農會古站穀類精選場 勞働組一同

咸鏡線古站精選場 金雪松

咸鏡線古站驛前阿間市 綢緞布木 牛皮 金吉龍商店

咸北明川郡阿間市 和洋雜貨 穀物 金得善商店

咸鏡線古站驛前阿間市 食料雜貨 和洋菓子 製造大豆 滿洲粟 其他 金嚴俊商店

咸北明川郡阿間市 和信運送店 綢緞布木 和洋雜貨 金得活商店

咸北明川郡阿間市 海陸物產 委託販賣 明信商會 主 金泰昌

明川郡阿間面德昌里 和洋雜貨 酒類販賣 德興商店 主 金明烈

明川郡阿間市 代理店 太奎煥商店

漁佃洞 金日南

咸北明川郡阿間市 綢緞綿布 共信商店 主 李明壽

咸鏡線古站驛前 穀物貿易 古站穀物商組合 (大)穀物商組合運送部

明川郡上加面 金益鍊

明川西浦港 張星五

明川花台市 許昌瑞

明川西浦島港洞 金希燮

吉州郡東海面東湖洞 崔順甲商店

吉州郡東海面東湖洞 李炳龍

明川花台市 天命堂藥房 主 金一種

中江鎭

阿間世一堂乾材藥房

平北中江鎭 百貨店 和信 電話一六番

平安北道中江鎭 孫泳洙 孫醫院 電話二一番

中江印刷所 詩建設社 平北中江鎭 電話三二番

平北中江鎭 李官浩

平北中江鎭 朝鮮運送株式會社 中江鎭營業所 電話五〇番

平北中江鎭 運送部 代理店 朴秉燁

平北中江鎭洞口市 人蔘皮物 藥材專門 廣新商店 主 鄭文三

平北中江鎭 禹鳳燮 電話一七番

咸鏡線古站驛前 木材商 金哲信商店

喪中欠禮 朴明煥

咸鏡線古站驛前 ㊀九一運送店

明川郡阿間市 金學泉

明川郡阿間市 綢布商 金榮弼

咸鏡線古站驛前 木材商 金學洙

咸北明川郡阿間市 有名賣藥 和洋菓子 酒類 食料 雜貨一切 金得春商店

咸北明川郡阿間市 綢緞布木 義信商店 主 崔學逢

明川郡阿間面漁佃洞 阿間精米所 主 金九範 金九容

咸鏡北道明川郡阿間面 申泰勳

咸鏡北道明川郡阿間面 黃谷殖產契 巨門殖產契 讀浦殖產契 背嶺殖產契 萬戶殖產契 漁佃殖產契

中江新成學校 校長 鄭恒鎭

臨江縣中富街 久田商店出張所 電話一〇番

臨江縣西桓街 自動車部分品販賣及修理 日滿自動車工場 孫泳浩

臨江縣中富街 海陸物產委託販賣 永隆號 主 李英俊

臨江縣中富街 海陸物產 穀物貿易 信合公司 電話一三八番 主 李昌宣

臨江縣中富街 日乃出カフェー 主 姜信喆

臨江縣中富街 公認寫眞師 木公司指定 東洋寫眞館 主 鄭寶道

滿鮮洋行 電話臨江二二番 朴萬

臨江縣中富街 宇利洋服店一同

滿洲國通化省臨江市興隆字街 時計及貴金屬 卸商 天光堂 芮鳳奎

滿洲國通化省臨江市興隆街 活版印刷 印章彫刻 卸商 天光堂 金炳泰

汭川

汭川 唐津郡教育會

唐津郡汭川 辛長鉉

汭川消防組

汭川市 雜貨商 趙昌源

汭川市 行政代書士 黃潤秀

汭川市 華商 呂德茂

汭川 具命書

汭川市 旅人宿業 朴順天

汭川市 華商 宋有寶

汭川市 精米業 金榮植

汭川 李海喆

汭川 李學珪

汭川 徐奎錫

汭川 吳龜泳

汭川 印東洙

汭川 入江秀夫

汭川靈塔寺 住持 全西耕

順城 尹柱承

順城 辛宗鉉

順城 李漢永

順城 金永達

順城 黃貴成

順城 吳斗泳

長篇小說

愚氓

朴泰遠 作 洪祐伯 畵 【197】

쫏기는몸（２）

황황하게 영정전집까지 돌아온 대원님은 구경득과 심봉사에게 간단한 분부를 내리고 자기는 곳 안으로 뛰어 들어갓다。

『아이 퍼그나 정글게 돌아오시는군요。』

정조타 잠시 본부에 와서 요사이 음천이와 더부러 대원님을 모시는 장봉자는 그때까지 자지안코 잇다가 분주하게 그를 마저드렷스나 즉시 사태가 심상치 안혼것을 직각하고

『웬일이인가요? 무슨 일이생겻시까아?』

근심스러이 미간을 찡그리고 물엇다。

『응。』

대원님은 한마디 할뿐으로, 직시 자기방으로 들어가 문갑을 열엇다。

모든 서류―, 지방에 잇는 간부에게서 온 일체의 통신, 삼십년간 백백교의 간단한 범죄기록, 그는 그것들을 한뭉텅이 끄어내며,

『화로를 좀 주어。』

여러서, 자세한 영문을 모르는채 혼자 가슴을 두근거리고 잇는 봉자에게 명하엿다。

화로가 자기 아페 운반되자 대원님은 그우에 서류뭉텅이를 차아 올렷다 불은 얏사리 당기고 모든 서류는 성히 불꼿과 연기를 열으키며 탓다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며 대원님은

(내가 너무 경솔하엿지…)

하고 스스로 뉘우처보앗다。

전영이의 여튼 꾀에 넘어가자기가 섯불리 그와 만나고 그리고 그결과 이처럼 낭패하지 안흐면 안되엇던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또 슬프기 전에 먼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업섯다。

따저본다면 자기의 잘못은단순히 이번에 전영이를 만나본것에 잇는것이 아니다。

(그놈이 불온한 생각을 품고 잇나보드라고 변려사의 보고가 잇섯든 때―, 최주부가 죽은뒤 그 즉시 처치를 하여버렷서야만……)

그래서야만 할것이엇다。

(그때 근동위의 말을 들엇더면……)

대원님은 지금 조원순의 말을 듯지 안힛든 그까닭에 이처럼 낭패를 보는것을 기괴 뉘우치지 안흘수 업섯다。

삼년을 지내온 장봉자는 그이상 더 무를려고도 안하엿다

그는 대원님의 명령대로 옷을 내여노코 그리고 자기는 경대아프로 가서 약간 흐트러진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고서일어나 두루마기를 끄내 입엇다

그모양을 흘깃 보고 대원님은 속으로 망살거렷다。

(저애가 왜 저러누? 따라나서겟다는 말인가?…)

가득이나 한데, 더구나 계집을 데리고 어찌할것인고?―마음에 거정이 것스나 그는 순간에마음을 정하고,

『나허구 함께 시골루 가겟나』

『예―』

『그러세。』

대원님은 한수 사진첩의 마지막 한조각이 완전히 재가되는것을보고 곳하로아플 떠나재빨리 옷을갈아 입엇다。

어느정도까지 교의 비밀을알고 잇는 장봉자를 그대로 이집에 남겨노코 가는것의 위험을 그는 늣겻든것이다。이제 금방이라도 사직(司直)의 손은 이집에미칠것이요 그때에 이계집의 입에서 어떠한말이나 나올것인지, 그것을 그는미리 헤아릴수가 업섯다。

(하여튼 데리고 나서자。)

대원님은 우선 그러케 방침을 세웟든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르러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잇스랴?

일체의 서류가 완전히 한줌의 재로 변하엿슬때 그는 황황히 자리를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문갑속을 뒤지어 한수의 사진첩을 차자내엿다。

(하마트면 이즐번 하엿다。이것을 남겨두엇다가는 큰일……)

그러나, 사진첩은, 무어, 인찰지나, 봉투나, 편전지……그러한 것들과는 달라서 불이 쉽사리 당기지 안혓다。그것을 초조하고 당황하여 미친듯이 석냥불을 그어대고 그어대고 하며, 그는 한편으로는 장봉자에게갈아입을 옷을 내여노흐라고 명하엿다

『아 어방중에 어델 가시나요?』

『응』

『어델요?』

『시골루……』

비밀속에 제몰도 파뭇처서삽

鎭南浦

朝鮮精米株式會社 鎭南浦支店
齊藤精米株式會社
三成精米所
吉善精米所
合資會社 新井商店
清水精米株式會社

鎭南浦 尹致權

丸ナ穀物協會 鎭南浦府三和町五拾九番地

映畵常設 衆樂館
百貨店 萬貨昌

鎭南浦 劉泰彪

鎭南浦府碑石里一九一 株式會社 三和組 社長 姜偉情 電話 二一二・三六二・五六八番 電略 サンワ

朝鮮鎭南浦府月見町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鎭南浦支店 電話 一〇番 八二五番

株式會社 和信鎭南浦支店 代表電話長五七〇番 振替口座京城五五九一七番

鎭南浦楓井小學校通リ 齒科專門 文化醫院 電話八一四番 院長 京城齒科 醫學士 柳成璡 出張部長兼 京城齒科 醫學士 徐丙瑞 技工師 三名 外四名

鎭南浦府外文化果園 朴文爀

鎭南浦商工會議所

鎭南浦龍井里 魯起元

鎭南浦 平南道會議員 黃潤

鎭南浦三和券番 電話 五二一・八四三番

鎭南浦府碑石里 棉絲布 絹布商 白南薰商店 電話 五四六・五四七番

鎭南浦 日本鑛業株式會社 鎭南浦製錬所

鎭南浦府廳職員一同

鎭南浦産業組合

鎭南浦榮町 あかつき

殷成洋服店 加工綿布 洋服裏地 附屬品商 鄭基洽 鎭南浦驛通リ 電話二七六番

鎭南浦億兩機里 府會議員 趙定鎬 電話一二三番

鎭南浦三和町 船具 塗料 鐵建築金物 田邊商店

李鍾燮

鎭南浦果物興業株式會社

鎭南浦三和町 朝鮮商工株式會社

張內外科醫院 醫學士 張晦善 醫學士 張益禧 電話四六九番

鎭南浦府明峽町十番地 株式會社 養信商會 取締役社長 趙鳳翼 電話八四五番

鎭南浦府私立學校 職員一同

鎭南浦無盡株式會社

鎭南浦畜産株式會社

朝鮮平安鐵道株式會社

鎭南浦府明峽町 松丸太 原木 東和材木商店 電話二九番

齒科專門 金子齒科醫院 院長技工擔任 金用琱 齒科醫師 石田正喜 外二名 電話五七四番

鎭南浦碑石里 光成堂藥局 電八二八

鎭南浦警察署 職員一同

鎭南浦後浦里 東洋舘

鎭南浦府會議員 尹炳七

鎭南浦 平安木材株式會社

鎭南浦 信益社

鎭南浦公立學校 職員一同

鎭南浦府新興里 家具 建具 寢具一式 子供具一式 貸付業 東洋商會 宋元道 電一〇二三番

鎭南浦府 金殿玉木材商店 電話五五八番

鎭南浦 龍井醫院 李顯柱

鎭南浦 尹基元

鎭南浦 三和醫院 院長 金養植

鎭南浦 商工會議員 周東益

鎭南浦府碑石里 浅野スレト金物農具ペイント一式 朝鮮金物商會 主 嚴鎬淑 電話三七八番

鎭南浦府碑石里 加德組 金炳文 電話六五四番

日本製粉株式會社 鎭南浦工場

鎭南浦府龍井里 司法書士 徐周善事務所 電話七三二番

鎭南浦府三和町 材木商 昭和洋行 代表 奧卯三郎

鎭南浦龍井里 公和商會 代表者 尹致權

朝鮮製粉株式會社 鎭南浦工場

鎭南浦府碑石里 內科 小兒科 德濟醫院

鎭南浦 朝鮮料理元祖 明月館 電話三四九番

鎭南浦後浦里 金斗玉

鎭南浦汽船株式會社

鎭南浦 海東醫院 院長 林鎭海

鎭南浦漁業組合

鎭南浦信一會社 代表社員 林柏敦 支配人 馬鼓坤

河村國助

鎭南浦碑石里 天光堂藥房

鎭南浦三和町 柳良植

鎭南浦 青木組

鎭南浦府明峽町 白新炭商店 白能周 電話九六〇番

鎭南浦府會議員 林禮根

鎭南浦 大同礦油店 張時曇

鎭南浦 黃致秀

穀物貿易 委託販賣 南一商會 康完用 電話七〇一番

鎭南浦碑石里 正信社 李漢垣 電話 長二七三八番

眼耳鼻咽喉科專門 金醫院 電話八〇三番

鎭南浦 古賀醫院

平安南道立 鎭南浦醫院

鎭南浦 桂麟國

鎭南浦 鮮人貸座敷組合

鎭南浦龍井里 綿絲 布木 東一商店 電話一五七番

鎭南浦客主組合

鎭南浦 光成商會 李在成

鎭南浦府龍井里二五番地 鎭南浦合同タクシー株式會社

鎭南浦 三和牧場

鎭南浦仲介組合 電話一三五番

鎭南浦 穀物檢査所 鎭南浦支所

鎭南浦 高弼寬

永登浦

京城府道林町四〇三 朝鮮專賣局アベマキ樹皮年間使用量八百萬瓩（アベマキ樹皮高價買入） 特許國産化學コルク製造元 大阪龜田コルク京城工場 電話永登浦二五三番

004359

三和釀造株式會社 取締役會長 白寬永 取締役社長 李昌云 專務取締役 崔俊永

京城紡織株式會社永登浦工場 工場長 金奎善

煉瓦土管 土瓶製造 精米業 李昌云 電話（永）事務所 二五四 工場 二二五 自宅 三四〇

昭和麒麟麥酒株式會社 工場長 坂口重治

朝鮮麥酒株式會社 工場長 靑井廉一郎

朝鮮皮革株式會社

大方町 番 京永精米所 電話（永）六五番

京城府永登浦町四二五 司法書士 高武爀 振替京城八九二〇番 電話永一五五番

永登浦天主教會 徐起昌

始興釀造所 趙斗熙

永登浦新村 新明醫院

始興郡君子面吉毛里 安養金融組合支所

始興郡君子面月串里 崔載男

南京城驛前 永陞樓

永登浦町 鴻盛樓

南京城驛前 清一堂漢藥房 金亨坤

京城永登浦町三〇ノ二一番地 米穀商 洪淳麒

京城永登浦町四二番地 仁化堂藥局 白奎鉉

南京城驛前 山城屋洋服店 金點壽

京城府永登浦町 穀物 綢緞 和洋雜貨 申敬植商店 電話（永）一三一番

大方町 暖房完備 法德溫泉株式會社

京城府本洞町二二〇 百貨 都散賣 馬相文 電話（龍山）一三九二

京城府 永登浦出張所

南京城驛前 永登浦會舘 撞球部 電話（永）二二四番

飲食 全光益

永登浦町四四七ノ五 指定 工場會社 大昌旅館 柳先允 張所鴻

永登浦 李允弼

京城永登浦 飲食店組合

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 丁學鎭 朴容三

堂山、楊坪、楊花町 總代 朴寅德

永登浦新村 永信材木店 郭岐鳳

陽東殖産株式會社 大谷健介 長谷川修弌

永登浦町四七四番地 綢緞布木 和洋雜貨 紙物類 都散賣商 朴榮商店 主 朴龍人 電話（永）一六六番

朝鮮日報永登浦支局 支局長 南廷彩 總務 金敏植 記者 李鍾鳴 記者 李子順 經理部 崔永學

京城又新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喪中欠禮 李建麟

京城商工會議所議員 李斗用

梁津 肛門病專門 金剛醫院 沈容求

金浦、始興、富川郡三面 總代理店 卸問屋 永生堂藥房 朴性喆 李商麟

南京城驛前 諸會社用達 永一寫眞舘 吳炳文 電永登浦二二四番

永登浦 カフエー組合

南京城驛前四一三 新永工務所 崔秉承 林圭鳳

始興郡君子面城谷里 尹鍾大

始興郡君子面去毛里 朝鮮酒造場 丁吉燮

喪中欠禮 始興郡君子面 李明奎

始興郡君子面去毛里 東一百貨店 金義泰

南京城驛前 國榮商店 主 黃癸鎬 電話（永）二六六番

始興郡君子面月串里 李凡秀

始興郵便所 金相敦

南京城驛前 食料品部 大東商店支店 主 盧容鎬 電話（永）三五番

南京城驛前 裕豊商會 主 金點鈞

南京城驛前 永登旅舘

南京城驛前 綢緞布木 洋服既成品代 黃仁鍾商店 電話 永登浦 二六七番

南京城驛前 牛皮貿易 米穀商 金龍根商店 電話 永登浦 三三九番

京城府永登浦町 金鳳城商店

京城府永登浦町四六九番地 綢緞 布木 雜貨 崔昌培商店 電話 永登浦 二三五番

南京城驛前 大中商會 電話 永登浦 二二二番

大成鑄物工場 鄭完燮 電話 永登浦 三〇八番

京城府道林町一六八 精米業 林聖澤 電話 永登浦 三三〇番

永登浦町 永登閣 電話永登浦二一九番

始興郡君子面月串里 金鎭泰

京城府永登浦五二四 工場 盧承祖 電話（永）三〇二

永登浦洋服店 朴俊燮

始興郡新東面良才里 新東興廣組合

京城府永登浦町 紳士服 注文服 既成服 メリヤス 各種雜貨 大阪商店

京畿道會議員 金敏植 電話 永登浦 一四九番

白川

株式會社第一白川溫泉直營 溫泉ホテル 天一閣 電話白川五番

京西自動車株式會社 白川溫泉營業所

延白郡金山面仙岩里 金山藥酒釀造場

紅峴金融組合長 李宣稙

銀川面事務所 職員一同

白川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朝鮮産業株式會社 白川出張所

白川幼稚園 劉在冕

白川溫泉 藝妓組合 電話四番

白川邑 劉在崙

白川 吳延根

白川溫泉 朝鮮旅舘 電話三五番

開城蔘業社 延白精米所 電話一二番

綢緞 布木 明順吉商店

白川溫泉 第一舘

白川溫泉 大興旅舘 電話三三番

白川人力車部 電話二八番

德興精米所

柳在漢

柳在憲

牡丹江

滿洲國牡丹江平安街十四、十 建築請負 住宅設計 建材販賣 ㊕朝鮮建築社 安載斑 電話二九九八番

滿洲牡丹江西長安街 圖書文具 運動器具 和洋紙類 準源書店 電話二五二八番

牡丹江金鈴街 農事經營 精米業 特產貿易 合資會社 三和商會 電話二一一〇番

牡丹江省西牡丹街十二ノ五 各種瓶類 洋燈一式 製造販賣 三光硝子工場 電話二五二四番

牡丹江市鐵道街 諸機械 農工具 自動車 サービス 新興洋行 電話二九九一/二九六〇番

公認大牡丹江醫師會 事務所金鈴街 電話二二六九番

公認牡丹江日本人藥業組合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牡丹江出張所長 金仲善 電話二四七五番

牡丹江市西牡丹街 朝鮮料理 種甲料理 清樂園 金龍得 電話二五七八番

牡丹江景福街四ノ一 榮光樓 吳炳鎌 電話二三六八番

牡丹江市西長安街 朝鮮料理 日出亭 曺驥鉉 電話二九二〇番

牡丹江太平路 荷主運輸株式會社 牧丹江支店 主 閔廣鴻

東滿木材株式會社 取締役支配人 林芝亨 牡丹江市昌德街六番地 電話三七七四番

滿洲國牡丹江省牡丹江太平路 東滿農事株式會社 安昌鎬

牡丹江市七星街二ノ一三 金盛洋行 金道乾 電話二四六四番

牡丹江市西牡丹街五六ノ一六 木材商 松茂商會 電話三五三三番

牡丹江市平安街八 金子商會木材部 金永濟 電話二九一四番

牡丹江西長安街 石油 醬油元 富源商會 金聖洙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牧丹江代理店 主 張大奎

牡丹江市學校組合

牡丹江市 大材醫院 李崙徹

牡丹江西長安街 金井醫院 院長 金在協 電話二五三一番

牡丹江西長安街一八ノ六 內鮮料理專門 スキヤキ 金剛食堂 全世煥

牡丹江市圓明街四ノ九 新興旅館 金朝暎

牡丹江西長安街 信成洋服店 主 邊龍喆 劉範鎬

牡丹江西長安街 牡丹館 黃基洪

牡丹江西長安街 長春館 電話二〇七一番

牡丹江市七星街 思君館

牡丹江省牡丹江市 穀物貿易 松田洋行 成舜基

牡丹江市西長安街 丸吉洋行 電話三六九四/三七五一番

牡丹江西長安街 大五百貨店 承リ所電話三五七七番 貿易部電話四一四〇番 特賣場電話四一五一番

牡丹江市西長安街 建築材料商 德滿洋行 全昌根 電話三五七〇/三七四〇番

牡丹江市太平路十二ノ五 自轉車及附屬品商 松本自轉車商會 電話二九五三番

松下電器牡丹江配給所 滿洲國牡丹江省牡丹江市昌德街 三和電機商會 電話二七〇一番

牡丹江市西長安街 北滿藥房 李龍俊 電話二五〇五

牡丹江西長安街 春澤號 金相國

牡丹江市西長安街五ノ六八 同信洋行 電話二〇五七番

牡丹江市銀座通 寫眞材料商 奈利多洋行 金大植 電話二六七三番

牡丹江昌德街三ノ四番地 富士タクシ 鄭然澤 電話二六六〇番

牡丹江市鐵道街 荒山鐵工所 電話二三四一番

牡丹江西長安街 日盛堂時計店 洪致祿

牡丹江市西長安街 食料雜貨商 吉滿商店 主 崔鳳三

牡丹江七星街 三業購賣商會 主任 丁海明 電話二五四七番

牡丹江圓明街 東亞殖產株式會社

寧安縣寧安街 金有聲

牡丹江省寧安縣 寧安公醫診療所 公醫 裵大炫

牧丹江省寧安市 義信時計店 李宗星

牡丹江省寧安縣西馬道 慶善精米所 全相道 電話一七三番

牡丹江省寧安縣城裡 富士屋旅館 黃菊筍

北滿濱綏線穆稜站 穆稜醫院 朴行謙 電話二四番

北滿穆稜站 友林堂時計店 鄭永周

濱綏線穆稜站 丸一旅館 電話一三〇番

濱綏線下城子驛前 梁相允

穆稜縣興源鎭 穆一商會

牡丹江泰東洋行 文成麟

牡丹江市 文夔善

牡丹江市西長安街 雲興洋行

牡丹江西長安街三〇ノ二 天陽堂時計店 崔鍾祥 電話三六五四番

濱綏線磨刀石驛前 李在暉

牡丹江市西長安街 平和洋服店 主 金昌善

牡丹江市西安長街朝鮮旅館 安基英 電話二七三一番

牡丹江西長安街 山一運輸商會 電話三〇九八番

牡丹江西長安街 富田テント商會 電話三六九七番

牡丹江省掖河驛前 雙興精米所 金承億 電話四〇六四番

掖河驛前 丸一商店 金炳道

滿洲國牡丹江省牡丹江西長安街 森興ミシン商會 主任 趙雲瑞

錦山

錦山郡廳 農會 職員一同

錦山郡初等學校 校長會

錦山面 錦城面 珍山面 福壽面 秋富面 郡北面 濟原面 富利面 南一面 南二面 職員一同

錦山警察署 警友會

錦山稅務署 職員一同

錦山 私立心光學校

錦山砂防事業所 職員一同

錦山產業組合 電話一二九番 振替京城一四一一七番

錦山人蔘同業組合 電話三八番

錦山布木商組合

錦山運輸株式會社 電話八番

錦山麯子株式會社 電話一三番

錦山金融組合 理事 渡邊倫造 電話一四番

錦溪金融組合 理事 平川俊章 電話一二番

任醫院 電話二九番

全北道議員 寺井政次郎 電話四番

南鮮倉庫株式會社 錦山支店

全北道會議員 阪本宗十郎 電話二二番

錦山面協議員 崔在寬

雲波

全北錦山市場 百貨店 錦山 和信連鎖店

全北錦山邑內 人蔘 散蔘都賣商 昌信商會 主 高昌玉

錦山邑內 錦山月星人蔘社 主 白樂吉

全北錦山市 各種人蔘在庫豐富 時勢表請求次第進呈 永興人蔘社

全北錦山邑內 人蔘貿易商 三共人蔘商會 主 金炳垛

錦山郵便所長 赤星赤水

秋富郵便所長 前原定

錦山 煙草耕作組合 電話四一番

秋富金融組合 理事 尙大植

錦山輪業組合

錦溪醫院 院長 李鐘善 電話九番

錦山面協議員 森川茂作 電話一七番

錦山面協議員 金善昌

有志 崔在轅

珍山 有志 柳永根

錦山 有志 金俊鎬

濟原 有志 許光石

秋富面馬田 有志 安東圭

錦山郡秋富面馬田里 穀物商會 張興吉

錦山郡秋富面馬田市 綢緞 和洋雜貨 各種布木 ゴム靴 貿易 藥請賣 金物 石油 東和商會 主 姜呂鑒

和信商會 主 高善玉

富利酒造場 吉庚燮

秋富面馬田里 富國酒造場 主 宋容麟

朝鮮料理 錦山館 主 鄭必鎬

朝鮮全北錦山 普昌人蔘商會

全北錦山邑內 錦山人蔘商會

錦山邑內 普成人蔘商會 朴宰善 朴寄緖

朝鮮總督府穀物檢査所 群山支所錦山出張所 出張所長 黑木秀秋

錦山專賣局販賣所 所長 石原周造

珍山郵便取扱所 所長 李昌馥

秋富面馬田 公醫 崔東漢

錦山面協議員 金容涉

濟原 有志 金殷鍚

南一面 有志 金光奎

有志 任炳宰

有志 金權植

共榮商會 主 丁祺宗

九寧浦

濟原酒造場 主 金仁貴

京城屋洋服店 主 朴暎臣

趙漢貞

劉學豊

共信商會

德惠醫院 院長 朴承玉

東洋館

朝鮮料理 明月館

株式會社 間組 水豐出張所 曹圭三

株式會社 西松組 鴨綠江堰堤工事事務所

株式會社 西松組配給所

野田工場 金仁根

西松組鐵道工事李允行事務所 金承浩

辰興商店 劉宅瑞

藥種貿易 義春堂藥房

天一館 金承伍

平壤館

間組水豐出張所 康賢基

康翎

康翎本町通り 三井物產株式會社代理店 酒類卸賣 海陸物產 委托販賣 明岩商事部 主 禹明岩

富民面事務所 職員一同

康翎八景果園 康翎漢藥局 崔子洪 曺春根

富民面廣井里 富文學院 院長 曺圭三

新康翎驛前 鐵道貨物運輸事業 Ⓚ康翎荷主運輸組 代表者 沈相益

康翎市 各種農具金物一式 朴子亨金物店

甕津郡富民面康翎里 乘合タクシー、貨物 合資會社 康翎自動車部 代表者 元官燮

康翎 精米 發動機 農具 安康商會 曹東熙

黃海道康翎市 康翎自轉車店 金永煥

康翎 文應錫金物店

美香堂 金初喜商店

舍人

順川酒造組合長 順川郡學校評議員 盧禎植

平元線舍人場驛前 醇良無比 純在來式 大成燒酒釀造元

大成燒酒特約店

順川郡慈山市 崔東高

平原郡御重市 安斑鉉

平原郡御重市 金寬植

順川郡慈山市 弓錫化

順川邑內倉里 崔東根

成川郡丫波市 金秉銀

平壤府西城里 李希化

平元線舍人場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代行營業所 支配人 金俊燮

舍人金融組合理事 眞下政治

舍人場驛長 平岩義三

康翎 恒明社木工部 主 宋元永

中華料理 迎富樓 曺順煥

龍淵面梅村 農業 高藤只市

學務委員 禹貞善

康翎 公醫 黃在仲

康翎 魚物 食料品 雜貨 車煥濟商店

康翎 布木 雜貨 柳載範商店

康翎 大成洋服店 劉斗洙

康翎 農具 順應木工場 順會

康翎 布木雜貨 洪致敎商店 主 洪致敎

三井物產康翎代理店 禹連岩商店

康翎 康翎釀酒場 主 曺圭明

穀物貿易商 元亨商會 主 石亨俊 崔燦奎

穀物貿易 金山商會 主 金楨夏

穀物貿易 大和商會 朴陽鳳 小澤豊一郎 崔麟洙

食料雜貨 德林商會

親切叮嚀 德林旅館 主 林鍾春

穀物貿易 委託販賣 永得商會 主 崔得崑 金應澤

舍人公立小學校 職員一同

洗濯型紳士服 高級仕立技術本位 兄弟屋洋服店 主 金麗煥

舍人場驛助役 井筒政治

舍人面長 李寬奎

順川郡舍人市 德山醫院 公醫 蔡尙斌

舍人郵便所長 新田正紀

舍人場驛助役 峯辰雄

順川產業組合 舍人出張所主任 洪鎭禧

順川舍人場 實城齒科醫院 朴基源

各種洋服調進 三和洋服店 主 鄭光鉉

平元線舍人場驛前 新興精米所 車永根

順川驛前 順川農林組合

順川酒造組合 理事 高周桓

坑木商 李炳滿

外金剛

新年中은 不一의 愛顧를 입사와 感謝합니다 更히 今年도 倍前愛顧를 仰望합니다

外金剛溫井里 御旅館 萬龍閣

朝鮮日報社指定旅館 外金剛溫井里 外金剛閣 主 金東振

高城郡外金剛面溫井里 東海商事株式會社 內鮮自動車株式會社 外金剛共同事務所

外金剛溫井里 御旅館 嶺陽館

外金剛驛前 金剛農園 主 崔成秋

撫順

撫順市東一條通二〇番地 撫順物產合資會社 電話(長)二四五八番 振替奉天二六九番

撫順市西一番町二二 和信商會 白榮德

滿洲國撫順市西十條通八十八 辯護士 尹鍾建法律事務所 主任 趙殷默

滿洲國撫順驛前 天理敎撫鮮敎會 金泰柱

撫順市千金大街 天一館 朴德植

撫順東三條通二番地 滿蒙洗布工場 永善均 電話七五三番

撫順驛前西一番町六番地 撫順麵店 主任 金興大

滿洲國撫順市永安大街一番地 大昌洋行 電話五〇八一番

撫順市西一番町八番地 新成洋行 主 崔京駿

滿洲國撫順市東一條通二六 滿鮮商會 電話二四〇六番

撫順市西二條通二十六番地 平壤館 李大史

撫順綏大街二五番地 精米 昌盛精米所 鄭啓賢 長電話二二九四番

滿洲撫順市驛前一番地 朝日靴店 主 崔宗敎

撫順市 濟衆醫院

外金剛驛前 ㊋運送店 林海秀

外金剛面 職員一同

外金剛溫井里 溫井旅館

金剛山溫井里 江原道公醫 笠岡醫院 笠岡隆輝

外金剛溫井里 具萬會

外金剛案內組合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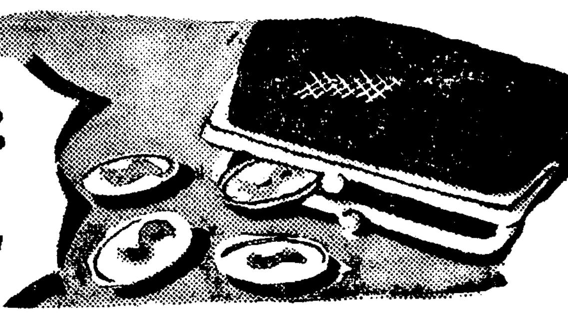
新年號 其十

「비상서―부언네를 주머니속에도 이영향을줍니다。육십전짜리 헌고무신이 일원이십전이되고 한자에삽십오전하던 광목을 팔십전、그것도 인조실이섞기지 아니했습니까。

이리케 살림살이로 번차오는어떠 모든물가를 아껴고 저축하는것은 한가정으로도 행복이어니와 더구나 전국가적으로보면 국민된도리에 맞당한것은 이제새삼스레 말할것도없이 어떠있겟습니까。

어쨌든 아껴고 또 저축합시다。그러케하는데는 더퍼노코 먹지안코 입지안흘것이 아니라 쓸데업는 것을 업새고 꼭필요한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쓸것 입니다。

어제 새해를 마지하며 전보다 더 모질고 단단하게 마음을먹고 위선 각가정에서부터 괴가나도록 살림을합시다」



戰時下의家庭經濟

저금에드러서는 시퍼런주부의용단

××××눈감고 수입에서 딱잘라낼일
××××벙어리는암만먹어도배안불러

朱成恩氏談

저금하는 애길하라구요。물론 전쟁중이 아니고 여니때라도저금하는 습관을 가지는것이 우리 일반수부들에게제일근본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가튼 혀편에야어쨋든 한푼、두푼이라도 살림에서 잘러내서 저금을해야지요。

저금을하는데는 물론 장사하는사람 농사하는사람 누구나다 할수잇는것이나 제일 월급생이 집안에선 꼭 이것을해야 합니다。그래야 마음이 든든하고도 합니다。

월급을 바더가지고 어떠케저축하느냐고 우는소리하실분이만 습니다。그야 이러케 말하는나 자신부터야받도 밖갓의 월급을 바다가지고 얼마간이라도 저축하려니까 쾌히이 늡데다。

월급을 바더가지고 저축하는 방법에 제일 묘방은 월급봉투를 빼개거든 위선 백가지일을 제처노코라도 할수잇는 한도에서 따로뚝떼여노하야합니다。

이러케 눈딱감고 얼마쯤 때여서 저금을해야지 만약 다쓰고 남저지를 저축하려다가는수입이 만튼 적든간에 절대로못하는법입니다。

살림사리라는게 야릇해서 쓰고도써도 부족하고 쓸데만 생기는것이지 웬만해가지고는 만족할법이 업습니다。

그러므로 쓸데다쓰고 남는것으로 모하겟거니하면 그집안은 생전 귀떠러진돈 한푼 못모힐 줄 아서요。

돈을 저축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잇는줄이 여러분도 잘 아실겝니다。그런데 저축중에제일 질색할것은 보통저금기얘요。

어건아무리 애써하드라도 그 어들넘만되면 돈쓸일이 수두룩하니 돈을두고안쓴다는 재간이 잇나요。여내 도장을 들고나가서는 차저다 쓰니까요 이야말로 저금하나마나합니다。

그러므로 한번맥기면 그기한 여오기전에는 절대로 찾지못하는 여러개지 저금을하는것이상 책입니다。

이런저축가운데 생명보험가튼 것도 조터군요 그런데 만일생명보험 오천원짜리를 들엇다면 이건 일년에 한번이나 흑은두번씩 한꺼번에 면백원씩 만흔 돈을내거든요。

그러면 월급밧는사람에게 몽치돈이잇슬턱이잇서요。그럴때는 한달에 얼마씩 모아서 반년에 한번씩이나 일년에 한번씩 차저서 수연조습디다。

그리고 날마다 집안에서 쓰는 가용돈에서 조곰씩 모아도 나종엔 큰돈이되는데 어것은아무래도『벙어리』를 장만해노코 조석으로 찬꺼리를 살때나 무스돈을 쓸때에라도 한두푼식집어너흐면 그때 쓸때엔 별노적은줄 모르고 또모하노아면 때 만흔돈이됩니다。

어쨋든 잔도에서부터 큰돈에 이르기까지 국히절약해서 얼마라도 저축하는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다행스러운일입니다。위선새해부러는『벙어리』한개식 작만합시다。

절약절약!해도 몸은돌봐야해요

++++병한번만나면십년지게도허사
쓰러지는 살림도 버리는건강++++

許英肅氏談

나는 의사의직업을 가지고잇서 날마다 환자를 대하는데이 환자들 입에서『비상시』란말을 만히 듯게됩니다。

지금 전국이 전생중에 잇스니까 이러한말을 듯는것이 결코무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삭변이 하로이틀에 그칠것이아니고 적어도 장구한 세월을두고그영향을 밧는다면 너무 섬하게 바짝허리띠를 졸라매는것은불가한줄 압니다。왜그러냐하면너무 무리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줄여서 경제를 하게되면거기에서 모순이 생겨가지고 도리어 불경제되는일이 업슬까합니다。

내가 늘다루는 환자나 해산할부인들 가운데는 비상시니까 해산도 집에서 웬만해서 하는것이 조켓다는분이 만흡니다。

이것은 그럴사하담도 집안에서 시어머니나 남편되는 이들이 온갓것이 죄다 비차고 살기가힘든데 아이낫는데까지 무슨 돈을드릴라해서집에서산파나의사가업시 그대로 해산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다시생각해보면 꼭그러케하는것만이 경제가되는것도 아니더군요。해산을하다가 난산을하는경우가 그다지만치안치만 그래도 사람의일을 어디압니까 웬거나올줄 알엇던아이가 나오지안코 난산이되여 시간이지나면 사람만 죽게 욕을보고돈은 또 돈대로 들되 오히려 몇갑절더드는수가잇습니다。

어바게 또한가지 예로는 우리집에 학교에다니는 아이가잇는데 어걸금년엔 어쨋든 외투나 양말이니할것업시 새것을사지안코잇던것을 그대로 입혓습니다。그리고 헐찐옷이나 양말대신입혀다란 무명옷으로 꾸려노핫더니 어애가 학교에가서 도무지웅송그리고 기운이업더란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가서 그까닭을알어보니까 학교에서 종씨추운날외엔 불을피우지안는데 집에서 또옷을 잘입히지안허노호니까 아이들이 그만 추위에 못견디여 기를펴지못한것입니다

지금형편에 하는수업시 모든 물자를 절약해야겟지만 너무지나처 병이라도나면 도리어 사람이 욕을보고 돈은더드는것이니까 일반가정 부인들은 모든것에 정도를 잘헤여서 무리가 업는한에서 절약해야할것입니다。

그담에 한가지 말슴드리고시픈것은 내게오는 환자가운데 밤에잠을 못자고 울어서 내리지안코 밤낫 울기가 수선다는분이 만습니다。

생과부와 처녀귀신은 농속의녹의홍상들

═어팔세할것을왜작만햇든가
새옷장만말고우선어것부터

金順連氏談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을 장가드려서 며누리를 데려오는데 옷해주는 이야기말슴입니까。

어째던 조선사람처럼 여자들이 시집갈때 옷을만히 가지고 가는사람들이 업슬줄압니다。치마、단속곳、바지、저고리、적삼―어째던 춘하추동 네철의옷이 가지각색으로 모두 죽을재와서 해가니 그게 얼맙니까。

그뿐입니까。시대권에 심지어 아이들까지라도 다해가니 그야말로 옷이태산가타 쌓혀지요。

그런데 우리조선사람에겐 여러케해가지고가고、또해가지고오는것이 오랜습관이래서 이겁 못해오면 한풀씩기게됩니다。

지금은 옛날과달려 이풍속도 만히 변해젓다고하지만 아직도 딸가진사람은 다작고 만히만해줄려고하고 며누리맛는 사람은 만히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고약한 풍습이예요。웨그러나하면 그러케 기를쓰고해가지고온 의복은 중간에 만히변하게되니까 입지 못하게됩니다。

내가 시집올때만해도 어째면 삼회장저고리니 누비횟솔 저고리니하는것도 죽으로 해가지고 왓지요。

그랫는데 십년안짝에 시체가 변해지니까 어디 그따위옷을입겟습디까。그래 모두 시골잇는 친척들을 논하주엇지요。

그러니 그때세월만해도 그러커든 지금처럼 작고 변해가는 세월에 옷은그다지 만혀해서무얼하겟습니까。또 더구나 지금은 보통때와달려 비상시니까이러한 기회에 이때까지 전해내려오던 악풍을 업시햇스면 조홋것갓습니다。

내겐 내년에라도 곳출가시킬 딸이잇습니다만은 나는 형세가 잇더라도 옷을 그리만히안해줄 생각입니다。이부자리도 열두채 열세채식할것업구요。

차라리 넉넉해서 줄것이잇스면 옷을만드는이보담 필육으로 주는것이 조호리라생각합니다。그리고 시대에 옷을 식구대로 해갈것업시 정 섭섭하면 부모되시는분에게나 한번씩해가는것은 괜찬흘겝니다。

그바게 함이니 놋대야 놋요강 은수저등은 자연 지금형편으로 만들어내지못하고 줄어들것이지만 이런것도 지나치게할것은 업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내경험으로 보면 나는 이번에 새며누리를 다려왓는데 아직 한번도 너옷을 얼마나 해왓는냐고 뭇지도 안햇고 보려도안햇습니다。

업스면 해입히겟지 그건알어 무얼합니까。그런데 내자랑이아니라 시어머니되는분들이 누구나 그며누리가 옷을얼마나 해오던말던 챙견을 말어주섯스면 본수에업시 옷을만히해가지고가려는 폐풍이 주려들것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처하의 시어머니된자ㅣ며느리오해오는데 아예 참견도말고 욕심도 부리지맙시다 그래야 우리딸도 간촐하게 시집갈수가 잇지안습니까。

지금가튼 시국에 갑절이나비싼옷감을 바더서 옷을 처해녀코 장속에서 썩킬게 무에겟습니까。

헌옷도물을드리면 새정이드는거에요

⋮⋮자꾸새것만찻는손부할사람
⋮⋮수수한차림새가정말멋쟁이

尹聖相氏談

젊은여자와 유행옷감을 갈려놋는재간은 아마 하느님에게도 업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에게 옷치레는 그생명다음으로 중요한것이니까 비록어떠한경우에라도 이를 근본적으로 막어낼도리는 업슬겝니다。이것은 태초로부터 여자는 어러케 창소되엿는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치레를하되 어떠케해야 모양은 그대로나면저 돈은 덜들까하는데에 잇슬것입니다。

지금가튼 전시에 모든물까가 갑절이나 올라갓는데 제욕심만 채워서 눈으로 보는것은 다해업는다면 그건 또 사람갑슬못하는짓이라고 아니할수업습니다。

포목전에가보면 망론한자에팔십전을합디다。갑절도 더되지안허요。

어러케 비싼옷감을 작고박궈드린다는것은 확실히 한가정의 경제로보아서도 심이맛지안는것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입든것을 입는데 거기에 빗갈을 여러가지로 자기취미에맛게 만들어입을것입니다。

이러케하다가 정색감을 바더야할경우엔 분득이 사드리는수박게업습니다。그러데 나 개인으로는 도모지 류행을 따르지안습니다。그건 내가 착해서보담그 류행하는옷들이 별로 내맘에드는것이어업습디다。

또조호옷이란 반드시 돈을만히드려야하는게 아니며 이서울거리에서보면 대개는 만흔돈을드려 류행들을 따르드군요。

예를들면 요즘흔히입는 검정비로도치마는 한감에 삼사십원짜리도잇는데 너도나도하고 해들입는모양이나 그것이 쳐마감으로그다지조케보히지안튼군요。

그리고 양단두루매기도 말음이지요。그겁옷이브면 행세를못할지경인 지금에도 돈만히드는것하고는 그다지 조치가안쿠요 또 이양단두루마기에 거의부리―그건 웬만해도 오륙백원속풋처럼 따다니는 여호목도리 합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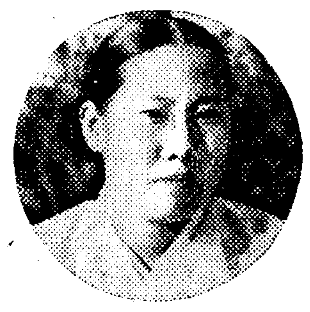
요젓번 어느백화점에 드러갓는데 여호목도리 하나에 유백원이상 가격을 달아노핫드군요 그래 어떤사람어 점원보고 뭇기를 어러케 비싼것들도 팔리느냐고 뭇습디다。

그러니까 점원의대답이 그때 초겨울인데도 벌서 여섯개나팔엿다고하드군요。그런데 사실그 여호목도리가 꼭유백원이상의가치가잇는냐하면 그것보담도이건 한개사치품이니까 어러케만히바다。

그러므로 여자로서 다소의유행에서 떠나살수는 업습니다 그러나 어러케 시국이 비상시가되여서 각가정에서도 비싼물까에 시달리는때 옷해입는건좀 보류해두는것이 현명한일일겝니다

칠첩반상차려놔도 수저눈에는한두접시

═고기어니면살안찔것가태도
서답게알던것에갑진자양분═



洪承源氏談

하로세끼 밥상에 반찬해대기가 어려운것은 살림하는 부인들은 누구나 다겪는일입니다。

아침에 눈만뜨면 벌서 오늘은 무얼하나―하고 걱정부터하게되니까요。사실 우리음식에잇서서 반찬처럼 중요한것이업고 또 이것을좀더 영양을 본위로 해가지고 먹을필요가 잇다고생각합니다。

비상시에 잇서서 되도록 반찬갑을 주려서 간단하게 먹어야만할건 물론입니다만 사실에 잇서서는 그러치가 못합니다。

또우리들이 일상먹는 음식은 그다지 영양이 만흔것도 아니니 쓸데업는것만 주리고 먹는것은 더주릴것이 업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정에 제일 고약한것은 반찬을 꼭먹어야할것외에도 세네가지는 상에 올려야 한단말씀입니다。

반찬을 여러가지 죽ㅣ느러놋는것보다 엇시하고 되도록 영양분을 생각해서 먹어야할겐니다。우리네는 도모지 영양을생각지안코 음식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가지수를 만히 놋는폐단은 서울이나 그밧게도회지이야기지 이번 순회강연을나가보니까 무얼 한가질 먹어라 두가질 먹어라할 여지가 업드군요。그냥 보리밥이나 조밥에 옥어지국、김치 이바게더먹으려도 먹을 게잇습디까。그러니까 농촌으로 도라다니며 그이상더 경제해서 간단하게 먹으라고권고할 겸덤지는 업드군요。

어째던 우리음식엔 무엇에나 고기가 들어먹는데 지금고기갑도 비사고하니까 고기의대용될만한것으로 먹는수밧게업습니다。

갑시싸면서 맛도잇고 영양분도만흔것으론 엄벳 시금치、두부、메루치가튼것을생각합니다。두부는 제일조선사람게 구할수잇는것인데 두부도 밤낫 찌개에만너치말고 요리법을 달리하야 여러가지로 만들어 먹으면조습니다。

예를들면 두부를 저며서 가다무리가루를 무처가지고 기름에 지저냅니다。그러다음 다시 진간장에 조리면 졸깃졸깃한게 아이들도 잘먹드군요。

그리고 감자가튼것도 살작되처저 잡채무치는데 석거도조코 고기지지는데 너허도 조쿠요。

그밧게 요즘 한창흔한 김치도 여러가지로 만들어 먹을수가잇지요。김치찌개도하고 또한찬업슬때 김치방을해서 먹으면 아이들도 잘먹고 조습되다。

어쨌든 어런한 비상시일사록 우리일반가정부인들은 돈혼적게 드리면서도 영양분과 맛은 보다더만케 요리하기를 힘써야할것입니다。

업서서에타기보다 한탄할것은「솜씨」

〔잇는음식을 어용할줄 모르고
돈일에전에손버리게하는엄마〕

李珖郁氏談

아이들 군것질―

이러케 말해노코보면 소위우리신교육을 바더다는 어미들은 부끄럽습니다。

너나업시 아이들에게 충분이영양을 섭취하도록 간식가튼것도 잘먹여야겟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동무들하고 놀려다닐사이는잇서도 집안에서 아이들을위해서 간식을 만들어줄 틈은업드군요。

그리고 아무리 한나라가 전쟁하는중에 잇다고해도 아이들 군것질하는 돈까지 절약할수는 업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못먹드라도 아이들은 잘먹여야할텐데 도대체 조선의 어머니들은 돈이업는것 보담도 솜씨가 부족해서 제데로 먹이지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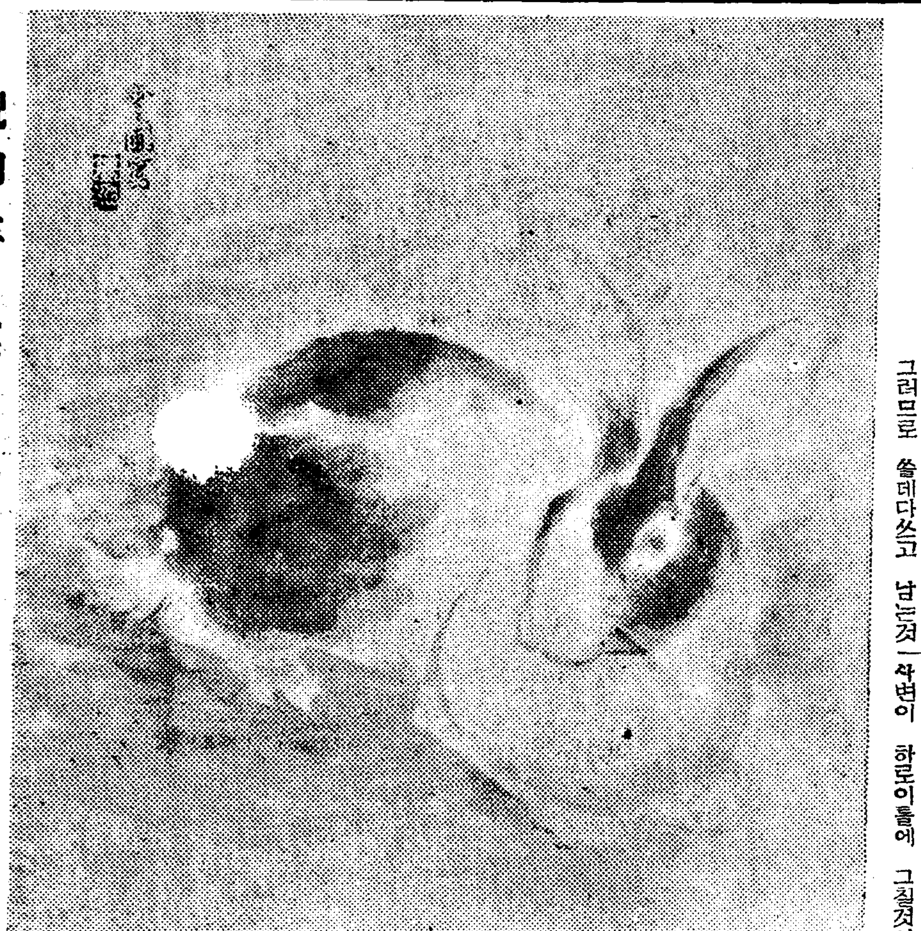
지금 우리들혀편으로보면 대개는『엄마、나돈한푼―』하고 손을벌리면 한푼두푼 집어주어서 제맘대로 눈깔사탕이든 봉어사탕이든 사먹게됩니다。

이런사탕조류는 아무리 먹어야 해가되면 되엿지 아이들에게 조곰도 어로울것은 업습니다그리나 자꾸조르고 귀치안흐니까 집어주게되는데 아마 외국가정의 어머니들은 이런주책업는짓은 아니할겝니다 그들은이군것질에 무척관심을 가지고 또대개는 집에서 파자를 구어먹인다든지 실과나 그밧게 여러가지를 어머니가 태해서 적당한분량으로 먹이는모양입디다。

조선가정에서다도 기구가맛지안허그러치 과자가튼것을 구어서두고 먹이면 몸에도조코 아이들 버릇도 그릇되지안흘겝니다。

결국 아이들 군것질을 경제적으로 시키는것은 거기에드는 돈을 주긴다는니보담 가튼 돈을 드리면서도 좀더만흔 영양을 섭취하도록하는것이 의미잇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네 아이들은 영양이부족해요

그리고 파자보담도 실과들만히먹여야겟구요 시루떡가튼것도 설탕이나너허서 쪄두고 쥐여주면 조흘겝니다。



祝卯年
雲圃 金基昶氏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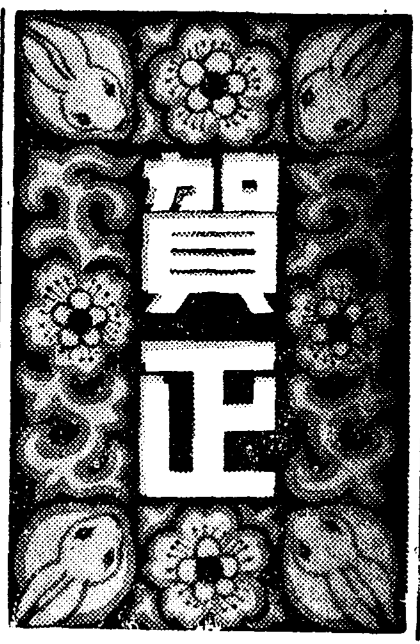
哈爾濱

濱江省珠河縣驛前
珠河金融會
理事 金啓麗
外職員一同

濱江省東興縣新民鎭
大成國民學校
後援會長 安翼洙

濱江省東興縣公署
縣長 蘇堃
副縣長 谷口銑太郎

哈爾濱朝鮮人學校組合
主事 宋義淳
外職員一同



濱江省東興縣城內
東鮮精米所
主任 朴台說

004360

濱江省東興縣城內
滿鮮精米所
主任 鄭文榮

珠河河東農村農務[illegible]聯合會
職員一同

千代田生命哈爾濱出張所
李時應

拉濱線山河屯
農産組合

濱江省巴彦縣城里太平通
李晟均

濱江省巴彦縣西集鎭東城屯
東城農務稧長 趙雲斌

濱江省巴彦縣西集鎭東城屯
朝鮮人自衛團

濱江省巴彦縣西集鎭
源增農場

濱江省巴彦縣西集鎭
巴彦縣公立東城國民學校

濱江省東興縣城里
尹友石

濱江省東興縣城內
東省醫院
李和一

濱江縣東興縣城內
車鐵秀

濱江省東興縣城內
東興第一農務稧

濱江省東興縣城內
朝鮮精米所
主任 金鎭夏

濱江省東興縣南大街
榮興洋行
金載榮

濱江省珠河縣帽兒山驛前
朝鮮精米所
姜明元
白炳贊

哈爾濱道外許公路九〇
農具機械 五六商會支店
金聖贊

哈爾濱道裡斜紋街
大福ホテル
主 金永翊

哈爾濱市八站南安街一號
精米業 三江號

哈爾濱道裡田地街一號
合名會社 豊泰號

哈爾濱八區南馬路南康街五號
鮮滿産業合名會社
社長 朴義陽

濱綏線帽兒山
白雲鶴

哈爾濱市南馬路一八段ノ一
北滿農具株式會社

濱江省珠河縣帽兒山
公立國民優級學校
校長 李東熙
外職員一同

濱江省巴彦縣城內太平通
長春旅館

河城縣玉泉驛前
許在錫

濱江省一面坡
朝鮮旅館
金光洙

濱江省阿城縣公立平山北街
國民優級學校
校長 李圭善
外職員一同

濱江省阿城縣城裡
沈永龍

拉濱線五常縣杜家站
崔長祿

拉濱線杜家站
李相根

拉濱線山河屯
明月館

濱江省東興縣城內
朝鮮冷麵屋
主 申昌鶴

濱江省東興縣城內
和信自轉車店
主任 金宗祿

濱江省東興縣城內
東鮮商店
主任 朴亨花

哈爾濱道裡買賣街三一ノ二一
金大玉

濱江省東興縣公署
資業股 高鎭庠

濱江省東興縣公署
高允澤

珠河縣帽兒山驛前
新浴泉
主 金允伍

珠河縣一面坡警察署
主 金泉樓

哈爾濱八區南馬路南康街五號
鮮滿産業合名會社
專務理事 沈俊善

拉濱線杜家站
姜渊

濱江省珠河縣一面坡中央街
島屋洋服店
姜[illegible]

珠河縣一面坡驛前
洪基瑗

珠河縣帽兒山驛前
朱鉉

珠河縣帽兒山
柳應萬

拉濱線平安站前
舒蘭縣公立國民學校
校長 金永相

濱江省東興縣城內
金東奎

拉濱線山河屯
食業 新京園

哈爾濱市道外承德街
吳永烈

哈爾濱市道裡田地街四號
京城旅館
主 金在洙

哈爾濱市道裡田地街
朝鮮旅館
崔昌日

珠河縣南台街
全滿精米所
金昌律

珠河縣帽兒山驛前
朝鮮旅館
主 韓鳳奎

濱江省珠河縣一面坡
北滿洋服店
全福穆

珠河縣公立珠河國民優級學校
校長 [illegible]
外職員一同

濱江省珠河驛前
信滿商店

珠河驛前
明月館

珠河縣帽兒山驛前
金城當
李杜炯

陳坪

晩興洞國有林保護組合職員一同

陳坪市
料理業 相愛館
主 金尙娥

陳坪市
有志 金基亨

晩興洞小中江
有志 李君三

陳坪市
有志 宋泰根

陳坪市
日用雜貨各種文具 允興商店

陳坪市
有志 金成初

料理業 明月館
主 金福石

平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陳坪代理店
慈城製藥 慈成厚昌 陳坪代理店
主 姜文鳳

紹織布木 和洋雜貨
奉一錫商店
主 奉一錫

陳坪市
有志 金信鳳

陳坪市
韓致郁

平和堂時計店
主 金炳鎬

林業 尹河敬

綿布商 李東根商店
主 李東根

陳坪山農共勵組合
職員一同

陳坪市
方石斗

춤이야멋드럿거니 달노래도절로난다

卜 섯달그믐날밤에 꾸던꿈 이애기 좀해봐요

文 섯달가믐때 비가오면그에서 떡실을일이 업서요 그래서 섯달그믐날만되면 내일비가오면 어쩌나 눈이오면어쩌나 하구 자꾸만 걱정이돼요 그러데 한번은 꿈을 꾸는데비가자우오겟지 그만 꿈에 도화가나서 야단났다가 깨여나서혜가화가나드란정말조하

池 그전꿈은 정말잘꾸어저 하두 걱정을하면 꿈에 고대로 꾸어지는법이야

文 요전에두『새출발』촬영하러현풍(玄風)오루갓는데 어찌지 비가올것만가태서 걱정을하다가 잣는데 글세 꿈에비가오겟지 그랫는데 깨여서보면 비가안와 참조하

卜 꿈에 흔지 노래부르는거나종후주는일이잇지안허요 김복진씨 좀 이야기하서요

金 언젠가 좋키선가바요 꿈에글세 당치안케 어떠케 좋을추면서 ㄷ개를 잘추러는지 몰라요 그런구아주 찬란하게꾸며노흔 꿈에서 명성명성 좋을추면서 어떠케 노래를잘불럿는지 똑 요새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길다란 옷을입고 지금영화에 좋추는걸보면 어릴때꾸던 꿈생각이나요

韓 난 어려서부터 아주노래못불르기로 유명해서요 그런데 어려서 정월보름날 오빠랑 모두 모혀서 노래잘하는 사람에게는 잣줌내기를해서요 그런데당초에 노래가되여야지 그때 오라버니는 화교에다녀서요 하루밤은 꿈을꾸엇는데 꿈에 어떠케『달아달아 밝은달아』를 아주 크게잘불럿는지 몰라요 그러치만 정말하라면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러가요

池 이따금 연극하는꿈을 꾸는데 화장실에서 화장두 하구 또 끗까지 잘햇스면하는데 꿈에는 아주안되는때두잇수 또어떤때는 스토-리까지 화하게 알러지는수가 잇서요

李 난 한번은 연극하는꿈을꾸엇는데 일막을 다마치구나와 이막에 옷을갈어입구갈텐데 암만 옷을열을래야 당초에 옷이죽자구 앙이치지는군 나갈시강은 자꾸가까워오구 그냥어쩔줄모르구 애만 바득바득쓰구......그이튼날회판사무실에갓드니 어번연극공연(公演)은 사정이잇서서 중지한다구그러겟조

池 단마(丹馬)나 한림(翰林)이는 아마꿈에도 노래를불르고 오페라가수가되엇해서 디아나·다-빈가티 되는꿈을 꾸게될게야

李 그런데 꿈은 대개마저 난어려서 오빠하구 세배가는꿈을꾸엇는데 글세오빠가 내세배돈까지 죄모라가지구다러나는꾸먼 깨여나니깐 어떠케 분한지 그래서 그날 세배하러가는데 어머니보구 난 이런꿈을꾸엇스니까 오빠하구는안간다고 막야단을헷더니 어머니가 너혼자는 길을모르니까 꽉가치가라구만 하시겟조 그래서하는수업시함께갓더니 아니 글세 정말 내세배돈까지 그냥가지구는 다러나버리는군 정말 분해서 똑죽그지퍼서

文 그런꿈은 꿈이야하구께여나면 더심사가나지 난 한번은 꿈에 사람을 죽엿는데 그건 내가죽인다구 죽인게아니라 다리를 건너가는데 내아페서서 건너가던사람이 잘못해 떠러저 죽엇는데 내가 밀처떠러저 죽엿다고하는데 고만기가 막히고애가타서 그냥 울구 걱정을 하구 햇는데 까 깨어 나니 그냥실스서

韓 난 어렷슬적에 마포(麻浦)서살엇는데 그때 아버지는 만수(滿洲)가 게섯는데 어머님꿈속이 아버지가 오섯스면 조켓다고 그래서요 그래도 오빠는 꿀망에만 다니면서 그런건 생각지두안쿠...엄큰설월이 왓스면 아버지가오겟지 생각해서요 할머니두 남들은 새옷입구 아버지께 세배하구 세배돈타는데하면서 걱정하셧서요 아홉살편가 신년새해부자님을 꾸라구 그러는데 난 아버지오시는 꿈을 꾸고 시퍼서 속을 태고잣는데 꿈에 아버지가 카스테라가튼 과자녀흔상사를 사가지고 왓것지...그러드니 그이튼날밤중에 누가 문을두드리겟지요 어머니는 나가보실 생각도 안하시고 어떤남사가 이런늣게 차저와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상햇던가봐요 그래는데 정말 아버지가 왓다고 그리겟지 꿈이 아주드러마젓서

∞◆∞

연줍다개울에빠지고 세배하다가광햇구나

저생엔英雄아니면獅子나 이생엔女子니逢變도꿀꺽참어

洪 오늘여러분을오시라구한것은 우리가 여러분께 무를말슴이엿다는것보다 여러분이 하실말슴이만타고하시기에 그말슴하실기회를 만드러드리는것입니다 날세가 그리춥지는안습니다마는 연말이되여 매우바쁘실터인데 아무조록 하시고시픈말슴을 꺼림업시 터러노하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이야기가 만흥신분이 복혜숙(卜惠淑)씨라시니 어디야기를잘진행시켜주십시요

卜惠淑—모두 이야기가만타니

卜 그세배돈들은 바더서 무얼햇는지요

池京順 아버지 친구되시는이가 일원짜리를주시면 어렷때 어떠케조쿠 그게아주 큰돈가태서 어머니께 맥겨두구는 일허버릴까바 가지구 다니지두 못햇서요

卜 그런데 난어려서 시굴서세배돈을 엽전한냥을바덧는데그 한냥짜리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깔사탕을 사먹는게 어떠케 재미나는지 몰랏서 그후에는 세곳엽전이업서저서 다시는 세배돈으로 못바더서

韓 우린 어렷을때 엽전은 바더보지못햇서요

金福鎭 나는 한번은 세배돈으로 오원짜리를 바덧는데 그돈이 인연이되가지구 수양어머니를경하엿이잇서서요 그게아마 열살때가분데 그여자손님은아주외국유학두하여서날보구 자꾸 수양딸이되라구해서 그후 한육칠년동안 참실히 수양딸노릇을햇지요 그리구는 그분은 이세상을 떠나고마럿서요

一同 (쓸쓸해옷는다)

李白媛 난 세배돈으로 삼원을 바덧는데 그돈가지구 연필공책을 사야할줄알면서두 팔목시게가 퍽사구시퍼서(웃으면) 그냥 다러가다 글세개굴창에빠저서고만 옷만죄버리고 시게두못사구 집에가서는 어머니께 야단만톡톡이첫서요

卜 그런데 여러분중에는 어릴때 입던 때때옷이나 또 패물가튼걸 가진게잇서요 혹은 지금두 어처지지안는 세해선물이던지......

出席者(無順)
卜惠淑
金福鎭
文藝峯
池京順
韓銀珍

잇지안허요 그러데한림(翰林)이와 단마(丹馬)는 아직어리니까 기억이새롭겟구나 어디좀이야기해요

韓 난 아홉살때가봐요 내손아래 남동생을데리고 먼촌일가집에 세배하려가는데 어린애가 글세 절을 하다가 고만 이마를 땅바닥에 꽝 부디첫지요 그러니까 세배밧던 어른이『옳지 네가 콩햇구나-』하니까 고만 글세 얘가울기를 시작하는구면요 나두 그애등을잡고 가티 세배하다가 울기도 가티 울엇서

(朴丹馬)

卜 난 어릴때 부터두 그러케 지 자지안흘랴고 애를애를쓰는데 자꾸만조음려요 그래서 나두몰래 고만 조금 자다가 깨여낫는데 글세어머니가 내눈섭에다가 떡가루를 칠해노앗겟지 그러찬구모르고 자구 일어나서 석경속을 드려다밧더니 글세눈섭이 하야케세지안헛게서요 고만 기가 막혀서 망울고야단햇는데 울다가 다시 석경을 드려다보니까 눈섭에그렷던 떡가루가 눈물에 모조리저저서 죄씻겨젓서 지

(李白媛)

걸(十傑)중에 다서재간다는데 (웃는다)예봉이는?

文 아즈머니가 다 이약이해서......

池 나는 여자로 태여낫스니 여자가 된그대로 살어볼까?

韓 난 남자가되면 (입을가리고 우스며) 공자(孔子)가튼 성인어되겟서요

一同 (소리내여웃는다)

池 갑작이생각할랴니 얼는생각나야지 그냥 단념해버려?

李 내가 되고시픈사람이 꼭한사람잇는데 나폴레옹이될테얘요

卜 아니 모두 서양사람만 되구십다구 쳐드는군 참 공자가잇스니깐...? 향렵이는 무슨 쿰스키-(스토콥스키)인가가되여보구십잔어。

卜 또한가지 우리가 다른 동물(動物)이된다면 한번 무에돼보고십수 가령 증생이든세든 물고기든간에-

一同 (웃는다)

卜 난 금붕어가 참조든군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여치구아주 자유로운것가태、

文 난 증생이된다면 사자가 한번 되고시퍼

金 아-니 사자가 되면 다른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달어나면 어떠케하게

文 이왕 되는바에 증생이래두돼서 남들이 무서워하게

一同 (웃고떠든다)

卜 왜한(韓)양은 이야기를안하우 난 공작(孔雀)도 조터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보면 새나 증생도 부자연할것가태

池 우리보는한도에서는 그래도 증생은되고십잔쿠 공작가튼게조와요

卜 만일 우리가 꼿이나 나무나 풀이된다면......나는 꼿중에도 야국(野菊)이 제일조와 남이보기와는달러서 아주 황량한 벌판에 혼자외로히 피여잇는게 퍽조와요 떠리야는 번화해서실코 코스모스나 야

(金福鎭)

사람이잇지 안허요......출근하는사람들은 출근시간에자주만나는사람이 잇다드군요 그러치안허두 본정가튼데서 자주만나는 사람두잇구 또 차집가튼데서 자주만나게 되는사람이 잇서요

金 난 서울서는 총독부(總督府)에서 장곡천정(長谷川町)을 달밝은때나 눈이펄펄쏘다지는때것는게 여간 조치안허요그래서 어떤때는 혼자 집에잇다가도 일부러나와서 이길을 하박휘 돌구하는일이 만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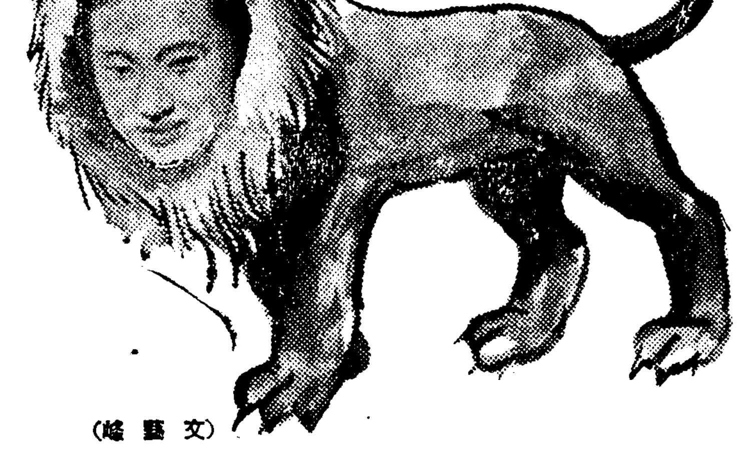
卜、池、참 그길이조하요

李 (낫게)아주시적(詩的)인데요

池 난 방송국뒷길을만히것는데 그건 밀요도하구 조키도해요 집에서 걸어나오면 자연이길을것게돼요

卜 하루에 본정(本町)에서 종로(鍾路)를 한바퀴돌라면 본정에서 만낫던사람을 또종로에서도 만나게돼요

李 그런데 나는밤낫만나두 알


(文藝峰)

러는게지 무슨할얘기가 잇서서 그러는지 알만해두 알수가잇서야지 그러다가 나는 그다음 정류장에서 내렷는데 그후 며칠을두구 생각해봐두당초에 알수업서서요

池 아마 그사람이 벙어리든게지

一同 (웃는다)

卜 나는 언제나 말괄냥이가돼서 그러지 한번은 어린애를안고 전차를타는데 어린애를 막전차에안치고 일어나다가 전차가는바람에 어떤녀자의무릅에가서 탁쓰러젓군 글세 그래서 미안합니다 햇드니 저편에서는괜찬읍니다하겟지 아니그래 괜찬라니 무릅피에 낫모를녀자가 안저도 괜찬탄말인지

金 (웃으며) 빠스나 전차속에서는 실수하기 쉬워요

李 난 작년겨울에 스켓하다나오는데 동무를 만낫서요 그래 스케트를 들고가기가 실흔데 마침 오빠가 지나가기

奉化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繁榮會

奉化郡乃城面都村里 李斗春

奉化郡法田面法田里 李完相

三陟郡上長面銅店里 三陟杭木株式會社

三陟郡上長面銅店里 黃基宋

奉化郡春陽面官陽里 春陽官民一同

奉化 無名氏

奉化郡法田面法田里 李日相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酒造株式會社 裵璧巖

奉化郡乃城市場 甲鳳料理 錦成館 主 金濟康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土木請負業 李現雨

奉化郡乃城市場 御料理仕出シ 太平館

奉化金融組合 明湖支所 職員一同

奉化郡小川面大峴釀造場 柳台根

奉化郡春陽面鶴邸里 金井商店 主 宋相鎬

奉化郡春陽面官陽里 權相經

奉化郡春陽面官陽里 無名氏

奉化郡小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奉化郡法田面台川釀造場 金慶洛

奉化郡春陽面官陽里 文淑商店

奉化郡□城面桐陽里 洪禹善

奉化郡春陽面鶴邸里 姜禮元

奉化郡乃城市 朝日洋服店 主 俞鎭稷

奉化郡物野釀造場 金理燮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殷壽福

奉化郡乃城市 實費洋靴店 主 李元福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權斗震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旅館 主 金始奎

奉化郡祥雲面佳谷里 金聲大

賀

興京縣河南東街 新興精米所

興京縣河南大街 興京精米所

滿洲國興京縣河南東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永光洋行 主 洪在珍

奉天省興京縣河南 綢緞布木 各種雜貨 全部皮鞋 東昌號 主 金昌善

滿洲國興京縣河南市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信興商店

興京縣河南大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日本酒 德本商店 主 林觀玉

興京縣河北街 浩然樓 主 崔允煥

永陵街 東榮精米所 主 鮮于旻

興京縣永陵街 精米業 同祥和 主 朴錫俊

興京縣永陵街 濟□藥房 主 李能白

興京縣旺淸川街 回春醫院 院長 諸承律

興京縣旺淸川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興旺商店 主 崔文□

興京縣 公立南山國民優級學校

興京縣公立南山國民優級學校 校長 金澄玉

興京縣河北救世病院 院長 金壽坤

朝山齒科醫院 院長 金任守

興京縣河南街 東昌旅館 主 李炳坤

興京縣河南大街 崔元吉

興京縣河南大街 普和當舖 主 宋道英淳

興京縣旺淸街 旺淸國民優級學校 校長 李康濂

興京縣公立南山國民優級學校 主任 李鍾璨

興京縣河南街 義興藥社

興京縣河南街 東和藥院 院長 金□國

奉天省興京縣河南 維新商店 主 韓宗錫

興京縣河南東街 最新流行 紳士淑女 洋服調進 美鮮洋服店 主 崔義活

興京縣河南街 崔弘楫

興京縣靑年訓練所 金壬巖

興京縣永陵街 和順精米所 主 朴錫□

興京永陵街 崔文赫 代書事務所

保寧

保寧郡大川面大川里 大川酒造株式會社 電話二十二番

保寧郡農會

保寧郡大川 李經九

李龍鎬

長湖院穀物協會 電話三三番

利川郡淸渼面事務所 職員一同

李德雨

食料雜貨 天華堂

朝鮮料理 海東館 主 李孝順

忠淸北道議員 南相喆

京畿道利川郡長湖院 救世醫院 醫師 崔命龍

長湖院穀物協會 李□

金弘基

齒科 口腔外科 專門醫院

主 崔鍾碩

合名會社 大東商會 電話一七番

京畿道長湖院驛前 綿布商 李福伊商店

布木商 張寅華

食料雜貨 ラヂオ 蓄音器 裕昌商會

中華料理 慶和館

李相德

李相福

李殷鼎

公州

公州邑本町 雄心正宗 雄心製造元 公州釀造組合

朝鮮寫眞材料商聯盟加盟店 一般藥品 化粧品 寫眞材料 シン藥房(신약방) 電話二二〇番 振替京城九四四〇番

公州本町 和信連鎖店 共榮商會 電話五五番

公州邑旭町二七六 李昌浩

公州郡新上面維鳩里 道會議員 李斗寧

綢緞에 누리업시 綿布싸게 파는 廣德商會 電話一二九番

公州官立女子師範學校職員一同
公州公立中學校
公州公立高等女學校
公州公立農業學校
公州公立常盤尋常高等小學校
公州公立本町尋常小學校

住持 朴正善
法務 朴正龜
財務 金正會
書記 徐周寬

公州常盤町一 公濟醫院 電話五一番 梁載淳

忠南公州邑山城町一二九番地 マルト貨物自動車部 金壯應 電話一三八番

忠淸南道公州郡公州邑本町一四二番地 南鮮興業株式會社

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 公州監督所 長 金九鉉

漣川釀造株式會社

漣川驛前 植村五郎

漣川驛前 百貨店 株式會社 共榮社

京元線漣川驛前 漣川百貨店 路泰仁

京元線漣川驛前 運送 倉庫 (共)共信運送店

京元線漣川 漣川穀物商組合

漣川金融組合 理事 川原利夫

漣川中央公立尋常小學校長 吉田熙

漣川驛前 ヤンマ發動機代理店 權龍采

漣川驛前 朝鮮料理 支那料理 不老亭

漣川驛前 飮食店 朴永基

漣川公醫 張圭珍

漣川 開城屋 金順喜

京元線漣川驛前 穀物貿易 肥料 精米 元昌商會 電話一五番

漣川驛前 漣川屋 尹花容

京元線漣川驛前 □元藥房 主 金聲泰

漣川 穀物貿易 金鳳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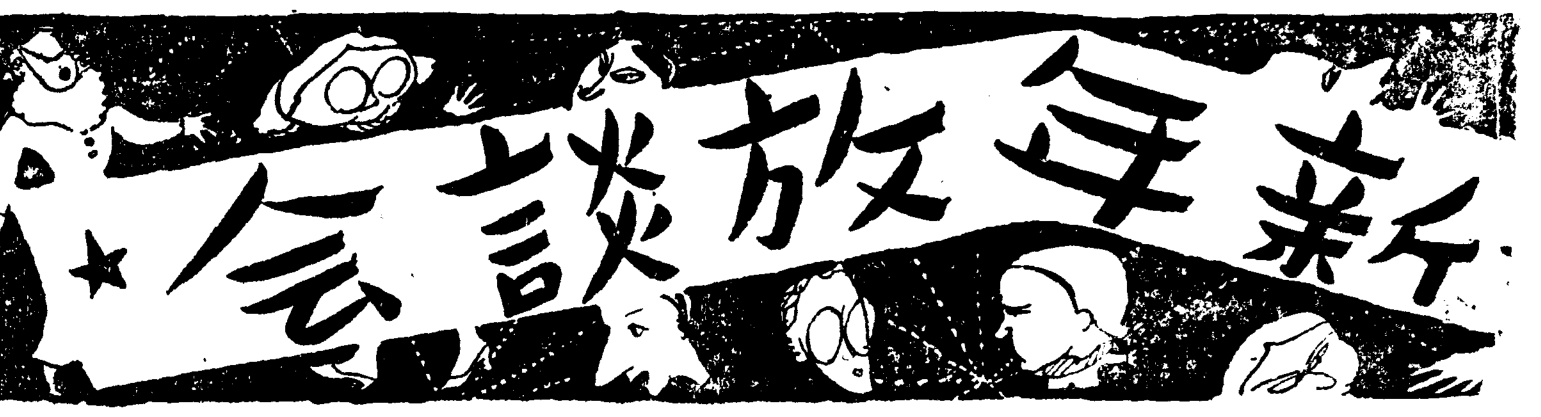
漣川京元自轉車店 俞光鎭

漣川驛前 漣一屋 朴石乭

漣川驛前花月酒店 鄭貞任

京元線漣川驛前 穀物貿易 綢緞布木 各種雜貨 總ゴム靴 金宇炯商店

漣川 永信藥房



李白姬
朴響林

本社側
洪起文
李源朝
李軒求
金[illegible]澤
鄭玄雄

어디 하시고지픈이들이 먼저 내노흐십시요 이런기회에 이야기안하면 또 언제할른지모르니까 그저 죄다 톡톡 털러내서요 (일동 웃는다) 아이 옷기들은 잘하는구려…

(朴響林)

이러케 이야기안하면 내가하나씩 무러야 되겟구요 저우리 어렷슬때 세배돈을 바더가지고 여간 기뻐하지안햇는데그래 얼마씩이나 바드섯소

韓銀珍 얼마를 바덧는지는 몰라두 그저 주머니속에서 절렁렁절하게 소리나도록 바덧지요

盧載信 난 어릴때때때옷입구놀러나가라는데 어머니가 가달리라구 그러겟죠 아마 내생각에는어머니가 날밖으로못나가게하느라구 그러나햇서요 그리구 어머니는 바쁘셔들라날할만하시구……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신행때 가지고오신 노리개를 옷고름에 채여주시겟지요…… 꼬 노리개를지금두 가지고잇서요

金[illegible] 나두어려서 옷고름에차구다니던비선이랑 패물은 가지구잇서요

池 옛날 앵초란구문의잇는것잇지안해서요 노랑모본단저고리가 눈에선하구아주어려서는조하햇서

文藝峰 아마내가 여덟살쯤때가바요 댕기끄테드리는 서망이라구잇지안허요 어머니가 날업구다닐때 그걸 달아주시구 그후 대여섯살때에는 달아주면일허버린다구 안달아주섯서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라주섯는데 글세 바께나가놀다가 댕기채고만 죄다일허버렷군 글세아 그래서 어머니께 야단드를생각을 하구는 밤 열두시까지 집에못드러갓서요

一同 저를어째!(하고웃는다)

文 그때너무두 어떠케겁을냇는지 지금두 몇절만되면 그때 생각이나요

李 난 돌세채워주던 염낭이잇섯는데 그걸아주 아껴뒷다가 내족하가 내일모레가타 돌날인데·어떠케 내가 그게집애를 이뻐햇던지 그러케애껴두엇던 염낭을 내족하한데 재위뒷서요

卜 세배다니다가 봉변하든일이

말괄냥이엇던가바 시굴에는 논이구 바티구 거긴 모두 뎀움내구 또 뎀썩이는 구렁퉁이잇구 하지안허요 나이제설날에 새옷입구 사내들처럼 연울 날리다가 그만 연줄이끈허저서 연이 날러가겟지 그래서 어떠케든지 그놈의연을 잡어낸다고는 아픈보지도안코 그냥 기를쓰고 연만따타가다가 그만 그거름통속에 풍덩빠젓군 그러니 옷이 모두 거름투성이되구 어떠케 화가나던지 그래도 그냥 도타올생각은안쿠 연유잡으라다가 어러케 되엿스니 어떠케해서라도 잡아야한다구 기어코 따라가서 잡기는햇는데 옷을죄버려노핫스니 집에일직 드러가지는못하구 느께야 몰래드러갓서

盧 난 설날 어머니를 졸라서 겨우 널을채려노쿠 여자들끼리만뛰는데 글세 오빠가 자꾸 널을뛰겟다구 졸르든두면 글세 그래두 어리니까 부끄럼구해서 딴여자들과는 못뛰고 나하구만뛰자구 그러는데 글세 다른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죽겟서 그래서 오빠한테 가진사정을해서 이따가 가타뛰리니 잠시만 다라우에 올라가 기달리라구해가지구는 함께 다락으로올라가는데 선반에 다러노흔줄이 툭끈허지면서 그냥 땅바다에 내떠러저 야단낫던 생각이나요

文 설달그믐날자면 눈섭이센다고하지안허요 그래서 어떠케턴

금두 그때생각을하면 우수워

池 봉변이라것보다두 나는 널을뛰다가 운얼이 잇서요 우리집은 모두여자들뿐이니까 언니하구 내여동생하구 셋이널을뛰는데 동리집사내애가와서 자꾸 널을뛰자구 야단이구면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티 널을뛰는데 사내들은 게집애들처럼 널을 이뻐게뛰지못하구는 덜거덩 컹컹컹하구뛰지안허요 그래서는 고만놓그라저 떠러저서는 운얼이잇서요

(盧載信)

卜 만일말이요 우리가 여자가 아니구 남자로 태여난다면무얼햇스면 조켓서?

文 아ー니 그건참 어려워

卜 나는남자루 태여난다면 뭇솔리니가튼 남자가될테야

池 정말 뭇솔리니가 너너될사신이 게실거애요

一同 (웃는다)

金 난 히틀러ー를 조와하는데

卜 장개석(蔣介石)이 되고시풀사람은업서요 그래두 세게십

(韓銀珍)

(卜惠淑)

국가려 외로운들에 단하나가 되여잇는것이 제일조와요

盧 나두 꼿에서는 들국화가조와요

李 여자치고 꼿조와안는 사람은 업슬걸요

池 난 백양나무가 조와요 미끈한게

金 소나무도 조치 언제봐도변치안코!

卜 향양은 무얼조와해요 솜애기해봐요

韓 (머리를 숙이고 벙긋이 웃기만한다)

金 들꼿중에는 바이올렛두 조와요

文 들에 피는꼿치구 이쁘지안은게업지

金 그래두 가시도처가지구 꼭꼭찔는는 나팔꼿두 잇서요

朴丹 난 가시도친 장미꼿이조와요

朴響 난 코스모쓰가 조와요

韓 나요 나는 단풍이 조와요

文 난 소나무가 조와

─○─

卜 그리구 여러분은 대개 어떤 타입을 조하하서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도『시몬느·시몽』타입을 연상하고 희경도하지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 사진은 안부처두어도 이떠급 시몬느·시몽의 클로주엇한걸 방에다가 걸어둿요

池 그러구 보니깐 정말『시몬느·시몽』과 가튼 타입이구요

金 나는『롤레타·영』을 본대조하해서 사진가튼것두 부처두구보지만 암만 고대로 흉내낼앤두 돼야지(웃는다)

一同 (함께따라웃는다)

朴丹 나는 클로데트·콜배ー르를조하해요

朴響 난 존·크로포ー드의라임이 제일마음에드러요

盧 난 눈섭못그리기루 아주유명해요 그래서 한일(一)자눈섭을그리느라구『디ー트리히』의 눈섭을 본떠서 암만그대루 그릴애도 당초에 안돼요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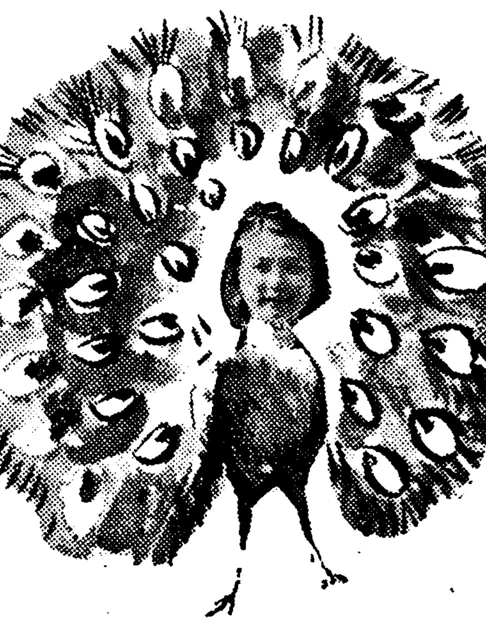
─○─

卜 그런데 제일 걸구시픈길이나 또 길에서 자주 만나는

지못할른이잇서요 김관수(金寬洙)씨하구 또 피리를늘고다니는 똥똥한사람이잇는데 길에서만나면 정말 누가누군지모르겟서 몸집이나오것두 똑갓구 (웃는다)

卜 외출해다닐때나 전차 기차에서나 혹시봉변하는일이 잇지안허요

李 내동창생한사람이 신경(新京)가서 타이피스트를햇는데하루는 엽서가왓는데 낙랑(樂浪)ー차집ー에서 기다릴테니 꼭나오라구써보냇길래 아주 오래만에 동무를만나 자미잇게


(池京順)

놀게다구 연설두 그만두구 뛰여깃드니 낙랑에는 아무두 아는사람이업구 하두이상해하는데 나올나니까。あの忙しいのに 一寸失禮したわ(저 바뿐신데 좀 실례햇습니다) 하겟지 어떠케 화가 낫든지……

金 언젠가 전차를타구 부잡구섯는데 누가 내등을 탁치겟조 그래서 누가 내등을치나하구 이리저리 둘러다봐두 여자라군 한사람도업고 모두남자뿐인데 누가 나를첫나하구 두리두리 둘러보니까 두서너사람건너서 서잇는 왼남자한분이 모자를 벗서들구 자꾸 절만하겟죠 내생각에 아마 잘못알구그래서 미안해그

에 오빠 스케트좀 갓다줘요 하고 따라가도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만 가겟지요 그래서 아마 스케트가저가기가 귀찬허서 그러나보다 하구는 그냥 스케트만 보재기를 오빠의 엽구리에 끼여주고는 다름바질처 왓더니 글세 그사람이 도라서서 스케트가지구 가세요 하고 자꾸 소리치길래 도라봣드니 스케트를 도루주는데 보니까 글세 그사람이 오빠와 똑가태 원래 오빠는 성질이 얄구저서 좀체 말을잘 듯지안허요 그래서 정말오빠줄알구 끼워줫더니 글세 아주 딴사람이구요

一同 (허리를잡고웃는다)

卜 하루에 제일행복스러운때가 언제겟서요 연극하는사람은 연극을 다맛내고나면 행복스러울걸요

金 원체 연극을 잘못하니깐

卜 난 요새는 주인이도라오시면 차한잔끄려다주고 기분이 어떠나고물어서 만족해 하면 마음에 퍽 행복스러워요

朴響 나는 연주하는시간이 제일 행복스러워요

朴丹 나는 레코ー드를 취입하는데 시험반(試驗盤)에 제마음대로 잘취입이된것을 드를때 마음에 제일 기뻐요

卜 여러분은 어디한번 가보시고시픈곳이업서요

朴響 난 상해(上海)를 한번가보고시퍼요

文 조선안에서는 백두산(白頭山)에 한번가보구십구 다른외국은독일(獨逸)이가보고시퍼요

金 다시 가보고시픈곳은 금강산(金剛山)이야요

韓 나는 눈오는겨울의 모스크바가 꼭한번 보구시퍼요

池 나는 헐리우드구경이나 한번가볼까

팬 때문에이 苦心

만내자니기가막히구 안만나면검방젓단다

卜 우리들은 직업이 직업이니까 팬에게서 편지를 만히 밧게되지안허요 그런데 처음바든 팬의편지나 감격된 팬의편지 이야기를 좀해봐요 나부터 몬저이야기해야지 청진신당동(淸津新堂洞)에서 편지한장이 왓는데 겸봉에다가 경성부종로이동대문(京城府鍾路里東大門)복헤숙 이라구 썻구료 그때 난 낙원동(樂園洞)살엇는데 아버지가보시군 차저오수가 용쿠나하섯서요 뜨더보니까 소학교 일이학년애들이쓰는 공책장을 뜨더썻는데 나는 당신을 퍽조하합니다 당신을 조선여편에서도보고 공낙관(共樂館)에서도보앗서요 나두 당신을조하하니까 당신두 나를조하할줄 밋습니다 다음 청진으로 올때에는 미리 편지해주시요 햇는데 아주어리구 순진해요 회답은 안햇지만 지금두 그편지는 잘간직해가지구잇서 십년이나되는데……

文 내가 열다섯살되는 여름 제일처음으로 연서한장을 바덧는데 당신을아직어린사람으로 연극을 잘하는데 장내에 성공할것가트니 아무쪼록 열심으로 해가라고 점잔케써 보냇서요 그때가 제일처음이구해서 아주감격햇서요

李 도야정(桃野町)사는사람에게 편지가왓는데 내용은 보잘께업서두 그편지보낸사람이름이『양보달』이라고해서 모두 그편지를보고 아마 이사람은 서양서오사람이가보다하구는 그후부러는 나를 불럿때면 양보따리 양보따리해서 내별명이 양보따리가 됏서요

盧 최승희(崔承喜)씨제자로 잇슬때 제일회발표회를하는데 석달동안 기보연습을해가지구 나는 영산무(靈山舞)를 추게되엇든데 마음을 한시두 노치못하구 혼자서 어떠케추나하구 여간 걱정이되지안햇서요 그런데 사흘째되던날 최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지금 어느분이 말슴하는데 아모게는 조선춤으로 아주 유망하다고 매우 칭찬하더라구 그러시겟지요 어떠케 그말에감격되엿던지 그냥 선생아페서 선생을부둥고 울던일이잇서요

金 난 특별히 편지바든일은 업서요

池 내가 처음바든 편지에ー내가 외국가서 오래잇섯기때문에 조선여성을멸시햇섯는데 무대에선 당신을보고 재인식햇다고하면서 격려의편지를 써보냇는데 아주 고맙게생각햇서요

卜 혹시 면회강청(面會强請)당하는수도만치안허요

난 북간도용정(龍井)갓슬때인데 거긴 원체 학생들이 만히와요 그래서 개막시간이 좀느젓는데 학생대표가 드러와가지구는 오분이느지면 수백명관중이 몇시간을 허비하는지 알어요? 이러케 시비를 따지구나가요 예정과가티 아홉레동안 연극을 마치고나오는데 학생들이 새까마케 나서서는『복혜숙!』하고 불르는데 고만 무서워서 몰래빠저 여관에 피해왓더니 또여관아페까지 따라와 새까마케 몰려서서는 안나온다고 욕을 퍼붓느구려 그리더니 대표한사람이 쓱 마당까지 드러와서 섭섭해서 인사하러 왓다기에 마루로 나갓더니 대표가 악수를 청하구는 잘가라고한마디만하겟지 그래서 여러분 안녕히 게십시요 햇지

文 면회하자는데는 참거정이애요 안만난다면 거방지다구그러구 또 만나자니 기맥히구 그냥혼구시퍼요

池 직접오겟다는 경우도잇지만 대개는 사람을가운대세워서 시간이업다고거절하는게 수야

文 시간이업다고하면 시간이잇도록 맨들사구그러면서 어느때던지조흐니 만나자구그래

卜 혹시 회화가틀겁 보내는수도잇지안수

池 잇서두 누가햇는지 잘 역여보지두안쿠 극장에 몃개노혓지만 그냥 지내처보구만말지

卜 뭘 그래 누가햇나해서 다역여보면서ー

金 원체 그런경험도업지만 우리단체에서는 일체거절하구 개인께오는것두 퇴자를노하요

★……★……★

奉化郡小川面縣洞市場 金泉旅館 主 禹順玉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永廣社
奉化郡乃城市 德興精米所 劉永植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炯植商店
奉化郡才山面縣洞 才山面職員一同
奉化郡乃城市 玄米、大豆 肥料、雜品 機械、諸油 盛昌商店
奉化郡春陽面禮段里 朴宗錫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崔守鳳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沈東國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土木請負業 禹聖淑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業所 黃泳禧
奉化郡乃城面浦底里 奉化酒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鄭泰福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春慶旅館
奉化郡乃城市 綿布 絹織 孫德仁商店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全錫祜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接客營業組合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田賢秀
奉化郡小川面古峴醸造場 孫姺振
奉化郡乃城市 醴泉旅館 主 朴春今
奉化郡乃城市 公益堂 主 裵堉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全安世
興京縣河南東門外 精米業 協成號
興京縣河南街 興京金融會
興京縣河南大街 東盛號精米所 主 金鍾遠

奉化郡乃城市 金珍圭醫院
奉化郡乃城市 權重錫商店
奉化郡乃城市場 和洋菓子 果物一切 食料品 海産物 永興商店 主 洪思鉻
奉化郡才山醸造場 權宗弼
奉化郡明湖面 職員一同
奉化郡鳳城面酒田里 朴載義
奉化郡乃城市 紳士服 婦人服 子供服 學生服 世信洋服店 主 李元植
奉化郡法田面事務所 職員一同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黃泳錫商店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全炳元支店 權重漢
奉化郡乃城面花川里 朴孝緖
奉化郡乃城市 司法書士 金炳鶴事務所
奉化郡乃城市場 金守眞商店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紙物商店 主 黃渭鉉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井社 主 宋錫九
奉化郡春陽市場 春陽商店 主 邊德晉
奉化郡春陽市場 李鉉軫
奉化郡春陽市場 全炳烈
奉化郡春陽面西碧里 李相鎬商店
奉化郡春陽面 金井鑛業所 禹圭三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金山堂 主 金容玹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權泰運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李基鎬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高潤慶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嚴炯俊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任善宰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張晩祥
奉化郡乃城邑 南翼顥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南翼洙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金太生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殷達根
奉化郡春陽面德邱里 康基元
奉化郡春陽面德邱里 金在鎬
奉化郡春陽面德邱里 梁任淳
奉化郡春陽市場 金錫永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全遇陽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朴乃潤
奉化郡春陽面金井鑛業所 朴昌東
物野面事務所 職員一同
奉化郡春陽市場 稻葉重石 春陽荷扱所
奉化郡廳 職員一同

保寧漁業組合 理事 崔鍾夏
保寧郡大川面大川里 海産物委託販賣所 姜泰悌
忠南線大川驛前 朝鮮料理 泰平館 主 金正洙
保寧郡校長一同
忠南保寧 開城農場 李永祜
東一銀行大川支店 韓綺洙
保寧郡周浦 關野喜藏
保寧警察署
忠南線大川驛前 西洋料理 食料品 共和昌 主 隋作才 電話四三番
大川米穀商組合
朝鮮煉炭株式會社 熊川取引店 吳炳彦
朝鮮麵子株式會社 保寧分工場 主任 金伯鉉
保寧郡 保寧產業組合
忠南保寧郡熊川 道會議員 李漢明
保寧郡 大川面事務所 職員一同
保寧郡熊川面大昌里 開昌農場 支配人 金義錫
保寧郡 熊川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南線熊川驛前 熊川精米所
忠南線熊川驛前 洋品雜貨 綿絲布木 大川和信連鎖店 電話四五番
長湖院
004361
金慶培
劉重植商店
京畿道利川郡淸渼面長湖院里 長湖院穀物購買組合 電話三二番 電略(チコ)又ハ(テウクミ)
朝鮮料理 大興館 主 白点奉
利川郡淸渼面長湖院驛前 忠州洪州 石氏大同譜所
株式會社東一銀行 長湖院支店
權寧直醫院
金裕奭
長湖院 穀物肥料 共信商會
京南印刷所
柳潤華

公州邑本町 電話二一三
公州本町 綢緞布木 和洋雜貨 寢具敷物 南一商會 電話二三一番
公州稅務署
公州酒造組合
公州本町二七七番地 食料品 菓子 酒類 松屋商店
正安面石谷里 姜鳳周
公州邑本町 和菓食料品 洋菓子雜貨 星光商店 主 鄭星謨
公州本町 李康日 電話一七一番
大田府大興町一八九 金敎駿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公州支所長 金喆鎬
材木薪炭 李興元材木店 電話二三九番
忠南大本山 麻谷寺宗務所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公州出張所 所長 林承復 忠南公州邑本町通り 電話一三四番
朝鮮御料理 錦樂園 公州郡公州邑本町九五番地 電話一二五 洪桂月
公州邑長 高原圓治郎
公州金融組合
正安面 元鍾國
長岐面道溪里 錦春釀造場
朝鮮公州旭町 公州齒科醫院
忠南公州郡公州邑旭町 主 尹龍淳
廣成木工廠 主 梁善一
忠南無盡株式會社公州代理店 河遠澤
吳精米所
鷄龍面敬天里 方榮根
綿布雜貨 福成興
朝鮮公州本町 金興三
公州邑旭町 金縉圭
公州旭町 米穀商 吳昌先 電話二〇五番
黃元淑
成樂鴻
鄭漢明
俞昌植
李成汝
朴元默
高級化粧品 化學品調合 濟州島椿油元造製 各種雜貨卸散賣 花香堂 金容熙
公州郡寺谷面虎溪里 朴在漣
永明實修學校
山城町 鄭漢旭
公州本町 丸田洗濯所
忠淸南道公州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大田支店公州出張所
漣川驛前 普成堂時計舖
帝國在鄕軍人漣川分會長 松浦忠三郎
漣川郡廳
漣川郡農會
京元線漣川驛前三四 料理元祖 暎春館 主 康春玉
漣川大街 洪陰田

光興自轉車
原州郡農會
江原道原州邑本町通り 雜貨卸商 明信商店 電話二三番
原州邑 平原商會 電話三〇番
京春鐵道株式會社貨物自動車部 原州郡原州邑上洞里 原州支店
原州邑本町 綢緞布木 雜貨紙物 東方商會 廉守明 電話二六番
原州邑本町 醸油商 李命煥
江原道原州本町 印刷及ゴム印 諸般附屬 幘華堂 主 李勝源 振替京城一九二九三番
原州邑本町通 各種製服商 林範錫商店
江原道原州邑本町 三益商會 代表者 張基惠
原州釀造場
江原道原州邑本町通 百萬고무商會
江原道原州郡文幕面 金敎
江原道原州邑內司倉通り 海産物雜貨 精米所 中央商會 電話八一番
原州邑本町 金鍾龍自轉車店
原州邑上洞里 回生堂藥房 金健培
長谷商店原州支店
林淳
京城屋 申又出
內科小兒科 中央醫院 醫師 李載春
原州邑 德濟醫院 醫師 李斗炳
原州邑下洞里 三和商店
周信洋靴店
吳允善
李八峯
趙萬順
李晉根
李卜伊
江原道文幕市 泰陸商會 金大鳳 振替京城九一〇七番